연구보고 RR 2014-28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_ 박 성 호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_ 강 영 혜 (한국교육개발원)
엄 문 영 (한국교육개발원)
김 진 희 (한국교육개발원)
조 미 영 (한국교육개발원)
전 주 성 (숭실대학교)
이 미 라 (충남대학교)

연 구 조 원 _ 서 은 경 (한국교육개발원)
설 가 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우리사회의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고령 인구의 재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책무라 할 수 있다.

본원에서는 2007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간의 통계조사로 평생교육의 인프라와 참여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였고, 이를 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조사내용으로는 실증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평생교육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개선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평생교육 통계에 있어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을 되짚어 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기존 평생교육기관조사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신뢰로운 통계자료 생산과 실증적인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연구요약

이 연구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집담회(FGI), 델파이 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

첫째, 평생교육기관조사는 현황자료 위주의 통계조사에 머물러 그 결과를 지표 및 지수화하기 어려워 정책진단 및 연구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사항목이 많으며, 조사항목도 너무 많아서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조사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통계조사의 기본 틀이 되는 분류체계가 실제 교육프로그램의 다중성 및 융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조사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에서 활용되는 분류의 불일치로 국가수준의 통합적 정보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강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게 되어 조사담당자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조사기간(조사기준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필요(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통합적 자료 구축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사담당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조사시스템이 낙후되어 효율적인 조사관리가

어렵다. 특히 조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원활한 조사가 되지 못하며, 조사항목의 수정이나 신규요구에 대처하기 어렵다.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활용도나 신뢰도가 낮은 조사항목을 정비하여 조사항목을 간소화 하고,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과 지역 단위에서 부가적으로 조사할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사내용의 분류도 일선 현장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신규통계항목을 개발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 분류 기준의 일원화 및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상의 등록기관에 더하여 타 법령 교육기관으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기준의 일원화와 더불어 평생교육기관의 범주 및 유형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 분류작업에는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정향성, 법상의 분류기준, 기관 고유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넷째,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조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시·도별 조사대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지침과 조사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들 내용을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통합적 정보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학습실태조사의 문제점

첫째,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미흡하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학습량과 성과, 참여 결정 요인, 탈락 요인, 학습 소외계층과 참여 장애요인, 특정집단별 학습과정과 접근의 차이, 평생학습 유인책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 부족이다.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도 단위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별, 소득별 등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도 집단별 적은 사례수로 측정오차가 커서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 게다가 조사 예산이 그때그때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져 매해 조사표본수의 안정성을 기약하기 어렵다.

셋째, 평생학습의 유형별 범위가 모호하다.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일부 예시항목도 지엽적으로 제시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학계, 평생교육실무자,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평생학습 범주에 대해서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유형 분류,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등에 대한 표준화와 명료화가 시급하다.

넷째, 조사항목이 과다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인해 조사의 성공률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무형식학습이 포함되어 신뢰성과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학습자의 참여목적에 따라 유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개인학습실태조사의 개선방향

첫째, 조사목적을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확보에 두고, 지역 및 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 및 참여패턴에 관한 시계열적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 예산의 분배와 재정투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모형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형식교육의 프로그램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프로그램 맥락에 따라 융복합화 하

는 평생교육의 변화를 담아내도록 한다.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무형식학습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비형식교육 참여 관련 문항도 온라인 학습의 증가 및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와 같은 평생학습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조사지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용어 또한 조사담당자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사 응답자의 연령 및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령층으로 확장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표집규모(2014년 기준 9,600명)를 시·군·구별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 **주제어**: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절차 6

Ⅱ. 이론적 배경 11

1. 평생교육의 개념 및 유형 13
2. 국내의 평생교육 실태 관련 선행연구 27
3. 외국의 평생교육통계 조사 31
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39

Ⅲ.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실태 및 개선 방안 45

1.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47
2. 평생교육 통계·조사(기관) 현황 51
3. 평생교육 기관통계의 주요 문제점 76
4. 평생교육 기관통계 개선 방안 85

Ⅳ.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실태 및 개선 방안 97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현황 99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주요 문제점 104
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향 109
4.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113
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119

Ⅴ. 결 론 129
1. 요약 131
2. 제언 135

참 고 문 헌 139

ABSTRACT 143

부 록 147
[부록 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 149
[부록 2-1]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171
[부록 2-2]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175
[부록 2-3] 평생교육 기관조사 개선을 위한 FGI 질문지 177
[부록 2-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1차 FGI 질문지 180
[부록 2-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2, 3차 FGI 질문지 185
[부록 2-6]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수정(안) 189
[부록 2-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세부 수정(안) 192
[부록 3] 델파이 전문가 의견 조사지 202

표 차 례

〈표 Ⅱ-1〉 Peter Jarvis의 학습상황 분류 16
〈표 Ⅱ-2〉 국내·외 주요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유형별 정의 19
〈표 Ⅱ-3〉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비형식교육 유형 구분 22
〈표 Ⅱ-4〉 KEDI 프로그램 계열 분류 25
〈표 Ⅱ-5〉 KEDI 프로그램 주제별 분류 26
〈표 Ⅱ-6〉 미국 가계교육조사 조사연도별 조사내용 36
〈표 Ⅱ-7〉 미국 가계교육조사의 세부 문항 36
〈표 Ⅲ-1〉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및 근거 법령 48
〈표 Ⅲ-2〉 평생교육통계조사 분류 체제상 누락된 평생교육기관 50
〈표 Ⅲ-3〉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진행 경과 52
〈표 Ⅲ-4〉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53
〈표 Ⅲ-5〉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별 조사 기준(2014년 기준) 54
〈표 Ⅲ-6〉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55
〈표 Ⅲ-7〉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기관유형 분류 56
〈표 Ⅲ-8〉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 현황 및 주체 58
〈표 Ⅲ-9〉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2014. 8. 기준) 59
〈표 Ⅲ-10〉 시·도청별 평생교육 전담 조직 현황 61
〈표 Ⅲ-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63
〈표 Ⅲ-12〉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유형 소분류(2014년 조사) 64
〈표 Ⅲ-13〉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내용 66
〈표 Ⅲ-14〉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표(KLPCS) 70
〈표 Ⅲ-15〉 평생교육기관 정향성에 따른 유형분류 72

〈표 Ⅲ-16〉 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시·도 간 MOU 체결 현황(2014.8.기준) 74
〈표 Ⅲ-17〉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및 조사방식 75
〈표 Ⅲ-18〉 2013년 경북자체조사와 KEDI 조사의 조사대상기관 비교 78
〈표 Ⅲ-19〉 2013년 대구자체조사와 KEDI 조사의 조사대상기관 비교 79
〈표 Ⅲ-20〉 KEDI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개선(안) 91
〈표 Ⅲ-21〉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95
〈표 Ⅳ-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진행 경과 99
〈표 Ⅳ-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추이 100
〈표 Ⅳ-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항목 추이 101
〈표 Ⅳ-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항목 101
〈표 Ⅳ-5〉 전체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VR)의 최소값 114
〈표 Ⅳ-6〉 평생교육 유형별 정의 및 유형 구분의 내용타당도 116
〈표 Ⅳ-7〉 조사 영역별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119
〈표 Ⅳ-8〉 평생교육의 참여목적 및 성과 개선(안) 120
〈표 Ⅳ-9〉 형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개선(안) 121
〈표 Ⅳ-10〉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개선(안) 121
〈표 Ⅳ-11〉 학습참여 장애요인 조사 항목 개선(안) 122
〈표 Ⅳ-12〉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 수정(안) 122
〈표 Ⅳ-13〉 평생학습 참여 중도탈락 사유 개선(안) 123
〈표 Ⅳ-14〉 평생교육의 접근성 개선(안) 123
〈표 Ⅳ-15〉 학습역량 관련 문항 개선(안) 123
〈표 Ⅳ-16〉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항목 개선(안) 124
〈표 Ⅳ-17〉 배경변인 조사 항목 개선(안) 124
〈표 Ⅳ-18〉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안) 126
〈부표 Ⅰ-1〉 주요 변수 설명 153
〈부표 Ⅰ-2〉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154
〈부표 Ⅰ-3〉 형식교육여부*부양가족 교차표 155
〈부표 Ⅰ-4〉 형식교육여부*직업군 교차표 155
〈부표 Ⅰ-5〉 형식교육여부*정치관심 교차표 156

〈부표 Ⅰ-6〉 비형식교육여부*부양가족 교차표 156
〈부표 Ⅰ-7〉 비형식교육여부*직업군 교차표 157
〈부표 Ⅰ-8〉 비형식교육여부*정치관심 교차표 158
〈부표 Ⅰ-9〉 평생학습여부*부양가족 교차표 158
〈부표 Ⅰ-10〉 평생학습여부*직업군 교차표 159
〈부표 Ⅰ-11〉 평생학습여부*정치관심 교차표 160
〈부표 Ⅰ-12〉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형식교육 모형) 161
〈부표 Ⅰ-13〉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비형식교육 모형) 162
〈부표 Ⅰ-14〉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형식/비형식교육 모형) 162
〈부표 Ⅰ-15〉 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163
〈부표 Ⅰ-16〉 비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165
〈부표 Ⅰ-17〉 형식/비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166
〈부록표〉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171
〈부록표〉 시·도별 팽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175

그림차례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9
[그림 Ⅱ-1] 가능한 학습상황들(Jarvis, 2010) 15
[그림 Ⅱ-2] 평생학습 유형 분류 기준 18
[그림 Ⅱ-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평생교육분류체제(KLPCS) 24
[그림 Ⅱ-4] PIAAC 조사의 주요 항목 33
[그림 Ⅲ-1]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체계별 조사흐름도 57
[그림 Ⅲ-2]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부표 그림 Ⅰ-1]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형식교육 모형) 161
[부표 그림 Ⅰ-2]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비형식교육 모형) 161
[부표 그림 Ⅰ-3]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형식/비형식교육 모형) 16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국가평생학습 체제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속화로 지식과 정보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고령층의 재교육 및 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국정과제 72)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교육부, 2013. 9.)을 수립하여 국가 수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현 정부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개통,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2014 교육부 업무보고).

이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기초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의 국가수준 정보를 대표하는 본원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대가 만 25~64세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불충분한 표본으로 지역별 참여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 사회적·정책적 필요에 대응한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다양화에 적합한 평생교육통계 및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개선

평생교육관련 통계정보의 한계는 교육기관 대상의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의 제공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기관(전체 평생교육기관의 약 20%로 추정)에 한하여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청, 경남도청 등)와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현황조사와 조사내용을 공유해 왔으나, 평생교육기관 간 성격의 차이와 전국적인 조사 표준의 미비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제한적인 실태조사는 국가 단위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입안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참여 하에 평생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기관 조사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평생교육통계 및 개인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통계 정보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개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관한 현행 조사체계의 적합성을 진단한다.

- 평생교육의 이론적 동향 및 정부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현행 조사의 분류체계의 적합성을 진단한다.

- 조사 자료의 활용성 측면에서 현행 기관조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 신뢰롭고 활용도 높은 통계정보 생산 측면에서 현행 조사 항목의 적합성을 진단한다.

둘째, 평생교육 관련 조사 항목 개선 및 효과적인 조사·관리·활용 방안을 도출한다.
- 평생학습의 확대 및 다양화에 상응하는 포괄적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항목의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 조사 자료의 신뢰도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조사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2. 연구 내용

첫째, 평생교육의 이론적 배경: 평생학습의 개념 및 범주
-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 국내·외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내용과 항목 검토
-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한 평생교육의 범위 및 분류 방식 검토
- 평생교육기관 분류 관련 법적 근거 확인

둘째,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의 현황 및 개선과제 도출
-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기준과 원칙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셋째,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평생학습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 개선 방안
- 평생교육통계조사 확대 및 관리 방안 도출
- 평생학습 관련 조사 자료의 활용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평생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 조사 분석
○ 평생교육 영역의 분류 관련 선행연구
○ 평생교육 관련 법적 기반 확인

2) 평생학습 실태 조사 개선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가) 평생교육통계 조사기관 담당자 FGI 실시(2회)

○ 목　　적 : 평생교육기관 통계 조사 개선 방안 도출
○ 대　　상 :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사 책임자
- 1차(2014. 7. 18.) : 서울특별시청(2명), 서울평생교육진흥원(1명), 인천평생교육진흥원(2명), 부산평생교육진흥원(1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명),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1명) 〈총 9명〉
- 2차(2014. 7. 24.) : 대구광역시청(1명), 대구경북연구원(1명), 경북평생교육진흥원(2명), 경남도청(1명), 경남발전연구원(1명) 〈총 6명〉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생교육통계 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내용, 조사 방식 등
-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한 의견
-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 항목 및 조사 방식 개선 사항
- KEDI-지방자치단체 통합조사 구축 방안

나) 평생학습 영역 전문가(교수 및 연구기관) FGI 실시(3회)

○ 목　　적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도출

○ 대　　상 : 평생학습 영역 전문가(교수 및 연구기관) 및 현장 전문가
- 1차(2014. 7. 28.) : 대학교수 1명, 현장전문가 1명
- 2차(2014. 8. 26.) : 대학교수 2명, 연구기관 1명
- 3차(2014. 9. 2.) : 대학교수 1명, 연구기관 2명, 현장전문가 2명

○ 주요내용
- 현행 조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방향성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세부 항목 관련 개선 사항
- 평생학습의 범위와 유형 분류

다) FGI 면담 자료 분석

○ FGI 참여자의 면담 자료 전사(transcription)

○ 주제 중심의 토픽 코딩(topic coding) 및 교차 사례 인터뷰 분석(cross-case interview analysis)

3) 평생학습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 실시

가) 델파이 조사 개요

○ 개　　요 : FGI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대　　상 :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3명

○ 조사기간 : 2014. 10. 7. ~ 10. 20. (2주)

○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 응답인원 : 39명(응답률 : 42%)

○ 질문내용
- 조사 설계 관련 개선 사항
- 형식교육/비형식교육의 정의, 기관 및 프로그램 유형 구분의 적절성
- 무형식학습의 정의, 무형식학습 조사의 필요성

- 평생학습 참여 목적 및 성과 구성의 적절성
- 형식교육/비형식교육 조사 영역별(참여여부, 참여교육과정, 시간, 비용, 목적, 성과 등) 개선 사항의 타당성
- 장애요인, 접근성, 학습역량,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조사항목의 타당성

나) 델파이 조사 분석

○ 기술통계
-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 내용타당도 검증
-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산출(Lawshe, 1975)

$$CVR = (ne-N/2)/(N/2)$$

ne : 리커트 4(타당함)와 5(매우 타당함)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
N : 전체 전문가 패널의 수

출처 : Lawshe(1975:567)

- 델파이 조사 응답 사례수가 39명이므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CVR 기준은 0.30임(Lawshe, 1975:568)

나. 연구 추진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

우선 문헌연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연구 과제를 구체화시켰으며,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현행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한 후 세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FGI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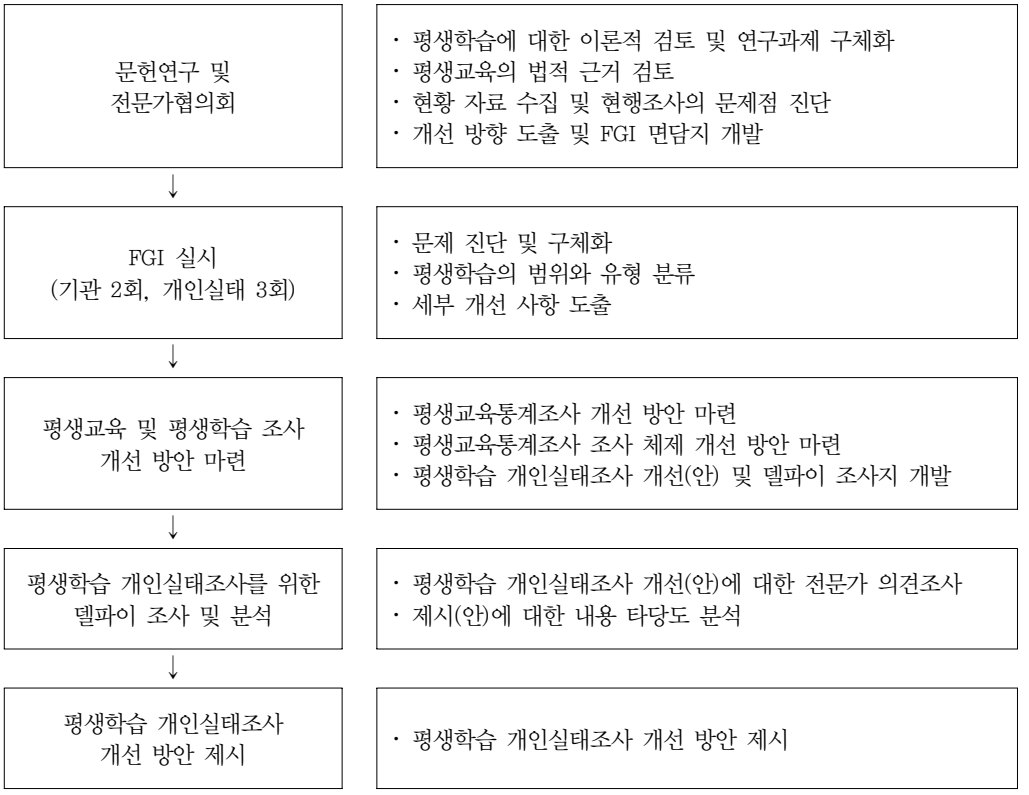
둘째, FGI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평생학습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분류와 세부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FGI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분석하여 FGI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평생교육기관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한 델파이 조

사지를 개발하였다.

넷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 및 유형
2. 국내의 평생교육 실태 관련 선행연구
3. 외국의 평생교육통계 조사
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 및 유형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학습유형과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 학습의 인식론적 차이나 경계 구분을 넘어서, 평생학습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논의는 평생교육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평생교육 관련 실태조사에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된다. 그리하여 이 절에서는 평생교육학계에서 평생학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분류체계를 취하여야 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평생학습의 정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는 평생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Jarvis(2006)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인간의 학습은 일생동안 전인간(whole person), 즉 육체(유전적, 육체적, 생물적)와 정신(지식, 기술, 태도, 가치, 감정, 신념, 감각)이 사회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인식된 내용을 인지적, 정서적, 실제적인 것으로 전환하며, 이를 개인적인 인간의 전기로 통합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혹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생애에 걸친 과정들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한숭희(2009)는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모든 경험의 변화가 내적으로 통일성과 전일성을 획득하는 전생애적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역시 비교적 연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Jarvis(2010)는 평생교육을 “어떤 제도화되고 계획된 일련의 사건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인본주의

적 토대를 가지며, 참여자들의 학습과 이해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숭희(2009)는 "학습사회를 배경으로 경험의 계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운데 교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천과 제도에 관한 조직 원리"로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개념 정의에 비춰 볼 때 평생교육분야의 통계조사가 개별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개별 학습자 내부에서 총체적으로 체화된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진흥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로 구분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관련 통계·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평생학습을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 훈련"(한국교육개발원, 2013c)으로 정의하고 있다. EU의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AES)에서는 평생학습을 "개인·시민·사회·직업 관련 지식·기술·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 생애에 걸친 모든 학습활동"[1]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학습활동은 개인의 지식, 기술, 역량을 의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의 구조화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의도적 학습은 지식, 기술, 역량, 태도 등에 대한 계획적인 탐색을 의미하며, 구조화된 학습이란 명백한 혹은 명백하지 않은 목표에 대한 계획적 학습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평생학습을 "평생교육법에 의거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한국교육개발원, 2013b)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평생학습의 분류

1) 평생교육 이론에서의 평생학습 분류

평생학습에 대한 분류는 대체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분은 대다수의 연구자들과 평생교육 관련 조사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정의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한숭희(2009)에 따르면 형식교육은 "국가가 학력이나

1) Eurostat Metadata,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trng_aes_esms.htm 2014.6.9.인출

학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을 의미"하며, 비형식교육은 "교실, 교사, 학생, 교과서, 시간표 등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으로서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력보충교육, 연수원에서의 기업교육, 시민단체에서의 시민교육 등"을 의미한다. 또한 무형식학습은 "활동의 주목적이 제도화된 교육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기주도적 활동 안에서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숭희의 분류는 2007년 이후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적용되고 있다.

한숭희의 분류와 유사하게 Merriam, Caffarella, 그리고 Baumgartner(2007)도 형식교육을 "매우 제도화되어 있고 관료주의적이며 교과과정을 중시하고 학점, 학위, 수료증 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을 "형식적 교육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조직적인 학습기회(박물관, 도서관, 시민단체 제공 프로그램 등)"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은 "자발적이고 비구조적인 학습으로 가정이나 이웃에서, 학교 밖이나 놀이 장소에서, 직장, 시장, 도서관, 박물관에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으로 일어나는 학습(자기주도 학습, 암묵적 학습, 우연적 학습 등)"으로 정의한다.

반면, Jarvis(2010)는 평생학습의 유형을 상황의 종류와 학습의 종류로 구분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가능한 상황의 종류를 형식적, 비형식, 무형식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학습의 종류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적인지에 따라 학습의 상황을 다시 분류하였다. [그림 Ⅱ-1]은 이러한 Jarvis(2010)의 학습상황을 나타낸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표 Ⅱ-1〉과 같다.

		학습의 종류	
		의도됨(intended)	우연적임(incidental)
상황의 종류	형식적 (formal)	A	D
	비형식적 (non-formal)	B	E
	무형식적 (informal)	C	F

[그림 Ⅱ-1] 가능한 학습상황들(Jarvis, 2010)

〈표 Ⅱ-1〉 Peter Jarvis의 학습상황 분류

학습상황	설명
형식교육(A)	- 의도된 형식교육/훈련, 교육기관 및 관료조직에 발생 - 교육기관, 학위과정, 조직화된 학습 환경, 관료 조직, 전일제 학습 체제 등
비형식교육(B)	- 일터, 커뮤니티, 기타 등에서 비구조화된 학습 - 공식적인 학습과정에 의존하지 않는 학교교육, 일터, 커뮤니티 등에서의 학습 등
무형식학습(C)	-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계획적 학습 - 자기주도적 학습, 조직화되지 않는 개인적 학습, 성인 문해 교육, 원격교육, 멘토링 등
형식적 상황에서의 우연적 학습(D)	- 언제나 교육적이지는 않지만 학습경험에 대한 계획자들(planners)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경험
비형식 상황에서의 우연적 학습(E)	- 비형식/무형식 에피소드들에서의 우연적 학습
일상생활에서의 학습(F)	- 전의식적(pre-conscious) 및 전인식적(pre-cognitive) 학습 -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학습상황

출처 : Jarvis(2019) 재구성

한숭희(2009)의 분류와 Merriam 외(2007)의 분류, 그리고 Jarvis(2009)의 분류를 겉으로 보면 형식-비형식-무형식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한숭희(2009)나 Merriam 외(2007)의 분류에서 형식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Jarvis(2010)의 형식교육은 '구조화된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즉, 한숭희(2009)나 Merriam 외(2007)에서 형식교육은 국가에 의해 학력이나 학위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으로 수렴된다. 특히, 한숭희(2009)의 정의에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안학교나 일부 방계학제에 속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형식교육이 아닌 비형식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형식교육을 구조화된 학습 환경으로 보고 있는 Jarvis(2009)의 정의를 따르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들 외에도 의도적인 형식과 과정, 시설 및 여건 등을 갖춘 모든 제도적/비제도적 기관들이 형식교육에 포함되며, 비형식교육은 일터나 커뮤니티 등에서의 비구조화 된 학습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Jarvis의 분류에서 형식교육의 범위가 우리의 정규학교 교육 외의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공교육체제에서는 국가수준의 자격체계를 근간으로 정규학교 졸업장 외에도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은 구조화된 학습환경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환경과 교육 실제가

매우 다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Jarvis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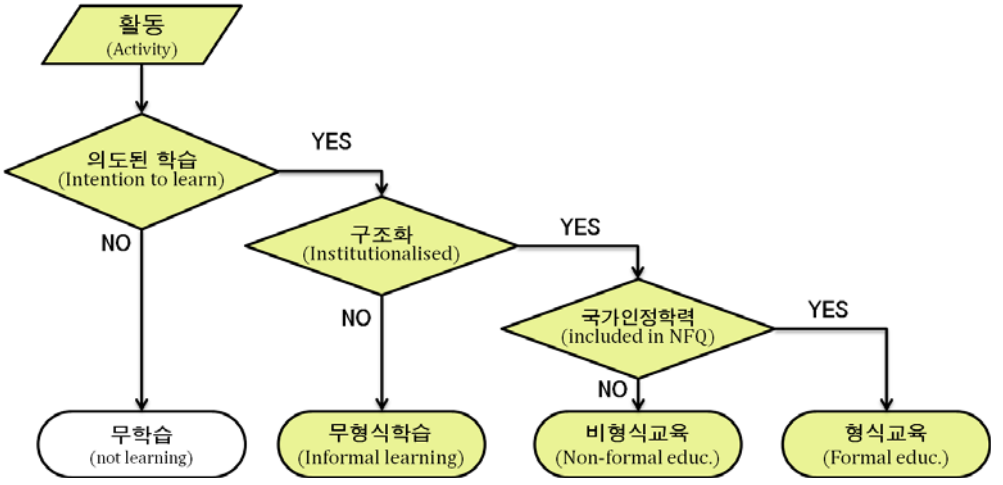
2) 평생교육 관련 조사에서의 평생학습의 유형 분류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동안 국내·외에서 실시된 평생교육 관련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생학습 유형 구분은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등으로 앞서 언급한 유형 분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형식교육을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는 학습"으로 "흔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 고등학력보완교육(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을 포함한다. 비형식교육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즉,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형태로 참여한 교육으로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이 해당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무형식학습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여기에는 흥미나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학습경험을 포함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또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 인쇄매체(책이나 전문잡지 등)를 활용한 학습,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항목을 설계할 당시 벤치마커가 된 EU의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AES)[2]에서는 형식교육을 "대체로 5~7세에서 시작하여

20~25세 사이에 전일제로 받는 연속적이며 위계화 된 일련의 학교(대학) 및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의 형태는 아니지만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형식교육은 교육제도 안팎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마다의 맥락에 따라 문해교육,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기초교육, 생애기술, 직업기술, 문화교육 등을 포함한다. 무형식학습은 "의도되었으나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구조화된 학습"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일상생활 등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의미한다.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은 '교수 과정에 의한 학습(taught-learning)'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EU에서는 의도적 활동인지 여부, 제도화 여부, 국가학력인증체제 포함 여부 등을 평생학습 유형 구분의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평생학습 유형 분류 기준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06:19)

한편,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에서는 형식교육을 "학령기의 일반적인 정규교육 이후에 다시 정규교육기관에서 전일제 혹은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은 "원격교육, 현장훈련, 세미나/워크숍, 강좌 또는 개

2) Eurostat Metadata,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trng_aes_esms.htm 2014.6.9.인출

인교습 등 학교교육을 벗어난 비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1). PIAAC에서는 무형식학습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무형식학습이 중요한 연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Eurostat의 AES나 OECD의 PIACC에서 무형식학습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방법론적인 제한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한숭희 외, 2007b).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개선할 경우 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힘든 무형식학습의 제외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Ⅱ-2〉 국내·외 주요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유형별 정의

평생학습 유형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EU 성인교육조사 (AES)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형식교육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는 학습으로 흔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5~7세에서 시작하여 20~25세 사이에 전일제로 받는 연속적이며 위계화 된 일련의 학교(대학) 및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학령기의 일반적인 정규교육 이후에 다시 정규교육기관에서 전일제 혹은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	형식교육의 형태는 아니지만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형태의 교육	원격교육, 현장훈련, 세미나/위크숍, 강좌 또는 개인교습 등 학교교육을 벗어난 비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무형식학습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	의도되었으나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구조화된 학습	-

대체로 국내·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적용하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정의는 한숭희(2009)나 Merriam 외(2007)의 정의 및 분류방식에 가깝다. 이 경우 형식교육은 일반적으로 학위 또는 학력이 인증되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제한되며 비형식교육은 조직화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하여, 원격교육, 현장훈련, 세미나/워크숍, 강좌 및 개인 교습 등 학교 교육을 벗어난 비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을 포괄한다(OECD, 2011).

3) 비형식교육의 범위 설정 문제

앞에서 살펴본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구분을 따르더라도 비형식교육의 범위가 넓어 실제 조사에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가령, 국가교육제도 내 방계학제로 학력 인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하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일부 각종학교나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은 '학위 또는 학력 인증'이라는 기준만으로는 형식교육에 포함시키지 어렵지만 그 외 교육과정, 교사, 조직, 시설, 입학 및 수료 자격, 수업연한, 설립 근거 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형식교육으로 범주화하기도 어렵다. 또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처럼 '학위 또는 학력 인증'이 이루어지지만 그 밖의 다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제도들을 형식교육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전자의 경우에는 형식교육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비형식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전자의 유형들을 정규교육기관(또는 기간학제)과 구분하여 준형식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주요 평생학습 실태 조사의 비형식교육 범위가 넓어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도 실제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경우 김진화·고영화(2009)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비형식교육을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수자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강좌나 학습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로 "TV 및 인터넷 강의, 직장에서 받는 직무연수나 특강·워크숍 및 세미나,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농어촌지역의 영농교육, 개인교습(과외), 학습동아리(스터디 그룹)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를 따를 경우 대학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기관과 개인교습 및 학습동아리처럼 비교적 덜 구조화된 학습 형태가 포함되고, TV 및 인터넷 강의처럼 학습자의 자발성에 의존한 학습형태가 혼재

하게 된다.

이러한 비형식교육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있어 성인들의 전반적인 평생학습 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그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의 목적이 학습자의 평생학습 환경을 국가 수준 또는 제도적 수준에서 제공하여 성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비형식교육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비형식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개인 혹은 사적 영역에서의 평생학습 참여와 공공 영역에서의 평생학습 참여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 둘의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승인 통계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포괄적인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공영역의 학습 기관은 정규교육기관 이외에 각종 법적인 기반을 갖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범위는 Jarvis(2009)의 정의에 따르면 형식교육([그림 Ⅱ-1]의 A 부분)에 국한되며, 한숭희(2009)나 Merriam 외(2007)의 정의에 따르면 형식교육에 더하여 비형식교육 중 구조화된 학습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조사 범위의 한정은 국가가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회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향유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참여자 위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해당 기관들과 연계성을 높여 두 조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 비형식교육의 세부 유형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조사에서 평생학습의 개념과 유형 구분은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지만, 비형식교육의 세부 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2013년까지는 비형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교육활동 영역에 따라 ①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교육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인문교양교육 ④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⑤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한국교육개발원, 2014c), Eurostat의 AES

에서는 이를 ① 일반교육과정(언어, 컴퓨터, 운전, 경영, 조리, 원예, 회화 등) ② 워크숍이나 세미나 ③ 고용주가 고용한 강사를 통한 직업교육 ④ 강사나 개인 교사를 통한 유료 개인 교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 OECD PIAAC에서도 AES와 유사하게 비형식교육을 ① 이러닝이나 원격 강좌, 사이버학습을 통한 강좌 ② 업무 수행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훈련 또는 상사나 동료가 진행하는 교육 ③ 세미나 또는 워크숍 ④ 기타 강좌 또는 개인 교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OECD, 2011).

〈표 Ⅱ-3〉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비형식교육 유형 구분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교육활동영역	EU 성인교육조사 (Adult Education Survey, AES)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①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교육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인문교양교육 ④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⑤ 시민참여교육	① 일반교육과정(언어, 컴퓨터, 운전, 경영, 조리, 원예나 회화 등) ② 워크숍이나 세미나 ③ 고용주가 고용한 강사를 통한 직업교육 ④ 강사나 개인 교사를 통한 유료 개인교습	① 이러닝이나 원격 강좌, 사이버 학습을 통한 강좌 ② 업무 수행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훈련 또는 상사나 동료가 진행하는 교육 ③ 세미나 또는 워크숍 ④ 기타 강좌 또는 개인 교습

그동안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경우 AES나 PIAAC과 다소 다른 구분을 적용해 왔다. AES나 PIAAC이 평생학습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한 반면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의 차이는 비형식교육 참여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를 가져와 동일한 내용 측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응답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와 OECD PIAAC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각각 33.1%와 48.9%로 약 15%p의 차이를 보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 같은 참여율 응답결과의 차이는 두 조사의 조사과정과 비용 및 조사주체 등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비형식교육을 교육활동의 내용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응답자 입장에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비형식교육을 무형식학습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강사가 없는 세미나 및 워크숍, 우편

3) Eurostat Metadata,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trng_aes_esms.htm 2014.6.9.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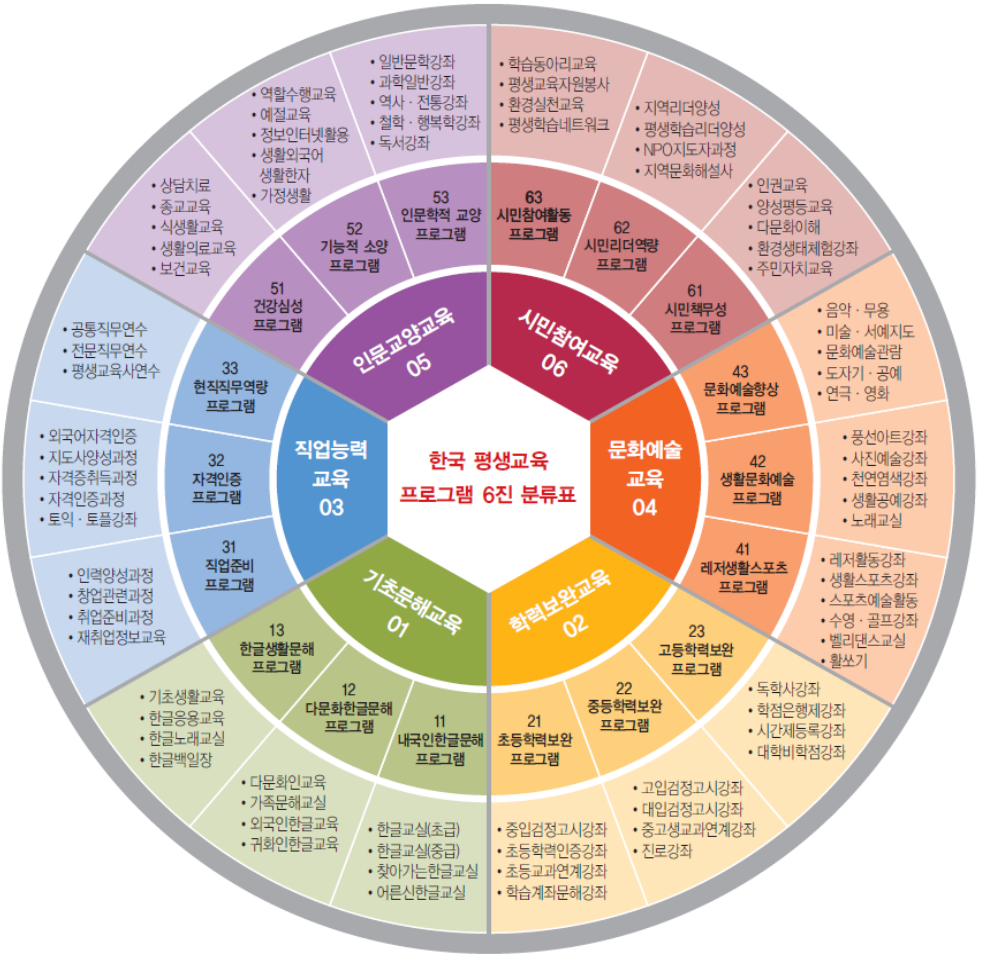
교육, 직장동료나 상사를 통한 업무 관련 지식 학습 등은 실제로 비형식교육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내용 중심으로 비형식교육을 유형화할 경우 무형식학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형식교육 참여 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형식 중심의 구분으로 참여여부를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2014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비형식교육의 참여 유형 구분을 기존의 내용 중심에서 5가지의 형태 ①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 동아리) ⑤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등으로 개선하여 조사하였다.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체제

평생교육 통계조사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분류기준을 평생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재조정해 가야 한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추진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에 6진 분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분류체제, KLPCS)표를 적용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0).

이 분류체제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현황 파악의 기본틀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6진 분류는 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직업능력교육/문화예술교육/인문교양교육/시민참여교육으로 구분되며 6진 분류 아래에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심원을 이루는 구조이다(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2014). 그런데 중분류와 소분류를 보면 일반인의 예상과는 다른 부분도 일부 눈에 띈다. 가령 평생학습 참여비율이 높은 건강 증진 활동 중에서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 아래에 있고, 중분류의 건강심성프로그램은 인문교양교육 아래에 있는데, 성인들의 참여 빈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Ⅱ-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평생교육분류체제(KLPCS)

출처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4)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분류에 계열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계열 분류는 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적용하는 학문분류에 따른 7개 대분류, 25개 중분류, 106개 소분류로 구성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대계열에 해당하는 7대분류는 인문/사회/교육/자연/공학/의학/예체능계열로 구성되고 있다(〈표 Ⅱ-4〉 참조). 그런데 이 같은 학문중심분류는 전통적 학교교육중심의 분류라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분류체계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Ⅱ-4〉 KEDI 프로그램 계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한국어	한국어	사회계열	사회·문화	정치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이론·교양
		논술·글쓰기			사회학			글씨디자인
		독서			행정학			의상디자인
		한글지도(문해)			사회복지			실내 인테리어
		수화(손언어)			결혼·가족·가정		응용예술	전통공예
	외국어	영어			신문·방송·출판			생활공예
					소방·경찰·경호			꽃예술
		일본어	교육계열	교육	교육학			사진·만화
		중국어			아동지도			영상예술
		한문			아동발달		무용·체육	무용이론·교양
		기타외국어			진로교육			전통무용
	문학	문학이론·문예창작	자연계열	과학	과학이론·교양			현대무용
		한국문학			생물·화학·물리·천문			생활무용
		동·서양문학		수학·환경·지리	수학			체육이론·교양
	인문	인문교양			통계			건강·미용
		역사			환경·지리			레저·스포츠
		철학			농업·원예			레크리에이션
		종교	공학계열	건설·건축·토목	건설·건축·토목		미술·조형	미술이론·교양
		문화		교통·운송	교통·운송			그림·회화
		풍수·사주		기계·금속	기계·금속			일러스트레이션
		심리·상담		전기·전자	전기·전자			조형
		윤리		재료·정밀	재료·정밀			서예·서화
		여성		컴퓨터·통신	컴퓨터기초		공연예술	연극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이론			운영체제			마술
		경영정보			OA		음악	음악이론·교양
		마케팅			인터넷			대중음악
		전략·국제경영			멀티미디어			종교음악
		조직관리			통신			국악·민요
		생산관리			프로그래밍			성악
		금융재무			데이터베이스			전통악기
		회계·세무	의약계열	의료·보건	의료			서양악기
		부동산			보건		생활교양	다도
		관광·호텔			한방			게임
		취업·창업		간호·치료	간호			제과제빵
		경제			응용치료			생활요리
	법률	법학						식생활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46)

평생교육통계조사에는 계열별 분류와 함께 주제별 분류를 병행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표 Ⅱ-5〉 참조). 이 때 주제별 분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분류체제 6대 분류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하위분류에서는 국가평생교육분류체제 18개 중분류와 일치하지 않아 통계분류의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분류체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통일성은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표 Ⅱ-5〉 KEDI 프로그램 주제별 분류

주제구분	구분	내용
학력보완	지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예	검정고시, 보습 및 입시관련 프로그램, 학점은행 프로그램, 시간제등록 강좌 등
성인기초/문자해득	지침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학력보완과 관련된 교과과정 프로그램은 제외)
	일반적 하위분류	문자해득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프로그램, 문해학습계좌프로그램
	예	한글교실, 문해교실, 이주여성 문해교육,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다문화교실, 기초생활을 위한 산수교실, 문해자를 위한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직업능력향상	지침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직업준비프로그램, 자격인증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
	예	인력양성과정,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외국어자격인증과정, 지도자과정, 자격증취득과정(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토익·토플과정, OA과정(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한글 등), CAD, JAVA, 프로그래밍과정, 공무원대비과정, 직무연수, 직무수행관련과정, 평생교육사연수 등
인문교양	지침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하고 교양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취득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일반적 하위분류	건강심성프로그램, 기능적 소양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
	예	문학, 철학, 역사, 어문학관련(생활외국어 등), 예절교육, 보건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풍수지리, 가족역할수행교육, 부모교육, 생활 요리,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교육, 성교육, 유아교육프로그램(유치원교육과정(7차)의 사회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건강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주제구분	구분	내용
문화예술	지침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취미, 여가활동,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예	미술, 음악, 무용, 건강, 스포츠, 여행,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직장인을 위한 취미요리, 예쁜 글쓰기, 유아교육프로그램(유치원교육과정(7차)의 표현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요가교실 등
시민참여	지침	현대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정신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예	공동체의식교육, 소비자의식교육, 시민의식교육, 지역리더양성, 인권교육, 주민자치교육, 환경교육, 정치교육, 자원봉사교육, 선거부패방지교육, 양성평등과정 등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48-49)

2. 국내의 평생교육 실태 관련 선행연구

가. 평생교육기관 실태 연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평생교육기관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가에 있다. 이 분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에서는 주로 설립주체별로 기관을 분류하였고,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상의 시설 분류체계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분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는 ①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②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④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⑤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⑥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⑦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⑧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된다(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해온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평생교육시설(유·초·중등·대학(원)부설, 원격

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과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 분류 관련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준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 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관점이 달라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변종임 외, 2013).

최돈민(1999)은 "평생교육 요구분석"연구에서 1990년대 평생교육기관의 특성과 성격,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의 평생교육기관은 다수가 직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된 교육 대상은 학생과 청소년층이었으며, 주로 수강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은 신문광고, 지역정보 소식지, 잡지 등 인쇄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기관을 홍보하였고, 주로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직원들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경제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비영리기관과 시·군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자는 감소하였으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변종임 외(2013)의 "평생교육 요구분석 및 EBS 평생교육 전략 연구"에서는 국내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평생교육통계자료에 기반을 두어 기관 유형, 프로그램 유형, 지역, 학습자 등을 연계 분석하였다. 전체 평생교육기관 수는 3,768개이고 이 중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수는 178,971개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26.9%로 나타났다. 전체 학습자중 77.6%가 원격형태 평생교육에 등록하고 있었고, 교·강사 수에서는 전체 71,676명 중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이 2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기관 수와 학습자 수 측면에서는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프로그램 수와 교·강사 측면에서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모든 평생교육기관은 설립 주체가 법인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 형태 측면에서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이 위탁보다는 직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체 기

관 중 서울에 위치한 기관이 35.9%로,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54.8%의 평생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현황은 직업능력향상 영역의 프로그램이 32.9%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 문화예술이 31.8%, 학력보완이 20.2%, 인문교양이 14.6% 순이었다. 시민참여교육은 전체 프로그램 중 0.1%만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 유형에 따라 전혀 제공하지 않기도 하여 향후 보강되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다. 생애단계별 학습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63.9%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가 16.0%, 생애 통합이 9.5%, 청소년이 8.8%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평생교육기관 실태 관련 연구들은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의 포괄적인 평생교육기관 실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표준화된 조사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평생학습 참여 실태 연구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돈민 외(2005)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경험, 참여 동기 및 목적, 참여 프로그램 내용, 참여 비용부담, 참여 장소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박태준 외(2005)의 "평생학습의 참여실태와 수요분석"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향후 평생학습 참여 계획,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 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구분인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 구분을 적용하지만 용어의 의미상 혼동을 고려하여 체계적(형식적, 비형식적 학습을 포괄), 비체계적(무형식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생학습 참여율과 참여 목적, 목적 달성 여부, 만족도, 지식활용도, 비용부담, 정보 취득 경로, 교육기관, 학습 방식, 참여 일수, 과정수, 투입시간, 투입비용 등을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밖에 평생학습 문제점 및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운실 외(2005)의 "평생교육 참여 실

태 분석 연구"에서는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참여 실태, 참여 요구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교육참여율은 27%로 낮은 편이나 참여경험자의 93.7%가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자기계발, 직업능력향상, 여가활용 등을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인식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생애주기보다는 학력이나 성별이 평생교육참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중기 고졸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 전기 고졸 미만 집단과 성인 중기 고졸 미만 집단은 평생교육참여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종임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12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남성, 고령자, 저학력 집단, 저소득 집단, 경제활동 인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 성인의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은 33.1%로 형식교육의 참여율인 3.5%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로 참여율은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이 15.7%,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4.1%, 인문교양교육이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은 0.1%, 시민참여교육이 1.1%로 다른 영역들보다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은 고령층과 저소득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학력수준 및 가구소득과 반비례하였다. 한편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력 및 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농어촌 및 중소도시보다 서울 및 광역시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교육 기회 제공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비형식교육이 형식교육보다 참여율은 높으나, 참여의 지속성 및 고정성은 형식교육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비형식교육의 참여 시간을 개인 특성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연령층과 비경제 활동 집단뿐만 아니라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5~34세 집단의 참여 시간이 길게 나타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집단과 달성해야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집단의 요구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참여율과 참여활동 및 프로그램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3. 외국의 평생교육통계 조사

가.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4)]

이 조사는 1994-1998년에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를 시작으로 2003-2008년에 추진된 성인 기초학습능력 조사(ALL)를 이어받아 진행된 성인 대상의 역량 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로서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 조사는 OECD 주관으로 총 24개국이 참여했고, 추가로 9개국이 조사에 참여하여 각국의 성인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요 지표로 개발하여 2014년도 OECD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에 수록되고 있다. 이 조사 프로젝트는 각국의 인적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인 능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양적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IAAC의 조사내용은 전통적으로 성인의 기초능력으로 강조되어 온 언어능력, 수리능력과 함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개인이 스킬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함께 조사한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자신의 역량이 직장에서 필요한 수준과 상응하는지 여부, 그 밖에 역량의 사회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배경, 교육 및 학습 관련 변인, 고용상태, 근무경력 및 직무특성, 사회 참여 및 건강, 비인지적 역량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경험 및 현재 학습활동 참여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 하에 국내 조사 및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맡아 진행하며 실제조사는 통계청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4) OECD PIAAC 홈페이지(http://www.oecd.org/site/piaac/publications.htm 2014.7.28.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에 진행된 준비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총 7년(2007~2013년)에 걸쳐 새로운 문항의 개발 및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구축, 문항의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0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본 조사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6~65세의 모든 사람(교도소, 병원, 요양원, 군대병영 거주자 제외)으로, 참여 국가별로 5,00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한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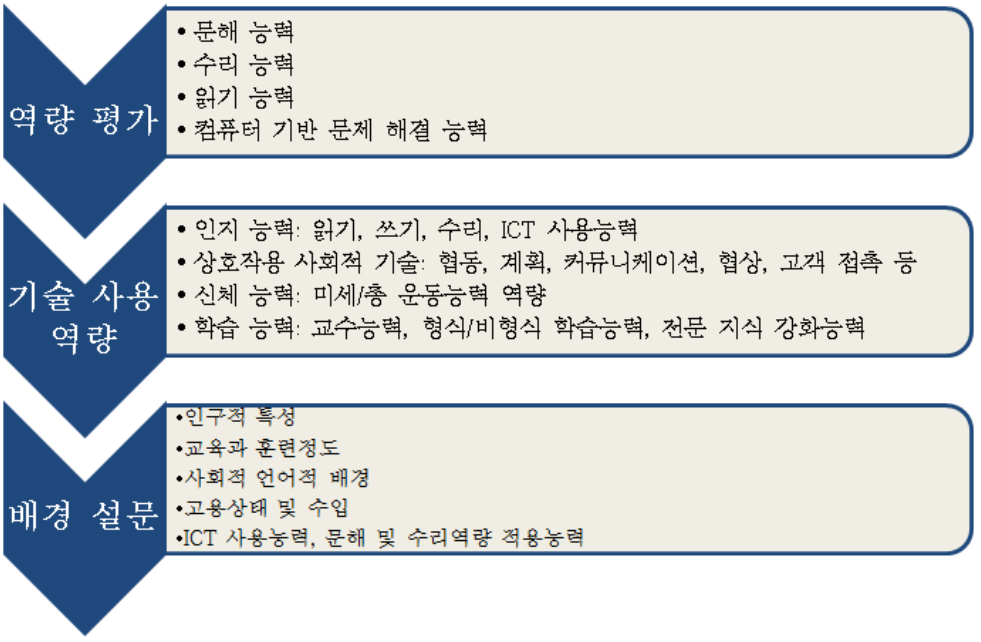
배경 설문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에게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 내용을 조사원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량 평가는 배경 설문이 끝난 뒤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컴퓨터 평가와 서면 평가 중 한 가지를 응답자가 수행한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조사 항목은 크게 역량평가와 기술사용 역량, 배경 설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역량평가(Direct assessment)는 총 4가지 핵심역량을 평가하는데, 전통적인 기초능력으로 강조되어온 언어능력, 수리능력, 읽기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이 포함된다.

둘째, 기술사용 역량(Module on skills use)은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측정(job-requirements approach)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정보활용 및 소통 능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셋째, 배경 설문(Background Questionnaire)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는데, 응답자의 교육 경험 및 현재 학습활동 참여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관련 정보도 수집된다[5].

5) OECD PIAAC 홈페이지(http://www.oecd.org/site/piaac/publications.htm 2014.7.28.인출)



[그림 Ⅱ-4] PIAAC 조사의 주요 항목

출처 : OECD PIAAC 홈페이지
(http://www.oecd.org/site/piaac/mainelementsofthesurveyofadultskills.htm 2014.7.28. 인출)

나. EU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 AES)[6)]

이 조사는 EUROSTAT(유럽연합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평생학습통계로 EU차원에서 평생학습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6월에 최종 개발되었다. AES는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성인교육조사(AES)는 EU회원국가 및 EU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만 25~64세 사이의 노동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전을 조사기간으로 한다. 조사는 면대면(face-to-face) 인터뷰로 진행되며, 평생학습이 지니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배경정보, 자기보고 방식의 컴퓨터와 언어기술, 문화 및 사회활동 참여, 일반 교육 및 학습 참여, 학습 활동 특성 등 학습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초 변

6) EUROSTAT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adult_education_survey 2014.7.28. 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2007 AES)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9개국에서 실시되었으며, 2007년 이후 AES는 유럽 국가들의 의무 조사로 지정되었다. 2차 조사(2011 AES)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3차 조사는 201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5년 주기 조사). 1차 조사에는 총 29개 참가국 중 26개국[7]의 183,000명이 조사되었으며, 2차 조사(2011 AES)에는 총 30개국[8]의 225,000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는 국제표준교육분류(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와 국제표준직업분류(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가 적용되며, 유럽공동체 경제활동 통계분류(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가 적용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평생학습이 지니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배경정보, 자기보고 방식의 컴퓨터와 언어기술, 문화 및 사회활동 참여, 일반 교육 및 학습 참여, 학습 활동 특성 등 학습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초 변인들이 포함된다[9].

조사내용의 전체적인 틀은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로 크게 구성되며, 평생교육 관련 활동경험, 직업 관련 활동경험, 학습참여 경험, 가족정보, 개인정보, 교육/훈련참여, 교육참여 방해요인, 비형식교육, 학습가능성에 대한 정보 접근, ICT 활용, 언어구사, 문화적 참여, 사회적 참여, 학습태도에 대해 조사한다.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다[10].

-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참여경험
- 훈련 참여에 대한 방해요인
- 교육 분야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참여경험
- 비형식교육 관련 직업경험 공유

7)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키프로스,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8)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세르비아. 터키는 2012년에 2011 AES에 참가하였으나 조사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9) EUROSTAT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adult_education_survey 2014.7.28. 인출)

10) EUROSTAT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SDDS/en/trng_aes_esms.htm 2014.7.28. 인출)

·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시간의 양
·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대한 학습비용 및 고용주의 자금지원
· 해당 국가 인구의 언어와 ICT 능력에 대한 척도
· 해당 국가 인구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에 대한 척도

이 조사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을 폭넓게 측정하며, 성인들의 형식·비형식교육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을 측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 주요 국가의 성인·평생교육조사

1) 미국의 가계교육조사(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s : NHES)[11]

이 조사는 미국 교육부와 교육연구소(IES)가 국가교육통계센터(NCES)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교육적 경향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1991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 내 취학 전 연령부터 취학 연령, 성인기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의 학습 경험에 대한 기술적인 묘사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인교육, 평생학습 조사와 더불어 학교 방과전/후 프로그램과 교육과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유아교육 및 학교준비 정도, 도서관 이용, 부모 및 가족의 교육 참여 정도 등을 조사한다. 이밖에도 성인문해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 NAAL)를 통해 16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문해력을 조사한다.

조사내용과 관련된 주요 경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91년 이후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회차에 따라 조사되는 내용을 달리 구성한다.

11) 미국 가계교육조사 홈페이지(https://nces.ed.gov/nhes 2014.7.28.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표 Ⅱ-6〉 미국 가계교육조사 조사연도별 조사내용

조사	조사 연도
성인 교육	1991, 1995, 1999, 2001, 2003, 2005
방과 전/후 프로그램 참여도	1999, 2001, 2005
유아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1991, 1995, 1999, 2001, 2005
부모와 가족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1996, 1999, 2003, 2007
사회 참여도	1996, 1999
가계 도서관 사용 정도	1996
학교 준비정도	1993, 1999, 2007
학교 안전 및 규율	1993

출처 : 미국 가계교육조사 홈페이지(http://nces.ed.gov/nhes/index.asp 2014년 7월 28일 인출)

조사대상은 무선 표집으로 선정된 미국 내 거주하는 가계 구성원이며. 2차에 걸쳐 조사지가 가정으로 발송된다. 1차 조사는 예비 조사로 가계 교육 경험정도를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가계를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 후 활동과 성인교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방법은 2007년 이전까지 우편조사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전화조사로 전환되었다.

조사항목은 유아교육, 아동의 학교 준비도(유아교육에 포함),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후 활동,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성인교육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가계 수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Ⅱ-7〉 미국 가계교육조사의 세부 문항

구분	세부 구분	질문 구성
유아교육	아동의 형식 무형식 돌봄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친척의 돌봄(relative care) 친척 이외의 돌봄(non-relative care) 센터에서의 돌봄(center-based care) 헤드 스타드 프로그램(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programs)
	돌봄의 특징	아동에 대한 부모 외 양육시간 아동 수 / 양육자 수
	아동의 학교 준비도	아동의 가계 내 문해활동 학교 적응도 유아교육기관 경험

구분	세부 구분	질문 구성
학령기 아동교육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후 활동	학교 혹은 센터 기반 프로그램 친척들과의 만남 친척 외 사람들과의 만남 방과 후 활동 참여 자기 돌봄(self-care)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숙제에 대한 참여도 가족 참여를 위한 학교 활동 가족들의 학교 활동, 행사 참여 가족들의 학교 외 활동에 참여
	기타	학교 선택 /홈스쿨링 아동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학령기 장애 아동
성인교육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기초기술 교육 자격증 교육(학위증, 수료증 등) 수습 교육 직업 관련 교육 자기개발 교육 직장에서의 무형식 학습 교육	교과목 기간 비용 장소 재정 후원여부 고용주의 지원
기타	도서관 사용	공공 도서관의 근접성 자료 대여 정도 학교 과제를 위한 도서관 사용정도 도서관 내 아동 활동 참석 취미활동을 위한 도서관 이용 수료 목적(course-taking)의 도서관 이용 구직을 위한 도서관 이용
	학교 안전 및 규율	학교 학습 환경 학교 규율 정책 학교 안정성 학교 폭력 음주 및 마약 사용 가능성 음주 및 마약 관련 교육 동료 간 규범행동

출처 : 미국 가계교육조사 홈페이지(http://nces.ed.gov/nhes/index.asp 재구성, 2014.7.28. 인출)

이 조사에서 성인교육 측면에서의 특징은 학위과정 및 직업학교, 직무능력 관련 교육, 개인적 취미로서의 학습, 그 외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인문해조사(NAAL)를 통해 16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문해력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기간, 교과목, 비용 등)를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2) 핀란드의 성인평생교육통계조사

가) 성인교육기관조사(Adult Educ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urvey)[12)]

핀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성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와 성인학습자에 대한 조사체제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조사는 교육기관 대상의 조사로, 핀란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EUROSTAT의 성인교육조사(AES)와 더불어 핀란드의 성인교육통계조사를 대표하며, 1993년부터 1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연구소를 포함한 일반교육기관, 폴리테크닉(polytechinics), 대학과 하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에 대한 조사로, 일반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핀란드 통계청에서, 대학기관에 대해서는 핀란드 교육부 그리고 하계대학에 대해서는 핀란드 하계대학협회(Summer Universities in Finland)에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핀란드 교육체제 안에 있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기관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성인교육의 규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의 수, 교육을 제공하는 교·강사들의 수업시간 등이다.

나)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13)]

이 조사는 현재는 EU 차원의 성인교육조사이지만 핀란드 국민의 성인교육 참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성인교육 참여자들의 의지, 필요, 장애요소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핀란드통계청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핀란드 통계청에 등록된 국민 중에서 연령이나 거주형태(가족과 함께 사는 인구, 독거 인구), 고용정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켜 표집하고 있다. 표본크기는 18~64세의 핀란드에 거주하는 성인 중 약 6,000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EU 조사의 연령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조사는 면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로 진행된다.

12)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tilastokeskus.fi/meta/til/oaiop_en.html 2014. 7.28.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13)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tilastokeskus.fi/meta/til/aku_en.html 2014.7.28.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주요 조사 내용에는 EU 조사와 같이 외국어 능력, IT 능력, 성인교육 학습 내용, 학습 범위, 개인이 지각한 성인교육의 영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인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필요, 희망사항, 장애요소 조사, 조사 참가자의 나이, 성별,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지방자치 소속) 등도 조사된다.

3) 독일의 평생교육조사[14)]

독일의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도 성인 학습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기관조사로 구분된다. 학습자 대상의 조사는 독일의 연방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asearch : BMBF)의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교육보고시스템(Berichtssystem Weiterbildung : BSW)이 1979~2003년, 2007년 3년을 주기로 수행해 왔는데, 조사 대상은 19~64세의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일 성인교육협회(German Adult Education Association)와 독일 성인교육학회(German Institute for Adult Education : DIE)에서 매년 평생교육기관을 조사하는 성인교육기관통계(Statistics on Adult Education Centres)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직원,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을 조사한다. 이밖에도 연방교육부직업교육통계(Statistics on Vocational Education) 등의 평생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통계 조사가 있다.

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가. 선행 연구의 시사점

평생학습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성인 및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성인평생교육에 대한 통계자료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와 성인학습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조사는 조사목적과 대상의 성격

14) 독일 성인교육기관통계 홈페이지(http://www.die-bonn.de/weiterbildung/statistik/weiterbildungsstatistik_links.aspx?lang=en 2014.7.28.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에 맞는 조사항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관조사에서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교·강사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개인실태조사에서는 참여율, 참여 동기, 역량개발,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 학습비의 지원주체 등이 포함되어 정부의 평생교육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뢰롭고 현실적합성 있는 평생교육통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평생학습의 정의, 영역, 유형 등에 대한 명료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개념 범주에 대한 논쟁과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 조사마다 상이한 정의, 범위, 영역,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임언, 2006). 이로 인해 동일한 지표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조사 결과 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에서 관련 조사 간 내용적인 통일성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성인의 전 생애 기간에 걸친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통합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실태조사들을 살펴보면, 성인기(대체로 64세 이전)와 노인기(대체로 60세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마다 조사기준, 평생학습 영역 구분,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 등이 상이하여 세대 간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확한 세대별 평생학습실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조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표집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실태조사들은 전국 수준의 대표성을 가질 뿐 지역 수준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하지만 표본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향후 지역별 평생학습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평생교육 실태가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태조사들이 지역수준 대표성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있어 평생학습 조사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무형식학습의 경우 통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조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도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개선 방향

1) 평생교육 기관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조사의 포괄성이라는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평생교육체제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조사에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빠짐없이 망라할 뿐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 정한 기관들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공공직업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대표적인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기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30개 내외의 유형과 26개 내외의 법적 근거를 가지는 여러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합리적 유형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유관 기관 간 연계 확대 및 통합조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교육부 관할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관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교가능한 조사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통합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통합조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MOU 확대 등을 통한 연계 조사 환경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조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4. 9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는 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 점차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사에 포함된 조사항목의 개선 및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평생교

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뿐 아니라 다른 법에 근거한 주요 기관에까지 공통의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을 가진 기관들에 적합한 조사항목의 개발 및 기존 항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교육부, 여성가족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정부 부서들에서 작성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통계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조사항목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작업에는 공통 기준과 용어의 정의,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된다.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신뢰로운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유형 분류에 따른 조사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영역에 속하는 무형식학습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형식교육은 Jarvis의 분류 중에서 광의의 형식교육 중심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형식학습은 그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므로 양적 조사 영역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EU와 OECD에서도 그 동안 무형식학습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측정의 어려움으로 실제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무형식학습의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승인통계 조사에 있어서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통계조사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비형식교육에는 구조화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비형식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전반적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조사자들 간은 물론 피조사자들에게도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조사범위는 구조화된 비형식교육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실태조사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일부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는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향후 이론적, 방법론적 탐색을 통해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계자료의 활용성 증대 측면에서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통계)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평생교육기관 참여에 대한 조사로 한정할 경우, 그 동안 별도로 이루어진 평생교육통계조사와 개인실태조사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즉, 기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와 개인 수준의 참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구 표집에 의한 실태조사 이외에도 기관 단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성과를 개인 학습자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위계적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Ⅲ.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실태 및 개선 방안

1.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2. 평생교육 통계·조사(기관) 현황
3. 평생교육 기관통계의 주요 문제점
4. 평생교육 기관통계 개선 방안

Ⅲ.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실태 및 개선 방안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통계조사가 국내 유일한 승인통계이다.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약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과 타 법령에 기반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수조사로서 평생교육(기관)통계조사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및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가.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기관의 현황 및 법적 근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사업을 위탁받아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 현황, 사무직원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또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와 고등교육통계조사로부터 관련 현황들을 연계 조사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평생교육기관의 분류는 크게 준형식 교육 기관과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구분한다. 준형식 교육은 “개방형 학교교육 영역으로 비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

식교육"으로, "고정된 캠퍼스를 가지지 않거나 파트타임에 의존하는 비전통형태의 학력인증시스템 교육"로 정의하여 "정규 국가교육체제 상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형식교육과 차별을 두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이에 해당 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초·중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특수대학원) 등을 들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반면 비형식 교육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 과정이 포함되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부설형(유·초·중등 및 대학부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부설, 시민단체부설), 독립형(지식·인력개발형태, 원격형태), 전담형(평생학습관) 등으로 구분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표 Ⅲ-1〉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및 근거 법령

구분	근거법령	유형	비고
비형식	평생교육법	학교부설(유·초·중등 학교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	독서실	

구분	근거법령	유형	비고
준형식	초·중등교육법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초·중·고)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법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전공대학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평생교육법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초·중·고)	
		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
	고등교육법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산업대학	계속교육
		기술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특수대학원	계속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관은 〈표 Ⅲ-1〉에서 보는 것처럼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교육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위 법령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기관들이 일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3년 12월에 신설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다. 이는 정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것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하였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조사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관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제에 속하지만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공개강좌나 시간제등록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도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Ⅲ-2〉 평생교육통계조사 분류 체제상 누락된 평생교육기관

구분	근거법령	유형	비고
비형식	평생교육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013년 12월 신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주민자치센터	관습화 (교육, 연수 등에 대한 법령은 부재)
준형식	고등교육법	공개강좌	학제에 속하지만 속성상 "계속교육"에 해당
		시간제등록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나. 평생교육통계조사 밖의 평생교육기관 및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약 26개 법령에 근거하여 30개 내외 기관 유형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은 법령 또는 설치 목적상 "교육" 또는 "연수"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학습계좌제와 연동된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의 유형과 법령은 [별첨 2-1]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는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법에 기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에 조사가 국한되어 있어 시·군·구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공개강좌처럼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근간을 둔 경우에도 해당 법령이 사회교육 또는 계속교육 등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기반에 있어서도 현행 통계는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는 타 법령(가령,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사업법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 추산 130여 만명에 이르는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약 20% 정도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일부 법령에만 한정되어 있는 조사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다양한 법적 근거와 기관 유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설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들로는 주민자치센터(연인원 130만명 추정), 각종 복지관, 각종 도서관(법적 설치 목적이 "평생교육의 증진" 명기), 공공직업훈련시설(고용보험 및 직업능력 향상과 직결), 문화예술교육시설(국민문화진흥과 연결), 박물관 및 미술관(대표적 교양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통계·조사(기관) 현황

가.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15)]

1) 조사 목적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국가교육인적자원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에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한 각종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평생교육통계 조사 프로세스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2006년 시범조사를 통해서 조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매년 정기조사로 진행되었고, 2014년 8차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15) 평생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를 토대로 작성함.

〈표 Ⅲ-3〉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진행 경과

연도	진행경과
2000년	- 국가평생교육센터 설립
2000-2001년	- 정부, 학계 등에서 평생교육통계 조사 필요성 제기
2002-2003년	-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평생교육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방안 연구 -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DB 구축 방안 연구 - 평생교육 지표 개발 연구
2004-2005년	- 평생교육통계 조사 프로세스 개발 및 구체화
2006년	- 평생교육통계 시범조사 실시
2007-2013년	- 평생교육통계 정기조사 1회차~7회차 시행
2014년	- 평생교육통계 8회차 조사 진행 중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4) 재구성.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는 전국의 평생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및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사무직원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평생교육 기본통계DB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신뢰로운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자 맞춤형 통계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는 평생교육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개정) 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로부터,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의 통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연계하여 조사하고 있다. 직접 조사 대상인 평생교육기관은 조사기준일인 5월 1일 당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써, 휴원, 폐원, 연락두절인 평생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의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에 따라 평생교육통계 조사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와 통계조사표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조사, 관련 기관의 DB연계조사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표 Ⅲ-4〉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 대상		관할(청)	조사방법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유초중등)[1]	교육청	온라인
	원격 형태 평생교육기관[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1]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교육기관[1]		
	학원	KEDI	DB이관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내 평생교육기관 현황[1]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오프라인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1]	지역평생 교육정보센터	온라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1]		
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1]	대학	온라인
	평생교육사 양성현황[1] [2]		
교육통계연구센터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KEDI	DB이관
	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점은행관련 자료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자료연계
	독학사 지원자/응시자/합격자수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6) 재구성

주 : 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 외는 간접 조사함.

2) 평생교육법 개정(2013.5월)으로 2014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DB 연계조사로 진행됨.

3) 조사 항목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의 조사항목은 공통 조사항목과 일부기관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조사항목은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으로써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현황이 있고, 일부기관 조사항목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하는 항목으로써,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대학부설 추가조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현황이 있다. 조사항목의 조사기준일은 대부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나, 일부 항목은 조사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조사기준일 당시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항목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연간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항목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연간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항목으로는 프로그램 및 학습자,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재정현황,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이 있다.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일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별 조사 기준(2014년 기준)

구 분		조사기준일
공통 조사항목	기관개황	2014. 5. 1
	프로그램 및 학습자	2013. 5. 2 ~ 2014. 5. 1
	교·강사, 사무직원	2014. 5. 1
일부기관 조사항목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2013. 1. 1 ~ 2013. 12. 31
	대학부설 추가조사 - 위탁교육비 현황, 재정현황	2014. 5. 1 2013년 회계년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2013. 1. 1 ~ 2013. 12. 31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6) 재구성.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의 조사항목은 통계치로 조사되는 항목과 개별 조사항목이 있다. 개별 조사항목은 프로그램 및 학습자와 교·강사, 사무직원 현황이다. 프로그램 및 학습자는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운영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는데,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프로그램과 1개월 이상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한다. 즉,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프로그램은 총 운영 프로그램 수를 조사하고,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교·강사 현황은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강사를 조사하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교·강사는 총 인원을 조사하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교·강사는 개별 조사한다. 사무직원 현황은 모든 사무직원을 개별 조사한다.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표 Ⅲ-6〉와 같다.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에서는 기관유형 분류와 프로그램 분류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유형 분류는 평생교육법을 기준으로 8개 대분류 및 20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대분류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초·중등 학교부설, 대학(원)부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시민사회단체 부설, 원격형태, 평생학습관 등으로 구분한다. 소분류에서는 초·중등 학교부설과 대학(원) 부설에 대하여 학교급 또는 학교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장 부설은 유통업체문화센터와 산업체 부설로

나누고 있다(〈표 Ⅲ-7〉 참조).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계열 분류와 주제 분류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프로그램의 계열분류는 프로그램 운영과정 기준으로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표 Ⅱ-4〉 참조), 프로그램 주제 분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그림 Ⅱ-3] 참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에 따라 6대 대분류(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로 구분하고 있다(〈표 Ⅱ-5〉 참조)

〈표 Ⅲ-6〉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공통 조사 항목	기관 개황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기관현황	기관장명, 기관설립일, 기관유형 대(소)분류, 설립구분, 본/분교구분, 정보공개동의여부
		기관위치	주소, 대표전화번호, 내선번호/기타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상위기관명
		설립현황	국적, 설립주체, 법인명, 운영형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여부, 평생학습관지정여부, 입시관련시설여부,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건물소유형태, 학점은행제운영기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프로그램 총수(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프로그램별 현황(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교육기간, 강의방식, 교육시수, 연간교육횟수, 모집정원, 수강인원(남/여), 수강료(최고/최저),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학점인정여부, 프로그램 개발형태, 프로그램운영형태)
	교·강사		교·강사총수(전임강사/시간강사: 남/여, 연령대별: 남/여), 근무기간 1년 이상 교·강사(성명,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사무직원		사무직원명, 대표자여부,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생교육사자격증 여부 및 자격증 종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입사년월
일부 기관 조사 항목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 대학(원) 본부에서 조사]**		
	주요 실습 기관유형		3대 평생교육전담기구,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학습도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훈련·연수원 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기관형교육기관, 평생교육관련 사업수행 학교,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시·도		17개 시·도
	발급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1급, 2급 3급), 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재발급된 현황(2급, 3급)

구분		세부 조사 내용
	[대학부설 추가조사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조사]	
	위탁교육비 현황	지원기관형태(해당없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회사/민간단체/기타), 지원금액
	재정현황	수입총액, 지출총액
	시설현황	강의실총수(개), 시설면적
	인력현황	원장(명), 사무직원(명), 대학소속강사(명), 외부강사(명)
	[금빛평생교육봉사단 - 평생학습관에서 조사]	
	봉사자현황	봉사자수, 봉사활동인원(등록인원/활동인원/비활동인원), 성별/연령별구성현황, 경력별(교직/공직/전문직/기타)구성현황
	주요봉사활동	활동영역(학습지도분야/일반평생교육분야/기타) 인원, 활동기관(도서관/복지관/노인교육기관/여성교육기관/학교/주민자치센터/시민사회단체/기타) 인원
	재정현황	총예산현황(전년도 결산-세입(천원)/당해연도 예산-세입(천원)), 봉사활동비 지급현황(시간기준, 1일기준 지급액/월 최대 활동일수/평균지급액/교통비지급여부)
	기타	연수 및 교육시간현황, 동아리운영현황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11-12) 재구성

〈표 Ⅲ-7〉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기관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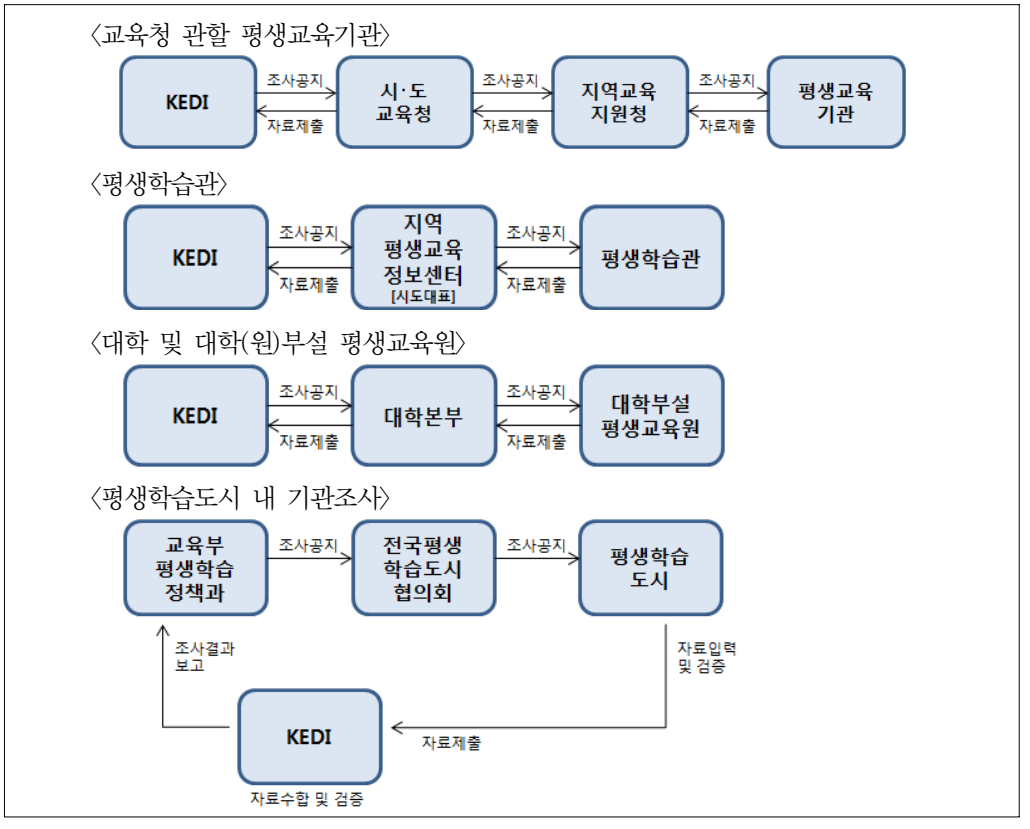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초·중등 학교부설	①유치원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초·중학교 ⑥중·고등학교
대학(원)부설	①4년제일반대학 ②대학원대학 ③산업대학 ④교육대학 ⑤전문대학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 ⑦기술대학 ⑧각종학교 ⑨원격대학 ⑩사내대학 ⑪기능대학 ⑫전공대학
사업장 부설	①유통업체문화센터 ②산업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
지식·인력개발형태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원격형태	-
평생학습관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6) 재구성.

4) 조사체계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의 조사체계는 평생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한 교육청 체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통한 평생학습관 체계, 대학본부를 통한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체계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체계로 분류된다.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의 조사절차는 [그림 Ⅲ-1]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통계 조사공지를 하면 관할 상위기관을 거쳐 평생교육기관에 조사 공문을 전달되고, 평생교육기관은 온라인으로 조사결과를 제출하면, 관할 상위기관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다.



[그림 Ⅲ-1]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체계별 조사흐름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3b:6-8) 재구성

나. 시·도별 평생교육 통계조사 현황

1) 조사 주체

평생교육기관 관련 통계 조사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이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전체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표 Ⅲ-8〉 참조). 이 중 4개 시도에서는 기관 조사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기관 조사와 개인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의 이용실태와 희망 강좌를 조사하고 있다.

〈표 Ⅲ-8〉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 현황 및 주체

	최근 조사연도		조사주체
	기관조사	개인실태	
서울	2014	-	서울시
부산	2014	2014(예정)	부산평생교육진흥원
대구	2012	2012, 2014	대구시(대구경북연구원)
인천	2013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	2013	2013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	2014(2012년 조사기반)	2014(예정)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	2014(예정)	2014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세종	-	-	-
경기	2012, 2014	2013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강원	2014	-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충북	2013	2014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	2014(예정)	201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전북	-	2013(사회조사)	전라북도(전북발전연구원)
전남	2014	2014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전남발전연구원 산하)
경북	2013	2013	경북평생교육진흥원
경남	2013	2014(예정) (KEDI 조사 표본 추가)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제주	2011	2014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표 Ⅲ-9〉에서와 같이 시·도 평생교육통계조사는 대체로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에서는

시·도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2014년에 설립되어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체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된 시·도에서는 평생교육통계를 비롯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담하지만 서울이나 대구처럼 시·도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 Ⅲ-9〉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2014. 8. 기준)

기관명 (설립연도) (홈페이지)	운영주체	조직	인력	추진과제/주요업무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2009) (http://jile.or.kr)	제주도	사무국, 정책기획팀, 교육지원팀	9	평생교육 전략 수립 및 연구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생교육 홍보 및 관련 통계조사 인적자원개발 업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 교육 정보은행제/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1) (http://www.ble.or.kr)	부산인적 자원개발원	정책연구센터, 사업운영센터, 대외협력팀, 전산담당	9	평생교육 정책 연구 평생교육 역량 강화 평생교육 사업 지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관리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1) (http://www.dile.or.kr)	대전광역시	전략사업본부, 정책기획부, 연구조사부, 행정지원부, 대학시민대학(22) (학사운영팀, 지원관리팀)	42	대전시민대학 배달강좌 연합교양대학 인문 고전 읽기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운영 사업 정보제공 사업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2011) (http://www.cblll.or.kr)	충북발전 연구원	전략기획팀, 역량강화팀	5	평생교육 기반 구축 평생직업 역량 강화 평생학습문화 조성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2) (http://www.uill.or.kr)	울산발전 연구원	평생교육팀	7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 사업 운영 지역 평생교육 진흥 컨설팅 지원 평생교육 상담 및 통계 조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사업

기관명 (설립연도) (홈페이지)	운영주체	조직	인력	추진과제/주요업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2) (http://gill.or.kr)	경기도	평생학습전략실, 정책연구실, 창조학교운영실, 대외사업기획팀, 행정지원실	26	평생교육 허브기능 수행 균형 발전적인 평생교육 추진 및 학습 생태계 조성 고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012) (http://damoa.chungnam.net)	충청남도	정책기획팀, 교육연수팀, 정보관리팀	12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추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학습역량의 성과 환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2) (http://www.damoa.incheon.kr)	인천광역시	총무팀, 평생교육팀	10	평생교육 기반 구축 평생학습 역량 강화 평생학습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대구 평생교육진흥원 (2012) (http://www.dle.or.kr)	대구경북 연구원	정책연구팀, 사업운영팀	5	대구평생교육 기반 구축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3) (http://www.gie.kr)	광주발전 연구원	기획운영팀, 기관지원팀	9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교육종사자 전문성 제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2013) (http://www.gile.or.kr)	대구대학교	정책연구팀, 교육정보팀	7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및 평생교육 통계 조사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역량 강화 평생교육 관련 정보 홍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014) (http://www.si.re.kr/intro413)	서울연구원	기획조정국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5	평생교육 종합 계획 수립 평생교육 정책 기획, 연구, 조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2014) (http://www.rig.re.kr/hb/main/sub02_05_06)	강원발전 연구원	1개팀	5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 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출처 : 각 홈페이지(2013.8.1.기준)

주) – 전남평생교육진흥원 : 별도 홈페이지 없음(전남발전연구원 산하)
– 전북, 세종 : 평생교육진흥원 없음
– 경남 : 경남도청, 경남발전연구원 공동 조사
– 서울 : 시청–진흥원 역할 분담 사례
– 대구, 서울 : 통계조사는 시청에서 주관함

〈표 Ⅲ-10〉 시·도청별 평생교육 전담 조직 현황

기관명 (홈페이지)	조직	인력	업무내용
서을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평생교육 기획팀	7	평생교육종합발전 및 시행계획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민관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관련업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및 평가 평생교육관련 조례정비 모두의 학교 조성,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구 간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모델 개발 학습계좌제, 강사은행제 시스템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팀	3	서울영어마을 사업 운영 서울영어마을 운영관련 각종 통계자료 관리 사회배려계층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 지원팀	3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뉴딜일자리) 운영 서울시 평생교육실태 DB 및 각종통계관리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추진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조사 및 활성화 추진 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전문대학 직업전문 평생학습 서울평생학습축제 지원 업무 평생학습포털 및 모바일 시스템 운영 등
	시민대학 운영팀	5	은평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민대학 운영 지원(시민청,권역별,은평)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회의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시민대학 DB관리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 등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Default_2014.aspx)	교육협력 담당관실 평생교육 담당	6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사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등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표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독서진흥정책수립 추진 및 독서경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홈페이지)	조직	인력	업무내용
	정책기획관 통계 (통계작성)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경제총조사 대구통계연보 및 계간 대구통계 발간 주민등록인구 통계 및 인구·주택 총조사 구·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농림어업총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광역도시권 통계연보 발간 한국도시연감 작성 및 외국인 등록업무 관리 인구동태 신고 및 인구이동 현황 시직원 업무일지 제작 기타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및 자료관리
경상남도청 (http://www.gsnd.net/jsp/main/main.jsp)	(전담조직 없음) 기획조정실 정보통계 담당관 통계담당	6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통계의 공표협의 자체통계의 분석·공포 지역통계 개발 및 통계지식의 보급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경제 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공표 경상남도 기본통계 작성·공표 경상남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작성·공표 경상남도 시군단위지역내 총생산(GDP) 작성·공표 경상남도 사업체조사 작성·공표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작성·공표

출처 : 각 홈페이지(2013.8.1.기준)

2) 조사 대상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시·도 자체조사에서는 평생교육법 외에도 법령상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김진화 외, 2011)에 대상 기관을 분류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 이외에도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시설, 여성 관련 기관 미 시설, 주민자치기관, 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평생교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평생교육진흥원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 ③시·군·구 평생학습관 ④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⑤자치단체(광역, 기초) ⑥교육청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①학교의 평생교육 ②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③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①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①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산업관련시설	①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사이버학습관련시설	①원격평생교육시설
기타법령	도서관	①공공도서관 ②학교도서관 ③전문도서관
	박물관·미술관	①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②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③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④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단체	①지역문화복지시설 ②문화보급·전수시설 ③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관	①종합사회복지관 ②노인여가복지시설 ③장애인 복지·평생교육·지원시설 ④아동복지시설 ⑤자활자립시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①청소년 시설 ②청소년 단체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시설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 ③산업교육기관 ④공무원연수원 ⑤기업체연수원
	여성관련 기관 및 시설	①여성인력개발센터 ②여성관련시설
	주민자치기관	①주민자치센터 ②시·군·구민회관
	다문화관련시설 및 단체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①비영리민간단체 ②비영리사(재)단법인 ③시민단체
	기타	①국방부 ②보건소 ③상담 시설 및 기관 ④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⑤그 외 관련 시설 및 기관

출처 : 김진화 외(2011)

모든 시·도에서는 위와 같은 평생교육기관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시·도에 따라서는 몇몇 기관 유형에 대해서는 소분류 내지 세분류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부록 2-2]는 각 시·도별 조사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가령, 부산의 경우 2013년까지는 중분류 수준에서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하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소분류를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Ⅲ-12〉는 부산의 2014년 평생교육기관 기관 분류표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Ⅲ-12〉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유형 소분류(2014년 조사)

구분	중분류	소분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 시·군·구평생학습관 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4. 자치단체(광역, 기초)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5. 학교의 평생교육 6.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8.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10.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1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1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산업관련시설	13.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사이버학습관련시설	14. 원격평생교육시설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15. 공공도서관 16. 학교도서관 17. 전문도서관
	박물관·미술관	18.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19.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21.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22. 지역문화복지시설 23. 문화보급·전수시설 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관	25. 종합사회복지관 26. 노인여가복지시설 27. 장애인 복지·평생교육·지원시설 28. 아동복지시설 29. 지활자립시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30. 청소년 시설 31. 청소년 단체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시설	3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3.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 34. 산업교육기관 35. 공무원연수원 36. 기업체연수원
	여성관련 기관 및 시설	37. 여성인력개발센터 38. 여성관련시설
	주민자치기관	39. 주민자치센터 40. 시·군·구민화관
	다문화관련시설 및 단체	4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2. 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43. 비영리민간단체 44. 비영리사(재)단 법인 45. 시민단체
	기타	46. 국방부 47. 보건소 48. 상담 시설 및 기관 49.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50. 연구기관 51. 그 외 관련 시설 및 기관

출처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4)

3) 조사 내용

시·도 평생교육통계조사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다르게 평생교육 현황조사 외에 평생교육 수요조사를 함께 수행한다. 시·도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현황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처럼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 현황, 사무직원 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요조사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등 평생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 단위를 살펴보면, 시·도 평생교육 현황조사는 대부분 통계수치로 조사하는데, 부산, 인천, 제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와 같이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을 개인 단위로 조사한다. 구체적인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2014년) : 기관개황, 프로그램현황, 교·강사현황, 사무직원현황, 학습동아리 현황의 5개 영역으로 현황을 조사함. 인력현황은 총 인원을 조사하였고, 학습동아리 현황은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 개별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였음.

○ 부산(2014년,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조사) : 기관개황,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 인력현황, 물적현황, 부산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인식조사 등 5개 영역으로 조사함.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와 더불어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 공급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 부산(2011년, 부산지역 평생교육시설 현황조사) : 연간교육시수 8시간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현황,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등을 위주로 조사하고,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단만 조사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구(2013년, 대구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 기관현황,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현황의 3개 영역으로 현황을 통계수치로 조사함.

○ 광주(2013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프로그램 운영현황, 인적자원 현황, 기관 운영현황, 교육성과, 정책적 요구사항의 4개 영역으로 설문조사하였음. 조사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교육성과, 정책상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보다는 운영 실태조사

의 성격이 강한 조사임.

○ 인천(2013년, 인천 평생교육 통계 실태조사) :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13년에 개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진흥원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견조사가 실시됨.

○ 강원(2014년, 2014 강원도 평생교육 현황 조사) : 기관현황, 인력현황,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 요구조사의 4개 영역으로 현황조사와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함.

○ 충청북도(2013년,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 : 충청북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사로서, 기관정보, 강좌정보, 담당자 인식 등 3개 영역으로 현황조사가 실시됨.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관 및 강좌정보 수집조사와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및 평생교육 사업의 연계·협력 등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가 함께 실시됨.

○ 전남(2014년, 전남지역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 평생교육 관련 요구사항,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사항의 5개 영역으로 설문조사 하였음. 조사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조사와 더불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2012년) : 기관현황, 자체 강사 보유 현황, 학습동아리 활동현황, 강좌 정보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임.

〈표 Ⅲ-13〉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내용

시·도	구분	주요 조사내용
서울[1] (2014)	기관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분류/ 기관주소/ 설립현황/ 건물소유형태/ 시설현황/ 기관예산(자체, 외부지원)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분류/ 주제구분/ 강의방식/ 교수방법/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 교육횟수/ 모집정원/ 수강인원/ 수강료/ 참여강사수/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개발형태
	교·강사 현황	성별 강사 수
	사무직원 현황	성별 사무직원 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별 사무직원 수
	학습동아리 현황	학습동아리 개별 현황(동아리명, 운영기간, 홈페이지유무, 소식기관, 주모임장소, 모임주기, 소속자치구, 회원수, 활동분야, 활동내역, 지원유무 및 기관, 지원 종류 등)

시·도	구분	주요 조사내용
부산[2] (2014)	기관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분류(대,중,소분류)/ 기관정향성/ 설립현황/ 운영형태/ 평생교육전담부서 및 평생교육 전담직원 유무/ 기관 속성/ 건물소유형태/ 기관 전체예산/ 평생교육예산/ 기관위치/ 조직구성현황(사무직원수, 교·강사 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 인원 수)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명/ 주제중분류 구분/ 강의방식/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교육횟수/ 수강인원/ 수강료 유,무료/ 재정지원여부/ 프로그램 총 운영경비/ 수요대상/ 프로그램 개발형태 및 운영형태/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유무/ 참여 강사수/ 강의시간당 강사료
	인력 현황	평생교육 인원 수/ 인력별 현황(이름,성별, 대표자 여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 평생교육현장 경력, 고용형태)/ 연수교육체제/ 평생교육사 역할
	물적현황	시설현황/ 기관운영관리 평가방법
	인식조사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3] (2011)	기관 현황	기본현황/ 설립현황/ 건물소유형태/ 교육시설현황/ 조직구성현황(사무직원수, 교·강사 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 인원 수)/ 기관 예산(자체, 외부지원)
	프로그램 현황	주제중분류별(18개)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프로그램 학습자 수	수요대상자별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성별 교·강사 수(연령별, 학력별, 고용형태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별)
	사무직원 수	성별 사무직원 수(연령별, 재직기간 급간별, 고용형태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별)
대구[4] (2013)	기관 현황	지역구분/ 기관 유형/ 기관 개요/ 설립현황/ 강의실 수/ 수용인원/ 학습동아리 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중분류별 운영 프로그램 수 및 참여 학습자수
	운영 인력	전임 교사 및 강사 수/ 외부 교사 및 강사 수/ 총 교사 및 강사 수/ 근무 직원수(1년이상, 1년미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광주[5] (2013)	기관 현황	기관 유형/ 소재지/ 설립년월/ 최근1년간 교육현황(교육인원, 교육과정수)/ 주요 수강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주요 프로그램의 성격/ 프로그램 개발형태/ 프로그램 개선주기/ 교육방법/ 프로그램 개선 전 학습자 요구분석/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시기/ 평가시기
	인적자원	직원 및 강사 채용방법/ 실무자 연수현황/ 강사 교육현황/ 강사선정기준/ 시간당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용현황/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및 역할
	기관 운영현황	직원수(정규직/비정규직)/ 평생교육사 수/ 자원봉사자 수/ 운영재원/ 기관 홍보방법/ 교육시설형태 및 용도별 시설 보유 유무 등
	교육성과	프로그램 이수율/ 교육성과 측정 영역
	정책상 요구사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분야/ 재정지원 방법

시·도	구분	주요 조사내용
인천[6] (2013)	기관 개황	기관현황/ 기관유형 분류/ 기관위치/ 설립현황/ 기관 속성/ 건물소유형태/ 상위기관명
	프로그램 및 학습자	개별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명/ 프로그램계열분류/주제대분류(6개)/ 강의방식/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교육횟수/ 총모집정원/ 총수강인원/ 수강료(유,무료)/ 재정지원/ 수요대상/ 학점인정 여부/ 프로그램개발형태 및 운영형태
	교·강사	1년미만 및 1년이상 근무강사 연령별, 성별, 근무기간별 인원수/ 교·강사 개별 현황(이름,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사무직원	사무직원 개별 현황(이름,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고용형태, 입사년월, 대표자 여부)
	기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지, 주요 기능 및 역할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희망 분야
대전[7] (2013)	기관 정보	기관유형/ 소재지/ 기관속성
	강좌 정보	평생교육 강좌수/ 주제소분류(21개)/ 수강료/ 수강인원/ 교육주기/ 교육시간/ 운영시간대/ 운영기관(기관유형)
강원[8] (2014)	기관 현황	기관기본현황/ 설립현황/ 기관유형분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기관재정현황(기관 총예산, 평생교육관련 예산, 외부예산)/ 기관 속성
	인력 현황	사무직원현황(총인원수, 평생교육전담부서 및 전담인력현황,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및 역할) 교·강사현황(기관소속 강사현황, 외부초빙강사현황, 시간당 평균 강사료(일반,특별강사)
	프로그램 현황	주제중분류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수요대상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수/ 수강료 유무별 프로그램 수 및 평균 수강료/ 프로그램 개발형태별 프로그램 수/ 운영기간 급간별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요구조사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충북[9] (2013)	기관정보	기관수/ 설립주체 및 운영형태/ 운영상태/ 운영요일/ 담당인력/ 담당자 연수방법/ 평생교육사 배치여부 및 역할/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시설현황/ 기관속성/ 예산현황
	강좌정보	강좌수/ 교육방법/ 수강료/ 수강인원/ 수강대상/ 수강생 선정방법/ 강사료/ 강사 선정방법/ 강사 자격요건/ 교육주기/ 교육시간/ 강좌 개발방식/ 강좌 홍보방법/ 강좌 평가방법/ 강좌 속성/ 강좌중분류
	담당자 인식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 중점지원 대상/ 평생교육 사업의 연계·협력 등

시·도	구분	주요 조사내용
전남[10] (2014)	기관개황	소재지/ 기관명/ 설립일/ 기관유형/ 기관개요/ 설립현황/ 강의실수/ 수용인원/ 학습동아리 수/ 운영재원/ 교육시설 보유형태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주요교육영역(6대 주제분류별)/ 교육대상/ 강의방식/ 주제중분류(18개)별 프로그램운영수, 참여자수, 평균 운영기간/ 프로그램 개발방식/ 프로그램 홍보방법/ 프로그램 평가방법
	교·강사 및 사무직원 현황	전임 및 비전임 교·강사수/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수(1년미만, 1년이상)/ (정규직, 비정규직)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평생교육사 역할
	평생교육 관련 요구사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평생교육종사자 역량강화 사항	실무자 연수현황/ 교·강사 교육현황
경남[11] (2013)	기관 개요	기관 현황/ 기관 예산/ 설립현황/ 운영형태/ 건물소유형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여부/ 사무직원 개별 현황(대표자 여부, 성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고용형태, 재직기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프로그램 총괄(모집 총수, 폐강 총수, 운영프로그램 총수(1개월미만, 1개월이상),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총수, 수용대상별 프로그램 운영예산)/ 1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별 현황(프로그램명, 주제구분, 강의방식,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교육횟수, 모집정원, 수강인원, 수강료,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학점인정여부, 개발형태, 운영형태)/ 학습자 수(주제구분별, 수요대상별)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가장 우선 실시해야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
제주[12] (2012)	기관 개황	기관현황/ 기관위치/ 설립현황/ 운영형태 및 상태/ 기관속성/ 업무담당자 정보(이름/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연락정보)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프로그램 분류(대중분류)/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방법/ 교육시간/ 강좌기간/ 교육장소/ 강사명/ 수강료/ 수강료 지원 여부/ 학점인정여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여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여부
	보유 교·강사 현황	이름/ 성별/ 최종학력/ 근무경력기간/ 담당강좌
	학습동아리 현황	활동 여부/ 지원여부

※ 출처 : 1) 서울특별시청(2014. 6).
2)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4).
3)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1).
4) 대구광역시(2013).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3).
6)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3).
7)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3).
8)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4).
9)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3).
10)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11) 경상남도발전연구원(2013).
12) 제주특별자치도(2012).

4) 프로그램 유형 분류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 분류는 학문 계열에 따른 분류와 주제별 분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학문 계열 분류보다는 주제별 분류를 활용하고 있다. 주제별 분류는 국가평생교육원의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의 6개 대분류와 18개 중분류를 사용하였다(〈표 Ⅲ-14〉 참조). 다만, 서울과 인천지역은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처럼 학문 계열 분류와 주제별 분류의 6대 대영역 분류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다.

〈표 Ⅲ-14〉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표(KLPCS)

대분류		중분류	
6대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보완교육 (학력조건과 인증)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6대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 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건강심성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출처 : 김진희(2010:22-23) 재구성

부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분류를 기초로 기관에 대한 정향성도 조사한다. 기관 정향성은 평생교육기관의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기관에서 개설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 중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표 Ⅲ-15〉는 평생교육 정향성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15〉 평생교육기관 정향성에 따른 유형분류

유형	분류기준	세부내용
기초문해교육	명칭	○○한글교실, ○○문해교육기관 등
	목적	언어적 기초와 활용, 초등학력인증
	대상	비문해자와 문해학습자, 학습계좌 신청 문해학습자
학력보완교육	목적	학력조건 인증·보완관련 교육
직업능력교육	명칭	○○직업훈련기관, ○○연수원, ○○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등
	목적	직업준비와 자격취득 및 자격인증, 직무역량개발
문화예술교육	명칭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기관, ○○박물관, ○○미술관
	목적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내용	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교육,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 및 전문스포츠관련 교육
	대상	일반시민
인문교양교육	명칭	○○학부모교육센터, ○○외국어교육원 등
	목적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내용	건강, 심성함양, 인문교육, 생활외국어, 역할수행교육,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교육
시민참여교육	명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시민단체 등
	목적	사회적인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대상	일반 시민

출처 : 김진화 외(2011).

5) 조사 방법

가) 조사 방식 및 체계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달리 오프라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시·도에 따라 위탁조사, 자체조사, 자체조사 및 연계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위탁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2011년 조사) 등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 조사가 이루어진 시·도에서 수행하였던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조사 대행 기관의 조사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조사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도에서는 자체 행정조직을 활용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도 조사 담당자의 업무 가중이 문제가 된다. 대체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통계 담당 인력은 2~4명 정도에 불과하여 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조사 대상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과 MOU를 체결하여 조사기준 및 조사지침,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자체조사와 더불어 201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의 MOU를 통해 이미 평생교육법상 명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를 연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청,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청,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한국교육개발원과 MOU를 체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조사기준과 지침에 준하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현황은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시·도 간 MOU 체결 현황(2014.8.기준)

MOU기관	체결시기 (년/월)	업무 협력 현황
서울시청	2012.10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조사결과 공유 및 DB구축('12년~) -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 및 공유), 서울시(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 및 공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2.10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12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공동 조사('13년) - '13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추출시 경기지역 표본 추가 추출하여 동일한 면접 가구 조사 실시
대구시청	2013.05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13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공동 조사('14년) - '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추출시 대구지역 표본 추가 추출하여 동일한 면접 가구 조사 실시(통계청 승인 내역에 포함)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3.10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13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경북평생교육진흥원	2013.11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13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부산평생교육진흥원	2014.0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 예정('14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경남도청	2014.04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공동 조사('14년) - '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추출시 경남지역 표본 추가 추출하여 동일한 면접 가구 조사 실시(통계청 승인 내역 포함)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4.07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결과 공유 예정('14년) -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대상 확정(중복조사 기관 제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이러한 연계조사는 시·도 자체조사 결과와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 간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대상 기관에 따라 조사기준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어 여타의 법적 기반을 갖는 기관과는 조사항목이 조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국적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사 항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조사시스템 구축, 담당 인력 및 예산의 확대 등 조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조사 기준일 및 조사 기간

각 시·도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기준일과 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시·도마다 기준일과 조사기간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다수의 시·도에서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조사기준일이 매년 4월 1일,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등처럼 매년 12월 30일이 기준일인 경우다. 그 외에도 강원의 경우에는 8월 1일이 기준일이며 부산(2011년의 경우)은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6월 30일이 기준일이 경우도 있다. 조사기간도 대체로 KEDI 평생교육기관조사와 마찬가지로 5월 2일에서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12월 30일이 조사기준일은 경우에는 12월이나 그 다음 해 1월이 조사기간인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전남처럼 6~7월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산처럼 8월 1일에서 31일이 조사기간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도별 평생교육기관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여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전국 수준의 통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기준일과 조사 기간에 대한 통일도 필요하다.

〈표 Ⅲ-17〉 시·도별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및 조사방식

시·도 (조사연도)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조사방식
서울 (2012~2014)	(평생교육법 기관) 5. 1.	5. 2.~5.31.	KEDI 평생교육통계 연계
	(학교형태) 4. 1.	-	KEDI 교육기본통계 연계
	(기타 법령 기관) 5. 1.	5. 2.~5.31.	자체조사
부산(2011)	(학교운영) 6.30.	-	교육청조사
	(평생교육기관) 3.31.	5.25.~7.25.(1차) 5.13.~9. 9.(2차)	자체조사
부산(2014)	5. 1.	8. 1.~8.31.	자체(웹기반)
대구(2012)	전년도(2012)	2013.5.13.~9. 9.	위탁
인천(2013)	(평생교육법 기관) 5. 1.	5. 2.~5.31.	KEDI 평생교육통계 연계
	(학교형태) 4. 1.	-	KEDI 교육기본통계 연계
	(기타 법령 기관) 5. 1.	5. 2.~5.31.	위탁(유니온리서치)
광주	기관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 기관, 학습자 요구조사(2013)		자체조사(전화, 설문지) or 시 조사
대전	2013	1.1.~12.31	자체조사(다모아정보망 DB분석, 면대면)
울산	기관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		자체조사

시·도 (조사연도)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조사방식
세종	–	–	–
경기	(평생교육법 기관) 5. 1.	5. 2.~5.31.	KEDI 평생교육통계 연계
	(학교형태) 4. 1.	–	KEDI 교육기본통계 연계
	(기타 법령 기관) 12.31.	–	자체(목록만 수집)
강원	(평생교육법 기관) 5. 1.	5. 2.~5.31.	KEDI 평생교육통계 연계
	(학교형태) 4. 1.	–	KEDI 교육기본통계 연계
	(기타 법령 기관) 8. 1.	–	위탁(서던포스트)
충북	2013	2013.11.1.~12.10	자체조사
충남	기관조사 2014 첫 실시 예정 도민대상 요구조사(2012~2014)		자체조사
전북	–	–	–
전남	5.31.	2014.6.~7. 2014.8.1.~8.8.(추가조사)	자체조사(우편, 팩스, 메일)
경북(2013)	12.30.	11.18.~12.16.	직접(교육청, 대학) + 위탁
경남(2013)	12.30.	12. 3.~12.16.	위탁(한국리서치)
제주	12.30.	2011.12.27.~2012.1.31	자체조사(면접조사)

3. 평생교육 기관통계의 주요 문제점

여기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평생교육기관통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대상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평생교육기관통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평생교육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FGI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조사대상 차원

평생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통계 조사의 범위이다. 적절한 조사내용을 정확히 조사하더라도 조사대상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통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조사를 보면,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유·초·

중등학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등 4,243개의 기관이 조사되고 있다(교육통계DB).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되고 있지 않다. 평생교육법령 상의 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한숭희 외, 2011).

조사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먼저 평생교육법을 대상으로 한 기관과 일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 대상 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범위까지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생교육통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간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대상이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은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이 평생교육조사의 전수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한숭희 외, 2011). 평생교육법에 의한 등록기관 이외의 평생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평생교육법 외 약 26개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부록 2-1] 참고). 이들 기관을 평생교육통계에서 어떻게 포괄하고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대상의 범위가 시·도마다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시·도 자체 조사는 대체로 평생교육법 등록기관을 넘어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2-2] 참고). 그러나 시·도마다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가 다르다보니 시·도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현황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간 비교는 불가능하여, 힘들여 조사한 결과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KEDI의 평생교육통계조사나 시·도 자체조사의 대상이 일치하는 유형의 경우에도 조사기관의 수가 달라 조사된 통계결과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는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경북과 대구의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경북의 자체조사에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만 조사하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는 달리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두 조사가 유형별로 모두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기관 수를 보

면 경북의 조사기관 수와 KEDI의 조사기관 수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18〉 참조).

대구의 자체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대구 자체조사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과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두 조사가 유형별로 모두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기관 수를 보면 경북의 자체조사처럼 대구의 조사기관 수와 KEDI의 조사기관 수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19〉 참조).

〈표 Ⅲ-18〉 2013년 경북자체조사와 KEDI 조사의 조사대상기관 비교

구분		경북조사	KEDI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학교부설	40	37
	학교형태[1]	7	1
	사내대학	1	2
	원격대학[2]	6	2(6*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23	19
	시민단체 부설	33	27
	언론기관 부설	40	39
	지식·인력개발 관련	14	13
	평생학습관	29	24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26	-
	박물관·미술관	8	-
	청소년 시설	18	-
	여성관련 시설	13	-
	복지관	255	-
	문화원	22	-
	직업훈련시설	14	-
	기타 자치구 관련시설	172	-

주) 조사기준이 경북-KEDI 간 상이. 통계치의 불일치.
1) 학교형태는 초·중등교육 형태 한정하고, 특수대학원은 제외함.
2) 원격대학과 원격형태 미구분.

〈표 Ⅲ-19〉 2013년 대구자체조사와 KEDI 조사의 조사대상기관 비교

구분		대구조사	KEDI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운영 학교	1	-
	학교부설	26	0
	학교형태[1]	17	17
	사내대학	1	5
	원격대학[2]	37	0
	사업장 부설	24	0(34*원격형태)
	시민단체 부설	42	21
	언론기관 부설	31	33
	지식·인력개발 관련	40	25
	평생학습관	20	31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32	-
	박물관·미술관	3	-
	청소년 시설	19	-
	여성관련 시설	12	-
	복지관	183	-
	문화원	12	-
	직업훈련시설	246	-
	기타 자치구 관련시설	262	-

주) 조사기준이 대구-KEDI 간 상이. 통계치의 불일치. 평생교육 운영 학교를 제외하고는 유형 구분이 경북과 동일.
1) 학교형태는 초·중등교육 형태 한정하고, 특수대학원은 제외함.
2) 원격대학과 원격형태 미구분.

이렇듯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은 KEDI 조사와 시·도 자체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중복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기관에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하는 조사중복의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도 자체조사와 KEDI 조사대상간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한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을 조사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들 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 조사내용 차원

평생교육통계는 기관개황, 교육프로그램, 학습자, 교·강사, 예산 및 시설, 기타 평생교육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개황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작성자, 기관현황, 기관위치, 설립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은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분류, 주제구분, 강의방식, 교육기간, 교육시수, 연간 교육횟수, 모집정원, 수강인원, 수강료, 재정지원여부, 수요대상, 학점인정여부, 프로그램 개발형태, 프로그램 운영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강사와 관련된 항목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 수 등이, 사무직원과 관련된 항목은 이름, 성별, 대표자 여부,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생교육사자격증, 고용형태, 입사년월 등이 조사되고 있다.

1) 현황 자료 위주의 통계 조사

평생교육통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황중심의 데이터라는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통계는 주로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수, 교·강사 수 등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이나 교육의 과정, 성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베이 조사인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표집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학습자,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2) 지표·지수화의 어려움

다음으로 대표성의 측면에서, 평생교육통계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량적 정보제공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평생교육통계는 현황 중심의 조사 항목의 비중이 높아서 이를 지표 및 지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표 및 지수화 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활용은 물론 국내 지역간 비교도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활용성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3) 현실적합성의 부족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생기는 현실적합성 부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통계조사가 새로운 조사수요에 민감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조사항목을 조사시스템에 반영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조사 인프라와도 관련이 있다(강영혜, 2012).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조사요구가 가장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예산관련 데이터와 산출관련 데이터이다. 이들 내용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를 실제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경직된 조사시스템이 원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통계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조사에 반영하는 일련의 체제를 정비해서 평생교육통계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통계조사 항목의 과다 및 활용도 부족

다음으로 평생교육통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통계의 활용성과 관련되어 있다. 평생교육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과의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 평생교육통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사항목이 많으며, 조사항목 자체도 너무 많다는 점이었다. 기관개황에 대한 조사항목들이 너무 많고, 활용도도 떨어지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입력을 꺼려하는 민감한 조사항목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교·강사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한숭희 외, 2011).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는 학교의 교사와 달리 이직이 심하여 자료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자료의 신뢰성 및 포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한숭희 외, 2011). 조사에 부담을 주고 있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의심이 되는 교·강사 관련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일부 조사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삭제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자체조사 항목과 비교했을 때에도 KEDI 조사항목이 많은 편으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KEDI 조사항목이 시·도 자체조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조사대상기관에서는 중복조사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

고 있고, 조사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들을 정리하고 이를 일원화 또는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분류체계의 문제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통계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분류의 적절성과 평생교육통계 조사(KEDI와 시·도 자체 조사) 간 불일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들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 중 문제가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프로그램 주제 분류이다. 현재 프로그램 주제 분류는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6개의 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제 분류 영역간의 다중성 및 불확실성(개념경계가 불명확)으로 인해 입력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간 개념적 불명확성이 가장 빈번한 영역으로 두 영역간의 구분이 무의할 정도이다(한숭희 외, 2011). 각 영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여 조사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영역으로 입력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분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에서 활용되는 분류의 불일치도 문제이다. 부산, 경북, 대구, 강원, 전남, 제주, 충북 지역의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주제 분류를 6대 분류가 아닌 18개 중분류나 소분류를 활용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분류를 기초로 정향성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기도 한다.

다. 조사방법 및 체계 차원

조사방법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평생교육통계조사가 너무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사전조사, 자료입력, 조사기간(조사기준일)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대상 기관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의 어려움

평생교육통계 조사방법 측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는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기관과 조사를 담당해 줄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기관 운영 여부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데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상 폐원이나 휴원 등 변동이 잦아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2) 자료 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

조사담당자에게 자료입력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교·강사에 대한 개개인의 자료를 모두 입력해야 하고, 지난 1년간 운영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도 모두 입력해야 하는 등 조사 담당자들이 입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기관 종사자들(조사 담당자)이 조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기관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조사 담당자들은 기존의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자료입력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같은 항목을 조사하더라도 입력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파일형태로 올릴 수 있는 방식 등을 채택한다면, 조사담당자들의 입력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조사기준일의 비적합성

조사기준일에 대한 문제도 종종 제기된다.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 현황, 사무직원 현황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시기를 맞추어 조사 기준일은 5월 1일이다. 그런데 이 조사기준일에 대해 조사담당자 뿐 아니라 시·도의 정책담당자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대개의 기관들은 연 단위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습자에 대해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통계조사가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없고 새로 정보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평생교육통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서 자체

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조사를 보면, 조사기준일이 제각각이다. 평생교육통계 조사의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조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조사 담당자의 이해 부족

평생교육통계 조사에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조사담당자들의 평생교육통계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이다.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많은 조사담당자들이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통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가 명확하지 않아 통계작성 기관에서 작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 작업까지 진행되면 조사담당자들과의 마찰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평생교육을 받는 학습자도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속한 기관이 평생교육기관인지도 알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면, 국가가 평생교육을 실시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해 이해시키고 확산하는 것에는 너무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중요성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전문용어의 사용

평생교육통계 조사 방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전문용어의 많은 사용과 조사지침이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담당자들의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지침서 발간, 콜센터운영, 담당자 연수 등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 조사지침은 교육청체계용, 평생학습관체계용, 대학(원)체계용으로 분리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조사 지침서는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지침서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전문용어들이 많아 조사담당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6) 조사 구속력의 부족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구속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KEDI 조사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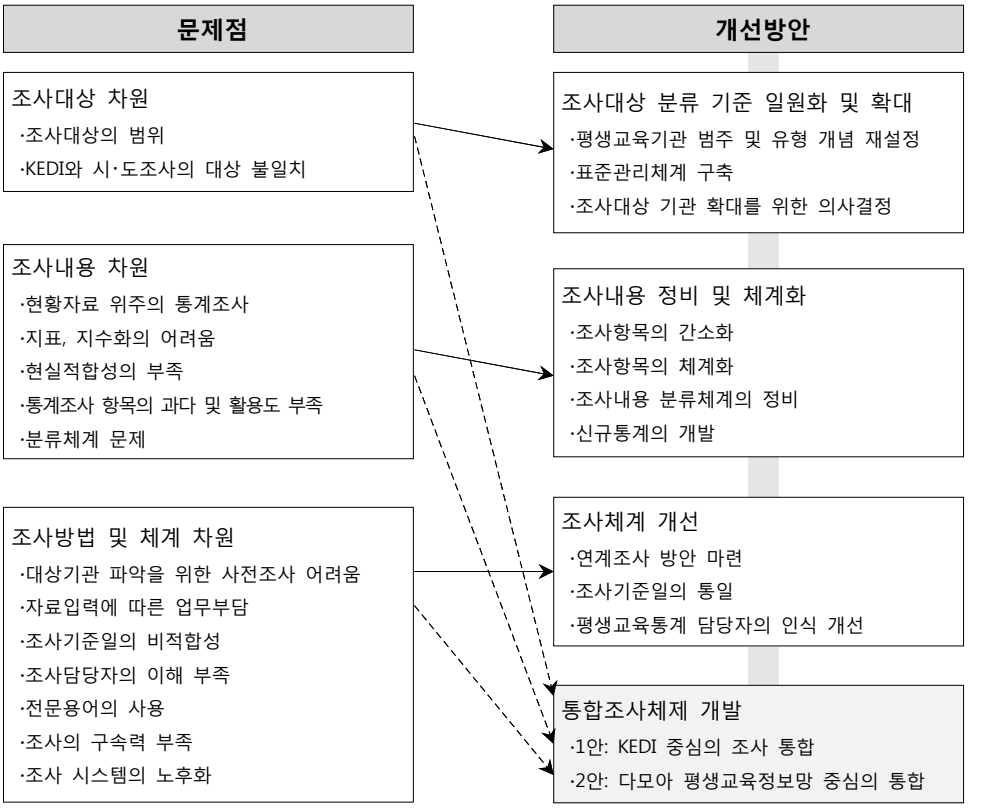
해 시·도 자체 조사의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조사 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인통계인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조사가 시·도의 자체 조사에 비해 용이한 편이지만, 조사 기관의 저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사의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시·도 자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조사내용 및 중복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조사는 현재 승인통계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 이미 KEDI에서 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승인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통합조사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7) 조사시스템의 노후화

마지막으로 조사단계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KEDI의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평생교육통계 시스템은 1대의 DB서버와 1대의 Web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기관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및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조사기간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의 수정이나 신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4. 평생교육 기관통계 개선 방안

국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외연 확대 및 통합조사체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평생교육 분야의 통계를 생산하고자 할 때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기준으로 평생교육통계의 범위 확대와 통합조사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Ⅲ-2]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조사대상 분류 기준 일원화 및 확대

국가승인통계인 평생교육통계가 평생교육법상 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KEDI와 시도 자체조사 조사대상간의 불일치가 평생교육통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고, 이는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대상 기관 확대 및 기준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범주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재설정

먼저 조사대상 기관 확대에 앞서 평생교육기관의 범주와 유형에 대한 개념적인 재설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적 범주와 유형을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교육시설을 통계 조사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숭희 외, 2011).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8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으나 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김진화 외, 2011). 이는 평생교육법과 별개로 많은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기관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이들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및 분류를 체계화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및 분류를 위해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정향성, 법상분류기준, 기관 고유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수의 평생교육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표준 관리 체계 구축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범주와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된 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 범주 및 유형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관 및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근거 법령 및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도 너무 많아 그 실체를 유형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준거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공유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KEDI와 지자체간의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조사대상을 범위를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운영기관에 대한 리스트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기준시점이 모두 달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에서 기관수집 현황 파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조사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대상 기관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조사대상을 확장하되 KEDI 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의 조사대상의 차별화하여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평생교육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기관의 범주를 확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새롭게 조사에 포함될 기관들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한숭희 외, 2011).

나. 조사내용 정비 및 체계화

평생교육통계는 조사 실시 이후 큰 변동 없이 조사항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일부 항목들이 추가되고 수정되는 등의 소규모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 구조의 변화는 없었다.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합성 부족의 문제가 결국 통계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통계의 조사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몇 가지 관점에서 평생교육통계의 조사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조사 항목의 간소화

우선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집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검토하여 필요한 항목들로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 중 행정자료나 현황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평생교육통계는 국가통계이고, 적어도 이를 지표·지수화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관심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공급-수요의 질 관리가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통계로서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표·지수화 작업

이 후속되어야 한다.

조사방식을 변경을 통해 조사항목을 간소화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평생교육기관의 조사 담당자들이 입력해야 할 항목들이 많아질수록, 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사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과 비교할 때 실제로 활용되는 통계는 매우 적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자료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조사내용이 많은 교·강사와 사무직원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사항목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들 조사항목에 대해 개인단위가 아닌 기관단위 조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추후 검토도 필요하다.

2) 조사항목의 체계화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을 체계화해야 한다. KEDI에서 조사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는 국가통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보편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시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를 보면, KEDI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들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볼 수 있는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통계로서 평생교육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통계 조사항목과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부가항목으로 조사항목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조사항목 중 매년 조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조사내용 분류체계 정비

평생교육통계 조사 내용의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관습적 구분과 분류체계가 일치될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한숭희 외, 2011).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의 논리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상황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4) 신규통계의 개발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을 간소화하되,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부응하

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 평생교육통계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이나 조사의 필요가 없는 항목들을 검토해서 이런 조사항목들을 삭제하는 한편, 통계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항목들에 대한 추가도 요구된다. 조사항목의 변화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포함하는 조사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논의된 신규조사 필요 항목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현황의 경우, 근거법령에 따른 분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학습계좌제 여부, 시설환경, 강의시설, 강의실의 규모, 강의실 개방여부(공개가능여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현황 정보,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 학습자 참여비율, 수료자 등이, 교·강사 항목은 강사의 전공분야 및 강의분야, 교·강사의 자격증 등이, 사무직원 항목에서는 전일제/시간제 여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조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총예산, 프로그램운영 총경비, 시간당 강사료 등의 항목이 추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평생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추후에 어떻게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성과로 교육 후 자격증 취득률, 계속 심화교육 참여, 취업률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해야 가능하며, 기관단위의 조사인 평생교육통계에서 참여자 개개인의 평생교육의 성과를 다양하게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의 성과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를 보완해서 조사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20〉에는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대한 개선(안)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작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는 항목을 수정하였다.

〈표 Ⅲ-20〉 KEDI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개선(안)

항목 구분	세부항목	기존	수정
기관 개황	작성자	성명, 기관정보 공개여부, 정보이력조회, 전화번호, 내선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기관현황	기관명, 기관장명, 기관설립일, 기관유형 대분류, 기관유형 소분류, 설립구분, 본/분교구분	
	기관위치	우편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내선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상위기관명	
	설립현황	국적, 설립주체, 법인명, 운영형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여부, 평생학습관 지정여부, 입시관련시설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여부, 건물소유형태, 학점은행제운영기관	법인설립일 추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기관 여부 추가 강의실 수 추가 총 수용 규모 추가 건물 외부개방 여부 추가 기관예산(자체, 외부) 추가 평생교육예산(자체, 외부) 추가
프로그램 및 학습자	프로그램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삭제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대분류→중분류→프로그램 예시까지 제시)에서 선택하도록 함
	강의방식	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교육기간	1개월 미만/1개월~24개월/ 25개월 이상/연간	시작일, 종료일 기입으로 변경
	교육시수		
	연간교육횟수		교육주기로 수정
	총모집정원		
	총수강인원	남/여	
	수강료	최고/최저	평균 수강료 기입으로 변경
	재정지원	지원없음, 국고지원, 교육청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기업지원, 기타지원	
	수요대상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통합	
	학점인정여부		
	프로그램개발형태	자체개발/위탁개발/외국도입	
	프로그램운영형태	자체운영/위탁운영/병행운영	
			평생학습계좌제 인정여부 추가

항목 구분	세부항목	기존	수정
교·강사 (1년 이상)	교·강사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연령급간으로 대체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강의분야 추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세분류 및 예시에서 선택
사무 직원	사무직원 유무		
	사무직원명		
	대표자여부	대표자/사무직원	
	성별	남/여	
	생년월일		연령급간으로 대체
	최종학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고용형태	1. 정규직 2. 비정규직	
	입사년월		

다. 조사체계 개선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사전조사의 어려움, 조사기준일의 불일치, 자료입력의 부담 등 조사방법이나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는 결국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연계조사 방안 마련

조사 전 조사 대상 기관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도에서 조사

대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한다면 평생교육통계의 사전조사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유된 조사대상 기관 목록은 KEDI와 시·도 조사의 불일치를 제거해주고, 나아가 중복기관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KEDI와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조사기준일의 통일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기준일인 5월 1일에 대한 변경 요구와 시·도 자체 조사간의 기준일 불일치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 기준일이 변경되면 지난 7년간 조사된 통계와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과 조사담당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담당자들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평생교육통계 담당자의 인식 개선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조사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조사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을 제고하고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통계로서의 평생교육통계의 위상과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조사담당자들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여 이를 조사 때 연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조사담당자들이 본 업무 때문에 모두 연수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춤 연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 통합조사체제 개발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내용 정비 및 체계화, 조사대상 분류기준 일원화 및 확대, 조사체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들 방안은 평생교육통계의 부분 부분에 대한 개선안으로 평생교육통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되었던 중복조사, 조사의 어려움, 조사대상기관의 불일치 등의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문제점들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체제(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평생교육통계와 시·도 자체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법·제도적 기반 등의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평생교육통계를 통합 조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1) 1안 : KEDI 중심의 조사 통합

평생교육통계를 통합 조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KEDI를 중심으로 조사를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KEDI 교육통계센터는 2012년 서울특별시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3년 대구광역시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올해도 부산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교육청,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맺었다(〈표 Ⅲ-16〉 참고). MOU를 통해 평생교육 현황 조사 협력 및 정보 교류, 평생교육 통계생산을 위한 수요 교류 및 공동 연구, 양 기관에서 보유한 평생교육 통계 정보 및 지식의 공동 활용, 학자, 연구원, 기술 인력의 교류를 통한 공동 사업 및 연구 활동의 교류, 평생교육 통계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조사 연구의 협력, 기타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꾀하고 있다.

이미 확산되고 있는 KEDI와 시·도간의 MOU를 기반으로 이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평생교육통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통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내용 일원화 및 표준화, 조사대상기관의 조정, 조사방법의 개선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KEDI의 평생교육통계 예산으로는 조사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조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EDI와 시·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KEDI의 조사예산과 각 시·도에 조사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분담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2) 2안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중심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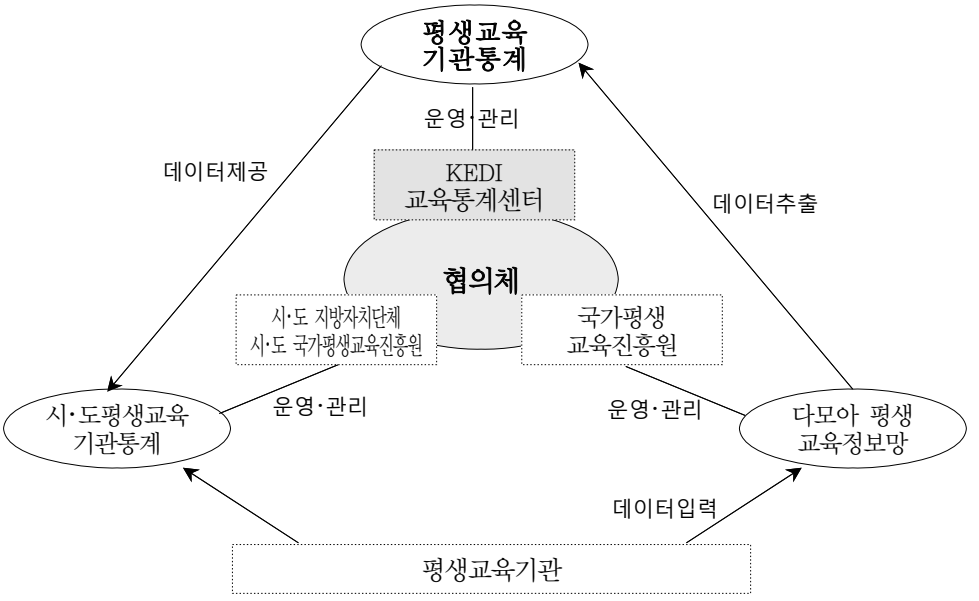
현재 KEDI와 시·도에서 각각 조사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생교육기관 통합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지역의 대학, 기업, 주민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간 교육정보가 분산되어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이다(교육부, 2014. 7).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강좌(프로그램) 정보, 기관정보, 강사정보, 학습동아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및 평생교육 관련 통계자료도 열람이 가능하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현재 모든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향후 2~3년 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이 안정화된다면, 이를 활용한 평생교육기관 조사가 가능하다. 유·초·중등교육통계가 NE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한 통합조사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접근 가능한 방안이다. 일단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몇몇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이를 통해 실제 적용 전에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통계를 조사하는 KEDI, 시·도 자체 조사를 관리·조사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표 Ⅲ-21〉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연도	선정 지방자치단체
2011년(2)	부산, 충남
2012년(3)	대전, 울산, 제주
2013년(4)	대구, 인천, 충북, 경북
2014년(3)	강원, 경남, 전남
자체구축(2)	서울, 경기
미구축(3)	광주, 세종, 전북

KEDI,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원 간의 협력체는 앞에서 언급한 평생교육통계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Ⅲ-3]에서처럼 각 기관들의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고 이들의 협의체가 평생교육통계를 총괄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KEDI는 평생교육통계 표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으로부터 데이터 추출 및 평생교육기관통계 작성, 국가수준의 평생교육통계 지표 개발 및 배포, 시도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서 추출한 원데이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수준의 평생교육기관통계의 작성·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Ⅲ-3] 다모아정보망을 활용한 통합조사체제

이 외에도 협의체를 통해 평생교육 지표개발, 평생교육통계의 조사내용 및 분류체제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조사대상기관의 조정 등을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다.

Ⅳ.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실태 및 개선 방안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현황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주요 문제점
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향
4.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Ⅳ.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실태 및 개선 방안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현황

가. 조사목적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참여양상을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2006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도구를 설계하고, 2007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조사를 수행하였다.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나 조사 목적 등에 따라 참여율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정의와 기준을 따르기로 하고, Eurostat의 AES(Adult Education Survey)매뉴얼을 기초로 조사도구를 개발·활용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표 Ⅳ-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진행 경과

연도	진행경과
2006년	- 평생학습참여 실태 및 의식조사(예비조사)
2007년	- 평생학습 개인조사체제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김현철, 한숭희), 평생학습실태 조사 연구(김창환)
2007~2013년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정기조사 진행
2014년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8차 조사 진행 중

나. 조사대상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를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여 표집 하는데, 20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 수는 약 9,600명이었다. 20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조사구 중에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 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 모집단으로 보고,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과 통합)를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기타 도 지역을 동지역 및 읍면 지역(18개)으로 행정구역별 층화작업을 수행하여 추출하였다. 즉, 2014년 조사에서는 전국 589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여 표본 가구 내 만 25세 이상 만64세 이하 성인 전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 Ⅳ-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본수	3,618	4,000	4,500	4,500	5,000	4,000	12,800	9,600

다. 조사내용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학습자의 참여실태, 학습환경, 학습활동, 사회참여 및 인식을 주요 영역으로 한다. 이들 영역에 대한 조사는 2007년 한숭희의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에서 제시한 '평생교육발전지표(LEDI :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Indicators)'를 고려하여 개인 학습자 관점인 '역량', '학습활동', '접근성'영역이 반영되었고(한국교육개발원, 2007), Eurostat AES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회·문화 참여', '학습에 대한 태도'영역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ESS(European Social Survey)에 근거하여 투입과 산출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율과 더불어 '사회 참여 및 인식'영역을 추가하여 2009년부터 조사하게 되었다.

〈표 Ⅳ-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항목 추이

대영역	중영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Ⅰ. 참여 실태	형식교육	○	○	○	○	○	○	○	○
	비형식교육	○	○	○	○	○	○	○	○
	무형식학습[1]	–	○	○	○	○	○	○	○
Ⅱ. 학습환경	장애요인	○	○	○	○	○	○	○	○
	접근성	○	○	○	○	○	○	○	○
Ⅲ. 학습활동	학습역량[2]	○	○	–	○	–	○	–	○
	학습유형[3]	○	–	○	–	○	–	○	–
	학습에 대한 태도[3]	○	–	○	–	○	–	○	–
Ⅳ. 사회참여 및 인식	사회/문화 참여[4]	○	○	–	–	–	–	–	–
	사회참여 및 인식	–	–	○	○	○	○	○	○
DQ. 배경질문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	○	○	○	○	○	○	○

주 : 1) 2008년부터 조사됨
2) 주기조사로 짝수년도에 시행됨
3) 주기조사로 홀수년도에 시행됨
4) 2009년부터 '사회적 성과'로 대체하여 조사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3c:47). 재구성

〈표 Ⅳ-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항목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Eurostat 호환	비고
Ⅰ.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A1. 참여여부	○	
		A1-1. 참여교육과정	○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	
		A2. 교육시간	○	
		A3. 참여목적	○	
		A4. 학습비 및 외부지원	○	
		A5. 교육성과	–	
	B. 비형식교육	B1. 참여여부	○	
		B2. 참여프로그램수	○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Eurostat 호환	비고
		B3. 참여프로그램유형	○	
		B3. 참여교육기관유형	○	
		B3. 직업관련목적 여부	○	
		B3. 연간참여시간	○	
		B3. 개인부담 학습비	○	
		B3.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	
		B3.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	
		B3. 주요수강 시간대	–	
		B3. 프로그램 만족도	–	
		B4. 교육성과	–	
	C. 무형식 학습	C1. 참여여부	○	
		C1. 교육성과	–	
		C2. 참여 정도	–	
Ⅱ. 학습 환경	D. 장애요인	D1.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	
		D1-1.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	
		D1-2. 향후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	
		D1-3. 참여 원했던 교육 프로그램	○	
		D1-4. 참여 장애요인	○	
	E. 접근성	E1. 정보접근여부	○	
		E1-1. 정보획득여부	○	
		E1-1-1. 정보획득방법	○	
		E1-1-2. 정보 미획득 사유	○	
Ⅲ. 학습활동	F. 학습패턴	F1. 학습유형과 학습 선호도	–	홀수년 조사
	G. 학습태도	G1. 학습에 대한 태도	○	
	F. 학습역량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	짝수년 조사
		F2. 외국어 사용 빈도	○	
		F3. 인터넷 활용 빈도	○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	
Ⅳ. 사회 참여 및 인식	H. 사회 참여 및 인식	H1. 자원봉사 참여	ESS 호환	
		H2. 대인간 신뢰		
		H3. 타인에 대한 인식		
		H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H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H6. 정치적 관심		
		H7. 정치적 참여여부		
		H8. 기관 신뢰도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Eurostat 호환	비고
		H9. 생활 만족도		
		H10. 전반적 행복도		
		H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H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H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H14. 고용안정 성과도	-	
		H15. 삶의 질 향상도	-	
		H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1. 최종학력	○	
		DQ2. 부모 최종학력	○	
		DQ3. 혼인상태	-	
		DQ4. 자녀유무	-	
		DQ4-1. 막내자녀 연령	-	
		DQ4-2. 육아형태	-	
		DQ5. 경제활동상태	○	
		DQ6. 고용형태	○	
		DQ6-1. 상용근로자(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	
		DQ6-2. 전일제/시간제	○	
		DQ7. 직업구분	○	
		DQ8. 직장규모	○	
		DQ9. 직장근무기간과 월 평균소득	○	

라. 조사방법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가구 구성원 조사를 위해서 가구당 2~3회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 내의 전 가구에 대해 Contact History를 기록하도록 하여 분석 단계에서 가구 무응답 및 추출률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주요 문제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평생교육 영역의 관련 전문가 총 10명을 대상으로 3차례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3차례의 FGI는 크게 첫째, 현행 조사의 전반적 문제점 및 방향성, 둘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세부 항목 관련 개선 사항, 셋째, 평생학습의 범위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GI를 통해 진단된 문제점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목적 차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조사가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의 조사를 통해 획득된 정보는 지나치게 평면적이어서 국가 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현행 조사의 자료로는 단순 참여율과 환경요인 정도만 파악 가능한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처음 개발되어 실시되었을 때부터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는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되어온 점이 없지 않다. 최초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바탕이 된 한숭희 외(2007b) 및 이후 Eurostat AES 매뉴얼과 ESS(European Social Survey)를 반영하여 수정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인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목적과 이 조사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실시의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론 다른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개발 및 수정 과정에 이러한 이해들이 일관성 없이 반영되어 오늘에 이르렀

다. 이 조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주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기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평생교육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교육부와 평생교육 및 학습에 대하여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는 평생교육학계 학자들,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한 실천적 처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교육부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국가 간 평생교육참여율 비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우선 관심은 매년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한편 평생교육학계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들과 평생교육 현장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실천적 양태에 대한 학문적 이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어느 한편에서 조차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서의 그 역할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나. 조사대상 차원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20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 수는 약 9,600명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평생학습사회화와 100세 시대라는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화두를 고려할 때, 조사 대상의 연령대가 25~64세로 한정되어 있고, 표본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의 역할과 그 활용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조사내용 차원

2014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학습자의 참여실태, 학습환경, 학습활동, 사회참여

및 인식, 그리고 응답자 배경정보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한다.

1)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 미흡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가령, 연도별 데이터가 누적되어 왔지만 지역별, 구군별 비교가 불가능하여 각 지역별 평생교육 수요와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평면적이어서 국가 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자료로는 단순 참여율과 환경요인 정도만 파악 가능한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개념의 모호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의 불완전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의 혼란 및 현재 이용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외, 2011)의 불완전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등 평생학습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영역들의 일부 예시도 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김진화 외(2011)가 제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6진 분류(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조사된 교육프로그램의 모든 종류가 완전히 이들 영역 각각에 완벽하게 조응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영역의 성격을 갖는 융복합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느 한 영역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3)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 문항 포함의 문제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 항목은 이론적 논의로는 의미가 있지만 통계조사로 수량화하여 객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활용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수많은 무형식학습 중에서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4) 평생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의 부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부족한 대신 평생학습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조사가 불필요한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학습역량과 일부 사회 참여 및 인식 관련 문항은 평생학습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어려운 문항들이며, 학습환경 중 정보획득 관련 문항들은 정보화의 발달로 더 이상 무의미한 조사항목이다. 반면 평생학습 참여 목적과 동기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조사하는 항목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사에는 없다.

라. 조사방법 차원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 부족, 조사 항목의 과다 및 고난이도 문제, 조사기준일의 비적합성, 조사 전반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부족,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1)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20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조사구 중에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 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성인 남녀를 조사 모집단으로 보고,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과 통합)를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기타 도 지역을 동지역 및 읍면 지역(18개)으로 행정구역별 층화작업을 수행하여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국 589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여 표본 가구 내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성인 전체를 조사한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집은 유층표집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표본수(2014년도 약 9,600명)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별, 소득별 등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도 집단별 적은 사례수로 측정오차가 커서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성은 떨어진다.

2) 너무 많은 조사항목과 높은 난이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이 과다하고 조사지에 등장하는 어려운 전문용어들은 조사의 성공률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조사지에 많은 학술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조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은 조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응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고 상세하여 응답자의 성실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응답자에게 중의적인 느낌을 주는 문항들도 다수 존재한다.

3) 조사기준일의 비적합성

이 문제는 앞서 평생교육 기관통계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된 바 있다.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이는 거의 대다수의 평생교육 기관들이 연단위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또한 많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통계조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4) 조사 전반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 부족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목적에 대한 혼선, 너무 많은 조사항목과 높은 난이도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 학습자를 접촉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 조사원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얻어낸 조사결과 역시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5)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미비

현재 많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 본원이 실시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와 다른 조사를 이용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불러오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향

FGI에서는 현행 조사의 문제점 진단과 더불어 조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도출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목적의 명료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개선은 조사목적을 명료화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계 및 현장의 평생교육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도출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둘째, 지역 및 계층 간 평생교육 기회 격차의 완화를 위한 참여율 및 참여패턴에 관한 시계열적 비교 가능한 정보 생산,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 분배 및 재정투입효과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모형 설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등이다.

나. 조사대상의 확대

현행 조사는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상의 이유로 표집규모(2014년 기준 9,600명)도 제한적이어서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현실을 잘 드러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64세 이상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조사 응답자의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 본 조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평생교육의 학습량과 성과, 참여 결정 요인, 학습 소외계층과 참여 장애요인, 특정집단별 학습과정과 접근의 차이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실태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는 주기를 두고 그 안에 특정집단(청년, 여성, 노인, 직장인)을 목표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조사목표 대상 집단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하고, 전체 주기 안에서 순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조사내용의 정비 및 체계화

1) 조사항목의 간소화 및 체계화

우선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항목을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고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사의 각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여실태 영역

참여실태 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학습참여 목적이나 동기, 의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다. 또한 단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간뿐만 아니라 참여기간에 대한 기준점을 정립하여 참여 시간과 교육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복수응답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 참여목적 중 '직업에 관련한 이유'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재교육/전직교육이나 현직관련/이직관련 교육으로 나누어 평생직장의 가변성을 고려하는 등 사회의 변동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성과,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에 '가족관계 변화'나 '자녀교육에서의 만족감' 같은 응답 항목의 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방송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지원 외, 2013)에서 방송대 참여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중에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주된 성과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참여 평생교육기관 유형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1%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세 분류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응답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기관 분류를 간략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김진화 외(2011)의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나, 이

분류체계로는 실제 운영되는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특히 융합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분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교육현실을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분류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에 대한 조사 문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활용도 측면이나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 학습환경 영역

학습 환경 영역에서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요인을 개인의 내부 심리적/외부 물리적 요인으로 나눠서 질문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적인 제약 요소, 가령, 기초능력부족, 경력 단절, 지역적 격차, 도구적 접근의 어려움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학습 비참여자의 비참여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비참여자에 대한 이유, 동기, 참여 가능성 등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다) 학습자 역량 영역

학습자 역량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나 ICT 활용능력 등의 질문은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그 연관성이 미약하므로 평생학습 관련 성과 문항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라) 사회 참여 및 인식 영역

사회 참여 및 인식 영역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사회적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치참여 등과 같은 영역은 국가수준의 통계조사보다는 개별 연구 단위 조사에 보다 적합한 항목이며, 전반적으로 사회 참여 및 인식 영역은 삭제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회봉사나 신뢰, 만족도 정도로 조사 영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응답자 통계적 배경 영역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통계적 배경 영역의 항목이 많은 편인데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부모 최종학력, 혼인상태, 자녀유무, 막내자녀 연령, 육아 형태 등)은 혼인여부나 막내자녀 연령 정도로 축소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 관련 질문(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사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전일제/시간제, 직업구분, 직장 규모, 근무기간, 월평균 소득 등)도 재직자의 학습참여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주요 항목만으로 축소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최종학력의 경우 응답범위에 '수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군의 분류는 실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직업군들을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개선요구는 [부록 2-6]과 [부록 2-7]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2) 평생학습 미참여 및 중도탈락 이유의 조사 문항 추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국가 수준의 승인통계조사로써 그 조사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와 평생학습 참여자의 중도탈락 이유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진흥 정책은 평생학습 장애요인의 분석을 토대로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와 평생학습 참여자의 중도탈락 이유를 조사함으로써 정책당국이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라. 조사방법 및 체계의 개선

1) 응답자의 응답편의성 제고

응답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핵심적인 영역 위주로 엄선하여 조사지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용어 또한 조사원과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2) 조사기준일의 변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대다수의 평생교육 기관들은 연단위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평생교육기관 역시 평생교육통계조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기준일(현 7월 1일) 수정에 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3) 조사원 교육의 강화

그동안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목적에 대한 혼선, 너무 많은 조사항목과 높은 난이도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 학습자를 접촉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조사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의 개발

국가 승인통계로써의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물론 많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평생교육기관에도 평생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평생교육원과 같은 평생교육 기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를 개발한다면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자료에 대한 전국 단위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사자료 수집 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협력하면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4.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가 FGI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조사 개선 방향과 조사 수정 내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생교육 학계 및 현장의 관련 전문가와 조사 혹은 연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3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39명이 의견을 주었

다. 설문지는 조사 수정 내용(안)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묻고 해당 문항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가. 델파이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검증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수정 내용(안)에 대한 전문가 응답을 토대로 각 문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Lawshe (1975:567)의 연구에서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리커트 척도의 4(타당함)와 5(매우 타당함)로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인 ne와 전체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인 N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VR(\text{내용타당도비율}) = \frac{ne - N/2}{N/2}$$

ne : 리커트 4(타당함)와 5(매우 타당함)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

N : 전체 전문가 패널의 수

〈표 Ⅳ-5〉 전체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VR)의 최소값

전체 응답한 패널의 수(N)	내용타당도비율(CVR)의 최소값
5	0.99
6	0.99
7	0.99
8	0.75
9	0.78
10	0.62
11	0.59
12	0.56
13	0.54
14	0.51
15	0.49
20	0.42
25	0.37
30	0.33
35	0.31
40	0.29

*단측검정 p=0.05

출처 : Lawshe(1975:568)

내용타당도비율(CVR)은 전체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그 최소값이 결정되는데,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비율(CVR)의 최소값은 〈표 Ⅳ-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응답한 전체 패널의 수는 39명으로 약 0.30 정도의 내용타당도비율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나. 델파이 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관련 개선 사항

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대상 범위

현재 '만 25세 이상 ~ 만 64세 이하'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연령을 노년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의 증가 추세에 따라 확대해야한다 의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연령 상한 없이 '만25세 이상으로 확대'에 대한 응답이 79.5%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그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년인구의 평생학습 참여가 증가 추세이긴 하나 그 비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만 74세까지로 조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대표성을 갖는 표본 규모

현행 조사에서는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9,600명의 지역규모별 참여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규모가 설계되어 있다. 적절한 대표성을 갖는 표본 규모의 수준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현행의 '지역규모별 대표성'이 35.9%로 가장 높았고, '시·군·구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도 30.8%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대표성'에 대해서 17.9%, '전국 수준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15.4%로 응답했다.

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주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은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주기는 '2년마다', '3년마다'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각 3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행대로 '매년' 참여율과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5%로 많았다. 이밖에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격년으로 시·도별 통계를 산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라) 부가 조사 필요 대상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사이에 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부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복수 응답)은 다양한 계층에 대해 평생학습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29.7%), '직장인'(22.5%), '여성'(21.6%), '청년층'(19.8%)에 대한 평생학습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장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관련 조사도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들도 있었다.

2) 평생교육 유형별 정의 및 유형 구분의 내용타당도 검증

평생교육의 유형별 정의와 유형 구분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형식교육의 정의와 구분의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각각 0.64와 0.38로 타당하게 나타났으나 비형식교육의 정의와 예시, 프로그램 유형, 기관 유형에 대한 타당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 참여목적과 성과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CVR이 0.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6〉 평생교육 유형별 정의 및 유형 구분의 내용타당도

문항	세문항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
1. 형식교육	1-1. 형식교육의 정의	4.00(0.889)	0.64
	1-2. 형식교육의 구분	3.69(1.030)	0.38
2. 비형식교육	2-1. 비형식교육의 정의와 예시	3.41(0.957)	0.12
	2-2.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유형	3.59(0.850)	0.23
	2-3. 비형식교육 기관의 유형	3.41(0.832)	0.14
3. 무형식학습	3-1. 무형식학습의 정의와 예시	3.50(0.775)	0.11
	3-2. 무형식학습 제외	3.47(1.268)	0.21
4. 평생학습 참여목적 및 성과	4-1. 평생학습 참여목적 및 성과	3.81(0.739)	0.57

3) 조사 영역별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조사 영역별 개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전반적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장애요인, 접근성에 대한 개선안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역량의 기존의 모든 조사항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및 인식 영역의 경우 기존의 조사항목 중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생활만족도, 삶의 질 향상도,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항목의 타당도가 낮았다.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개선안에 대해서는 '타문화권에 대한 학습'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참여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문화권에 대한 학습'을 제외한 모든 개선안의 항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Ⅳ-7〉 조사 영역별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문항	세문항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
A. 형식교육	A1. 참여여부	4.54(0.657)	0.94
	A1-1. 참여교육과정	4.56(0.561)	0.94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	3.97(1.000)	0.65
	A2. 교육시간	4.50(0.564)	0.94
	A3. 참여목적	4.60(0.497)	1.00
	A4. 학습비 1) 자기부담	4.43(0.558)	0.94
	2) 외부지원 여부	4.41(0.557)	0.94
	2-1) 지원금액	4.24(0.890)	0.76
	A5. 교육성과	4.43(0.608)	0.89
B. 비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 여부(내용 수정)	3.77(0.872)	0.59
	[비형식 교육 조사항목]		
	B1. 참여여부	4.53(0.557)	0.95
	B2. 참여 프로그램 수	4.19(0.811)	0.73
	B3. 참여현황 1) 프로그램 유형 선택	4.03(0.972)	0.68
	(지난1년) 2) 기관유형 선택	3.92(0.983)	0.51
	3) 직업관련목적	4.26(0.795)	0.79
	4) 연간참여시간	4.30(0.702)	0.84
	5) 자기부담 학습비	4.29(0.694)	0.84
	6)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4.29(0.694)	0.84
	7)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4.11(0.953)	0.68
	8) 주요수강시간대	4.29(0.694)	0.84
	9) 프로그램 만족도	4.21(0.777)	0.79
	※ 가장 최근부터 3개까지만 답변	4.06(0.802)	0.66

문항	세문항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
D. 장애요인/ E. 접근성	**[학습환경 관련 조사항목]**		
	D1. [미참여자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신규문항)	4.50(0.558)	0.95
	D2.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무	4.37(0.541)	0.95
	D2-1. [D2'Y'만]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형	4.37(0.541)	0.95
	D3.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탈락 경험 여부(신규문항)	4.47(0.603)	0.89
	D3-1. [D3 'Y'만] 중도탈락 이유(신규문항)	4.50(0.604)	0.89
	E1. 평생학습 참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4.39(0.595)	0.89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	4.08(0.850)	0.74
	[평생학습 참여자 중도탈락 사유]	3.59(0.956)	0.30
F. 학습역량	**[학습역량 조사항목]**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2.94(1.083)	-0.37
	F2. 외국어 사용 빈도	2.63(1.060)	-0.54
	F3. 인터넷 활용 빈도	3.00(1.085)	-0.37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2.89(1.051)	-0.43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3.31(1.105)	-0.14
	학습역량 영역 제외 방안	3.59(1.093)	0.23
G. 사회참여 및 인식	**[사회참여 및 인식 조사항목]**		
	G1. 자원봉사 참여	3.86(0.822)	0.46
	G2. 대인간 신뢰	3.03(1.067)	-0.41
	G3. 타인에 대한 인식	3.03(1.142)	-0.35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3.16(1.259)	-0.03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3.19(1.198)	-0.08
	G6. 정치적 관심	3.27(1.018)	0.03
	G7. 정치적 참여여부	3.38(1.139)	0.08
	G8. 기관 신뢰	3.24(1.256)	0.08
	G9. 생활 만족도	3.73(1.122)	0.30
	G10. 전반적 행복도	3.69(1.142)	0.11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3.30(1.127)	-0.08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3.30(1.127)	-0.08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3.43(1.168)	-0.03
	G14. 고용안정 성과도	3.54(1.095)	0.24
	G15. 삶의 질 향상도	3.68(1.180)	0.35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4.05(0.970)	0.62
	[사회참여 및 인식] 조사 내용 수정(안)		
	G1. 자원봉사 여부	4.06(0.791)	0.56
	G2. 자선단체 기부여부	3.75(0.841)	0.39
	G3. 동아리(social club) 참여여부	4.19(0.749)	0.72
	G4. 사회단체, 정당에의 후원여부	3.81(0.889)	0.50
	G5. 타문화권에 대한 학습	3.62(1.139)	0.19
	G6. 지역사회 기관 접근성	3.92(0.841)	0.44

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FGI 결과와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방안은 평생교육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FGI 및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다소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추후 보완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적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개발·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다룬다.

가. 조사 대상의 범위

현재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연령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을 없애도록 한다. 이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고, 노년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의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나. 표본 규모

표본규모는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가능한 현행 9,600명 규모를 점차 시·군·구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5,000-3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5년 전에 통계청이 수행한 평생교육통계품질진단에서는 시·군·구별 분석을 위해 최소 30,000명의 표집을 권장한 바 있다.

다. 조사 주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은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주기는 '2년마다', '3년마다'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각 3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행대로 '매년' 참여율과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5%로 많았다. 그런데 조사를 위한 출연금 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현행처럼 1년 단위의 조사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평생교육의 유형구분

현재처럼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무형식학습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식교육의 정의는 현행 정의를 유지하고, 비형식교육은 정의를 좀 더 평이한 표현으로 다듬고, 비형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예시는 일반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참여빈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간단하게 제시한다.

마. 조사항목의 개선

1) 평생교육의 참여목적 및 성과

연구진이 델파이 조사 문항에서 제시한 개선(안) 대로 기존 문항을 수정한다. 수정된 문항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평생교육의 참여목적 및 성과 개선(안)

	기존	개선(안)
목적	A3/B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과 관련된 이유로(현재 직무 및 차후 희망 직업 포함) ② 직업과 무관한 이유로	A3/B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 ②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③ 직업능력 및 고용안정 ④ 사회참여 ⑤ 친목도모
성과	A5/B4. 귀하께서 지난 1년 간/지난 1달 간 참여한 형식교육/비형식교육 경험이 전반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육체적 건강 유지 2) 정신적 건강 또는 심리적 만족 3)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4)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5)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6)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7) 고용안정 8) 시민의식(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등) 증진 9) 지역사회참여(투표, 축제, 지역 내 행사 등) 증가 10) 사회적 상호작용(사교모임, 동호회 등) 증진	A5/B4. 귀하께서 지난 1년 간/지난 1달 간 참여한 형식교육/비형식교육 경험이 참여목적(A3/B3)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2) 형식교육의 참여현황 조사

현행 조사체계를 근간으로 일부 내용을 〈표 Ⅳ-9〉와 같이 개선한다.

〈표 Ⅳ-9〉 형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개선(안)

2013년(내용중심)	2014년(형식중심)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성인기초 및 문해 해득교육 2) 직업능력향상교육 3) 인문교양교육 4)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5) 시민참여교육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2)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3)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4)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5)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 2015년부터는 학습동아리를 별도 선택지로 분리

3)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2014년에 이미 변경한 참여율 조사방식을 토대로 〈표 Ⅳ-10〉과 같이 일부 보완한다.

〈표 Ⅳ-10〉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개선(안)

기존	개선(안)
B1. 참여여부	B1. 유지
B2. 참여 프로그램 수	B2. 제외(프로그램별로 작성하도록 함)
B3. 참여현황 1) 프로그램 유형 선택	B3. 참여현황 1) 프로그램명 직접기입(수정)
(지난1년) 2) 기관유형 선택	(지난1개월) 2) 기관명 직접기입(수정)
3) 직업관련목적	3) 참여목적 다양화(수정)
4) 연간참여시간	4) 프로그램 참여시간(수정)
5) 자기부담 학습비	5) 유지
6)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6) 유지
7)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7) 유지
8) 주요수강시간대	8) 유지
9) 프로그램 만족도	9) 프로그램 도움여부(수정)
※ 가장 최근부터 3개까지만 답변	※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4) 학습참여 장애요인

학습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은 다음 〈표 Ⅳ-11〉과 〈표 Ⅳ-12〉, 〈표 Ⅳ-13〉과 같이 개선한다.

〈표 Ⅳ-11〉 학습참여 장애요인 조사 항목 개선(안)

기존	개선(안)
D1.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D1-1.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D1-2.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형 D1-3. 참여 원했던 교육 프로그램 D1-4. 참여 장애요인	D1. [미참여자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신규문항) D2.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무 D2-1. [D2 'Y'만]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형 D3.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탈락 경험 여부(신규문항) D3-1. [D3 'Y'만] 중도탈락 이유(신규문항)

〈표 Ⅳ-12〉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 수정(안)

기존	개선(안)
①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②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회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④ 근무시간과 겹쳐서 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⑥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⑦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⑧ 시간이 없어서(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 ⑨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 ⑩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⑪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⑫ 기타	① 동기, 자신감 부족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④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⑤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⑥ 희망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⑦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⑧ 기타

〈표 Ⅳ-13〉 평생학습 참여 중도탈락 사유 개선(안)

개선(안) - 신규문항
①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②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③ 당초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달라서(프로그램 정보 오류) ④ 프로그램 수준이 맞지 않아서(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⑤ 기타

5) 평생교육의 접근성

평생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조사항목은 다음 〈표 Ⅳ-14〉와 같이 개선한다.

〈표 Ⅳ-14〉 평생교육의 접근성 개선(안)

기존	개선(안)
E1. 정보접근여부 E1-1. 정보획득여부 E1-1-1. 정보획득방법 E1-1-2. 정보 미획득 사유	E1. 평생학습 참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6) 학습역량 관련 문항

학습역량 관련 문항은 타당도가 낮으므로 삭제한다.

〈표 Ⅳ-15〉 학습역량 관련 문항 개선(안)

기존	개선(안)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F2. 외국어 사용 빈도 F3. 인터넷 활용 빈도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삭제

7)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항목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조사문항은 다음 〈표 Ⅳ-16〉과 같이 개선한다.

〈표 Ⅳ-16〉 사회참여 및 인식 관련 항목 개선(안)

기존	개선(안)
G1. 자원봉사 참여 G2. 대인간 신뢰 G3. 타인에 대한 인식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G6. 정치적 관심 G7. 정치적 참여여부 G8. 기관 신뢰도 G9. 생활 만족도 G10. 전반적 행복도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G14. 고용안정 성과도 G15. 삶의 질 향상도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G1. 자원봉사 여부 G2. 자선단체 기부여부 G3. 동아리(social club) 참여여부 G4. 사회단체, 정당에의 후원여부 G5. 지역사회 기관 접근성 G6. 생활의 만족도 G7. 삶의 질 향상도

8) 배경정보 조사항목

응답자의 배경정보에 대한 조사항목은 다음 〈표 Ⅳ-17〉과 같이 개선한다.

〈표 Ⅳ-17〉 배경변인 조사 항목 개선(안)

기존	개선(안)
DQ1. 최종학력	DQ1. 유지
DQ2. 부모 최종학력	삭제
DQ3. 혼인상태	삭제
DQ4. 자녀유무	삭제
DQ4-1. 막내자녀 연령	DQ4-1. 유지
DQ4-2. 육아형태	DQ4-2. 유지

기존	개선(안)
DQ5. 경제활동상태	DQ5. 유지
DQ6. 고용형태	DQ6. 유지
DQ6-1. 계약형태(정규직/비정규직)	DQ6-1. 유지
DQ6-2. 전일제/시간제	DQ6-2. 유지
DQ7.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 노무종사자 ⑪ 직업군인 ⑫ 기타	DQ7.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성별 산업/직업별 취업자(대분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DQ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19명 ③ 20~49명 ④ 50~99명 ⑤ 100~299명 ⑥ 100~299명 ⑦ 500~999명 ⑧ 1,000명 이상	DQ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49명 ③ 50~99명 ④ 100~299명 ⑤ 300명 이상
DQ9.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과 세후 월평균 소득(임금 또는 사업소득만)은 얼마나 되십니까? 근무기간 __년 __개월, (세후) 월 평균 소득 ____만원	DQ9.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과 세후 월평균 소득(임금 또는 사업소득만)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안)

위에서 다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방안을 근거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안)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내용
Ⅰ.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A1. 참여여부	유지
		A1-1. 참여교육과정	유지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유지
		A2. 교육시간	유지
		A3. 참여목적	수정
		A4. 학습비 및 외부지원	유지
		A5. 교육성과	수정
	B. 비형식교육	※(지난 1개월)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수정
		B1. 참여여부	수정
		B2-1. 참여프로그램명	수정
		B2-2. 참여교육기관명	수정
		B2-3. 참여목적	수정
		B2-4. 참여 프로그램 참여시간	수정
		B2-5. 개인부담 학습비	유지
		B2-6.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유지
		B2-7.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유지
		B2-8. 주요수강 시간대	유지
		B2-9. 프로그램 도움여부	수정
		B3. 교육성과	수정
Ⅱ. 학습 환경	C. 장애요인	D1. 평생학습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미참여자만]	신규
		D2.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무	유지
		D2-1. 참여 의망 교육프로그램 유형 [D2'Y'만]	유지
		D3.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탈락 경험 여부	신규
		D3-1. 중도탈락 이유 [D3'Y'만]	신규
	D. 접근성	E1. 평생학습 참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유지
Ⅳ. 사회 참여 및 인식	G. 사회 참여 및 인식	G1. 자원봉사 여부	유지
		G2. 자선단체 기부여부	수정
		G3. 동아리(social club) 참여여부 (대체)	수정
		G4. 사회단체, 정당에의 후원여부 (대체)	수정
		G5. 지역사회 기관 접근성 (대체)	수정
		G6. 생활의 만족도 (유지)	유지
		G7. 삶의 질 향상도 (유지)	유지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내용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1. 최종학력	유지
		DQ2. 막내자녀 연령	유지
		DQ4-2. 육아형태	유지
		DQ5. 경제활동상태	유지
		DQ6. 고용형태	유지
		DQ6-1. 상용근로자(정규직)/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유지
		DQ6-2. 전일제/시간제	유지
		DQ7. 직업구분	수정
		DQ8. 직장규모	수정
		DQ9. 직장근무기간과 월 평균소득	수정

V. 결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V. 결 론

1. 요약

이 연구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수집되는 평생교육통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문헌분석과 전문가 집담회(FGI),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적합성을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통계조사 항목 개선 및 효과적인 조사·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와 개선 방향

1)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

첫째, 현행 조사는 현황자료 위주의 통계조사에 머물러 교육의 과정, 성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지표 및 지수화가 어려워 평생교육과 관련된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지표 및 지수화가 어려워 연구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둘째,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추가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합성이 부족한 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사항목이 많으며, 조사항목 자체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하고,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여 조사항목들을 정리하고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조사의 기본 틀이 되는 분류체계의 문제가 있다. 현행 조사에 적용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6개의 주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들 주제 분류 영역간의 다중성 및 개념경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조사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KEDI 평생교육

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에서 활용되는 분류의 불일치로 국가수준의 통합적 정보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조사방법 측면에서 경직성과 과도한 조사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교·강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게 되어 조사담당자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조사기간(조사기준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필요(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통합적 자료 구축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통계의 쓰임새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조사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조사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사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조사지침서에 담긴 용어들이 학술적 전문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담당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섯째, 조사의 법적 구속력 부족과 조사시스템의 낙후도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통계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시·도 자체조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오로지 인적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또한 KEDI의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원활한 조사가 되지 못하며, 조사항목의 수정이나 신규요구에 대처하기 어렵다.

2) 평생교육기관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신뢰롭고 활용도 높은 조사를 위해 조사내용을 정비하고 체계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활용도나 신뢰도 낮은 조사항목을 정비하여 조사항목을 간소화 하고,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과 지역 단위에서 부가적으로 조사할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사내용의 분류도 일선 현장에서 사용되는 관습적 구분과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활용도 높은 신규통계항목을 개발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 분류 기준의 일원화 및 지속적 확대를 꾀하도록 한다. 평생교육법상의 등록기관에 더하여 타 법령 교육기관으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 기준의 일원화와 더불어 평생교육기관의 범주 및 유형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기관 분류작업에는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정향성, 법상의 분류기준, 기관 고유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의 범주와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넷째, 조사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조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조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시·도별 조사대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사전조사에 들이는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기준일의 통일이 필수적인데, 현행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기준일인 5월 1일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맞춰 변경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지침과 조사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들 내용을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복조사를 예방하고 통합적 정보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개선 방향

1) 개인학습실태조사의 문제점

첫째,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현재의 조사에서는 단순 참여율과 환경

요인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데,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학습량과 성과, 참여 결정 요인, 학습 소외계층과 참여 장애요인, 특정집단별 학습과정과 접근의 차이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 부족이다.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별, 소득별 등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도 집단별 적은 사례수로 측정오차가 커서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 게다가 조사예산이 그때그때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져 매해 조사표본수의 안정성을 기약하기 어렵다.

셋째, 평생학습의 유형과 유형별 범위의 분류가 모호하다.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일부 예시항목도 지엽적으로 제시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유형 분류,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등에 대한 표준화와 명료화가 시급하다.

넷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이 과다하고 조사지에 등장하는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인해 조사의 성공률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조사단가 하에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항 간소화와 용어의 명료화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정확한 측정과 계량화가 어려운 무형식학습이 포함되어 신뢰성과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수준의 통계정보 수집이라는 조사 취지에 적합하게 조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생학습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대신 평생학습과 연관성이 낮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문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항들은 통계 결과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만들며 평생학습 조사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학습자의 참여목적에 따라 유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인학습실태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개인실태조사의 개선은 조사목적을 명료화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지역 및 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 및 참여패턴에 관한 비교 가능한 시계열적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 예산의 분배와 재정투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모형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 응답자의 연령 및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령층으로 확장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표집규모(2014년 기준 9,600명)를 시·군·구별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응답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조사지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용어 또한 조사담당자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학습에 미참여 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참여를 중·장기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 방안이 현장에서 착근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형식교육의 프로그램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융복합화 하는 평생교육의 변화를 담아내도록 한다.

여섯째, 객관적 측정과 조사가 어려운 무형식학습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비형식교육의 참여유형도 온라인 학습의 증가 및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와 같은 최근의 평생학습의 동향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2. 제언

가. 국가 수준의 평생학습 정의, 영역, 유형의 명료화 및 표준화

신뢰롭고 현실적합성 있는 평생교육통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평생학습의 정의, 영역, 유형 등에 대한 명료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개념 범주에 대한 논쟁과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 조사마다 상이한 정의, 범위, 영역,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임언, 2006). 이로 인해 동일한 지표

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조사 결과 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에서 관련 조사 간 내용적인 통일성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통계조사 실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평생교육통계 내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

평생교육기관조사와 개인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2007년에 처음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대상 교육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는 조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확대에는 예산과 인력이 필수적인데 지난 8년간 늘어난 조사기관에 상응하는 연차별 예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사대상 기관의 꾸준한 증가에 상응하는 조사예산의 증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관조사가 수행되는 조사시스템은 최소 5년 단위로 대폭적인 정비와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2006년에 조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한 차례도 개편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조사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개인실태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

개인실태조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단가의 현실화와 조사표집규모를 적정화 할 수 있는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실태조사는 조사 도입 초기 몇 년간 5,000 명 수준에 머물다가 2012년에는 낮은 조사단가로 인해 조사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워 4,500명으로 줄였으며, 2013년에는 12,000명 수준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다시 9,6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불안정한 예산 여건에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양질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지역 수준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다.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하지만 표본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향후 지역별 평생학습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평생교육 실태가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실태조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의 분석이 기능한 규모(25,000명 이상)로 표집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라. 평생교육법 이외 기타 법령 기관 조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평생교육법 이외의 기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평생교육법 상의 교육기관만을 조사하는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가 반쪽자리 조사에 불과하다는 관련 학계의 비판을 의식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는 자체적으로 통합조사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2012년에 서울시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MOU 체결을 확대하여 조사지침과 항목을 공유하고, 서울시와는 해마다 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통합하여 서울시 소재 평생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쪽은 시스템 기반 조사를 하고 다른 쪽은 엑셀 기반 수기 조사를 할 경우 통합 DB가 구축되지 않아서 인쇄물 형태의 자료 외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조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약 3년 이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구축이 완료되고 이 정보망에 입력되는 자료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이 정보망을 활용한 통합적 통계조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조사체계 전환에 대비해 교육당국은 미리 의사결정을 하고 조사 및 조사시스템의 예산 확보 및 배분 기준, 조사수행 주체를 비롯한 조사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마. KEDI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과 상호협력

통합조사체계 이전 단계에서라도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으로 조사를 확장할 경우 KEDI와 시·도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KEDI 조사는 국가 수준의 통계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므로 전국의 다양한 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사표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화된 공통항목 조

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KEDI는 전국적인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와 기본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DB화하며, 지역적 특수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부가하여 자체 관리 및 활용하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바. 전 연령대별 평생학습 실태 조사 체계화

성인의 전 생애 기간에 걸친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실태조사들을 살펴보면, 성인기(대체로 64세 이전)와 노인기(대체로 60세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마다 조사기준, 평생학습 영역 구분,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 등이 상이하여 세대 간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세대별 평생학습실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조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조사 범위의 적정화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정보축적에 필요한 조사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현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형식학습은 그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조사에 필요한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으며, 그만큼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학습자 스스로도 무형식학습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하여 EU와 OECD에서도 이 영역은 실제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형식학습의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승인통계 조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비형식교육기관도 정책적으로 관리 가능한 구조화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및 활동 위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실태조사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 경우,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일부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에 대해서는 향후 이론적, 방법론적 탐색을 통해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영혜·박성호·이미라·김본영·임후남(2012). **국가고등교육통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강원도 평생교육 현황 조사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발전연구원(2013). **시·군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표**. 경상남도발전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0). **2010년 평생교육백서**.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실태조사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2013. 9.).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 교육부.

교육부(2014). **2014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교육부(2014. 7).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 망 구축(안)**. 보도자료(2014. 7. 1).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2001). 성인학습 기회와 참여의 형평성: 실태와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7**, 41-68.

김진화(2010). **평생학습계좌사업을 위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지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진화·고영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진화·이경아·양병찬·변종임·김만희·박상옥(2011).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2013). **대구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대구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대전시 평생학습 실태조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박태준·손유미·최영렬·주용국·이희수(2005). **평생학습의 참여실태와 수요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변종임·이정의·노경란·조순옥·박진홍(2013). **평생교육 요구 분석 및 EBS 평생교육 전략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1). **부산지역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년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조사 조사요원 연수 교육 자료**.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청(2014. 6). 평생교육실태 등 조사 관련 자치구담당자회의. 회의자료(2014. 6. 10).
서울특별시·한국교육개발원(201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파주: 법문사.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도 인천 평생교육 통계 실태조사**.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임언(200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2)*, 121-149.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전남지역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최돈민(1999). **평생교육 요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신건호·유제민(2006). CRM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4(2)**, 131-161.
최돈민·양흥권·이세정(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이세정·김세화(2008).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29-55.
최운실·김현철·변종임(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3). **충북지역 평생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3a).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평생교육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3b). **2013년도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3c). **2013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사업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3d).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숭희(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3판)**. 서울 : 학지사.

한숭희·신택수·양은아(2007a). 평생학습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습자배경, 학습패턴 및 자기보고 핵심역량이 평생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13(2)**, 93-118.

한숭희·조대연·최지희(2007b).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숭희·김한별·양은아(2011). **평생교육통계 품질개선지원 최종결과보고서 : 통계작성 포괄범위 개선**. 통계청.

황지원·박성호·김명진(2013). **방송대 졸업생의 교육 성취 및 사회이동 효과 분석 : 2010~2013년 졸업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European Commission(2006). *Classification of learning activities Manual*.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NY: Wiley.

Jarvis, P. (2006). *Towards a comprehensive theory of human learning*. New York: Routledge.

Jarvis, P. (2009).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Routledge.

Jarvis, P. (2010).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Theory and learning (4th ed.)*. London: Routledge.

OECD(2007; 2008; 2011; 2012; 2013).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한국교육개발원 편역. **OECD 교육지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UNESCO(1996). *Manual for statistics on non-formal education*. Paris: UNESCO.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ig.re.kr/hb/main/sub02_05_0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gill.or.kr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snd.net/jsp/main/main.jsp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ile.or.kr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ie.kr
대구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le.or.kr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Default_2014.aspx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ile.or.kr
독일 성인교육기관통계 홈페이지 http://www.die-bonn.de/weiterbildung/statistik
미국 가계교육조사 홈페이지 https://nces.ed.gov/nhes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ble.or.kr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i.re.kr/intro413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uill.or.kr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amoa.incheon.kr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jile.or.kr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damoa.chungnam.net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lll.or.kr
평생교육통계 조사 홈페이지 http://lifelong.kedi.re.kr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tilastokeskus.fi/meta/til/oaiop_en.html
EUROSTAT(AES)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
OECD PIAAC 홈페이지http://www.oecd.org/site/piaac/publications.htm

ABSTRACT

Analysis on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for Build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Park, Sung Ho
Kang, Young Hae
Eom, Moon Young
Kim, Jin Hee
Cho, Mi Young
Jun, Ju Sung
Lee, Mi Ra
Seo, Eun Kyoung
Seol, Gah In

This study aims to make a diagnosis on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chemes for current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in Korea in line with a government project on build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aging era.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FGI), Delphi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and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Some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were made through the analyses. Below is summary of the study.

☐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convert the survey results into indicators or indexes for

policy prognosis and research analysis because most of them are current situation data. Many survey contents are not suitable to use. Due to the large volume of the survey content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ccuracy of survey, and hence avail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is low.

Second, data input errors occur frequently because the survey classification scheme has failed to reflect actual complexity of the education programs. Moreover, it is unable to build a national database due to the discrepancy in classification schemes between KEDI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and local government surveys.

Third, considerable times and efforts are taken to conduct pre-survey in order to identify institutions subjected to the survey. Further, it is burdensome to investigator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of each instructor should be entered into the database. Moreover, discrepancy between the survey year and the fiscal year makes it difficult to build a combined database.

Fourth, it is hard to cooperate with investigators and to conduct the survey accurately due to lack of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survey process because the survey system is lagged behind.

☐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the survey contents should be restructured and simplified in order to enhance suitability and availability of the survey.

Second, current defini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be unified and expanded to the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standardized criteria for type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regularly updated.

Fourth, linking the survey with the local surveys needs to be considered to enhance its efficiency and reliability.

Fifth, investigators awareness about the survey should be raised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Sixth, in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combined survey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build a combined database systems.

☐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First, current survey is insufficient to reflect the differences of individual learners.

Second, the survey does not fully represent the population and hence the reliability is low as well.

Third, there is not clear definition about each type of lifelong learning.

Fourth, a large volume of survey contents and unfamiliar terminologies are negatively affected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Fifth, some questions are not clearly associated with lifelong learning and do not reflect the changes of current age.

☐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the survey should be able to offer time series data that shows the changes of lifelong learning patterns by regions and social status in order to give baseline data for policy decisions.

Second, the survey should be restructured to reflect the flow change in lifelong education.

Third, unfamiliar expressions and jargons should be modified to common expressions and terms.

Fourth,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should be increased in terms of age range and region,

❑ Keyword: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Lifelong Learning, Non-formal Education.

부 록

[부록 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

[부록 2-1]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부록 2-2]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부록 2-3] 평생교육 기관조사 개선을 위한 FGI 질문지

[부록 2-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1차 FGI 질문지

[부록 2-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2, 3차 FGI 질문지

[부록 2-6]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수정(안)

[부록 2-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세부 수정(안)

[부록 3] 델파이 전문가 의견 조사지

[부록 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16)]

평생학습은 개인, 가정,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단순한 자기 계발이 아닌,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최돈민 외, 2006). 이제 평생학습은 단순한 취미 수준의 오락 활동을 넘어, 개인의 고용 또는 재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인적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김영화, 2001). 이는 역으로 보면 학교교육에서의 격차에 나아가 성인들의 평생학습도 사회적 불평등을 낳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13년의 가장 최신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형식, 비형식) 참여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해마다 17개 시·도를 행정구역별로 층화 표집하고,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7~8월 중으로 조사하는 평생학습 실태자료는 최근의 평생학급 참여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 향후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또는 이를 포괄하는 형식, 비형식 평생학습에의 참여 결정 요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모형을 설정하여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에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중 공통된 것과 다른 요인들이 드러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16)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석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자 평생학습 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이 전체 연구보고서의 성격과 다소 달라 분석 결과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엄문영(KEDI)에 의해 수행되었다.

1.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평생학습(형식, 비형식)의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표본 조사구를 통해 총 12,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설문조사 결과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개인 실태조사로서, 표본은 7개 지역 서울 및 광역시, 9개의 도지역(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여 본 조사대상 표본 조사구에서는 제외됨.)을 1차 층화하고, 하위 행정구역별 2차로 층화를 실시하였다. 조사구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확률비례계통 추출을, 개별 가구는 계통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제 조사는 개별 면접원이 수집된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대면하는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치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분석 모형

종속변수가 일반적인 실수의 범위를 가지지 않고, 평생학습 참여의 여부와 같이 0 또는 1이라는 편향된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일반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일치 추정량을 산출할 수 없다(이희연·노승철, 2012). 따라서 이 경우는 종속변수를 확률로 전환하되, 승산(odds)이라는 전환과 이를 자연로그화한 로짓(logit)값으로 종속변수를 최종적으로 변환하여 예측되는 값이 구간별로 급증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설명변수가 평생학습 참여와 미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핵심적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모형을 표현할 수 있다.

$$\mathrm{Ln}\left(\frac{p_i(Y_i=1)}{1-p_i(Y_i=1)}\right)=\beta_0+\beta_1 B_i+\beta_2 S_i+\beta_3 R_i+\beta_4 P_i+\beta_5 C_i$$

- Y는 형식, 비형식,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여부
- B는 객관적 배경 중 개인적 요인 벡터(성별, 연령, 부양가족 유무)
- S는 객관적 배경 중 사회경제적 요인 벡터(본인 학력, 부모 학력, 가구소득, 소외계층 여부, 취업 유무, 직업군 등)
- R은 객관적 배경 중 지역 요인 벡터(거주지, 평생학습도시 여부 등)
- P는 주관적 배경 중 학습 태도 벡터(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등)
- C는 주관적 배경 중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 요인 벡터(정치 관심, 사회기관 신뢰도, 삶의 만족 및 행복도, 건강 인식 등 등)

다. 변수 설명

위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고려된 설명 변수를 포함한 주요한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부표 Ⅰ-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숭희 외(2007a)에서 분류한 평생학습 참여 요인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변수를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지표화 할 수 있는 객관적 배경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점수로 전환될 수 있는 주관적 배경으로 나누어 개별 설명변수들을 유목화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에서 구분한 주관적 배경이라 함은 스스로에 대한 학습태도나 정치 관심, 삶의 만족과 행복도를 포함한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은 실제 존재하는 값과 스스로가 판단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주관적' 배경이라고 규정되었다.

아래의 〈부표 Ⅰ-1〉는 실제 분석에서 평생학습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활용된 변수들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물론, 최종 분석 이전 단계에서 2013 평생학습 실태조사가 제공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유의미한 변수들도 모두 고려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설명변수의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예, 혼인 상태, 가정주부와 그 외 사회적 신분 등은 성별, 부양가족 여부 등과 매우 높은 상관도를 보유).

구체적으로 본 절의 분석에서 모형은 크게 종속변수에 따라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이 둘을 하나라도 참여하는 경우의 모형인 형식, 비형식 모형들이 그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13c)에 의하면, 형식학습이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편, 비형식학습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하며,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c).

모형에서 활용된 주요한 개별 설명변수는 성별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의 개인적 요인과 학력, 부모학력, 가구소득, 소외계층 여부, 취업 여부, 직업군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소외계층은 직접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1차 원자료는 아니며, 소득과 학력, 연령, 거주지를 종합하여 2차적으로 생성한 지표값이다. 직업군의 경우도 실태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직업들을 관리자, 사무종사자를 준거변수로 하여 서비스 및 판매업종군, 농어업과 기계를 다루는 기능직업군, 기타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화하여 각 변수의 평생교육 참여에의 결정 요인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지역 요인으로서 성인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그 참여 결정 요인으로 살펴보았고, 거주지가 평생학습도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생학습 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검토도 실시하였다.

주관적인 배경은 평생학습이 필요하고, 삶에 있어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로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적극적인 학습 태도 정도, 평생학습이 삶의 질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참여하는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문항들의 요인 또는 평균점수화하여 평생학습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약간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과 거의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그룹을 나누어(보통이라는 중간 영역의 설문 문항은 없음)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성향을 지닌 성인학습자가 과연 평생학습에의 참여도 적극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외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생학습 참여로 이어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3 평생학습 실태조사가 제공하는 국회, 경찰, 정치인, 정당, 학교, 병원, 언론기관 등의 각종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정도와 개인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수준, 개인이 판단하는 스스로의 건강 수준 등의 변수들도 분석 모형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부표 Ⅰ-1〉 주요 변수 설명

구분	변수			변수 내용과 자료입력 방식 및 코드
종속변수	형식교육 참여 (모형 Ⅰ)			형식교육 참여: 1, 비참여: 0
	비형식교육 참여 (모형 Ⅱ)			비형식교육 참여: 1, 비참여: 0
	형식·비형식교육 참여 (모형 Ⅲ)			형식 or 비형식교육 참여: 1, 비참여: 0
독립변수	객관적 배경	개인적 요인	성별	여자: 1, 남자: 0
			연령	25~34세(준거변수)/35~44세/45~54세/55~64세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 있음: 1, 없음: 0
		사회 경제적 요인	학력	중졸이하(준거변수)/고졸/대학졸업 이상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준거변수)/고졸/대학졸업 이상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준거변수)/고졸/대학졸업 이상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150~300만원 미만/300~500만원 미만(준거변수)/500만원 이상
			소외계층	소득 150만원 미만 & 중졸이하 & 연령 55~64세 & 농어촌 거주자: 1, 그 외: 0
			취업 유무	취업: 1, 실업 및 비경제활동: 0
			직업군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군(준거변수)/서비스 및 판매군/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군/직업군인 및 기타군
		지역	거주지	서울 및 광역시(준거변수), 중소도시,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1, 그 외: 0
	주관적 배경	학습 태도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학습태도에 대한 설문 문항의 요인점수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관련 설문 문항(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	정치 관심	관심 조금 이상: 1, 거의 관심 없음 이하: 0
			사회기관 신뢰도	관련 설문 문항(10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
			삶의 만족 및 행복도	관련 설문 문항(10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
			건강 인식	관련 설문 문항(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

2.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량

아래의 〈부표 Ⅰ-2〉는 모형에서 활용된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부표 Ⅰ-2〉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로 나타났고, 조사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만 25~64세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적으로 생성된 적극적 학습 태도, 사회기관 신뢰도, 삶의 만족 및 행복도 등에서는 한국의 성인학습자들이 10점 만점에 4.4점 정도의 각종 사회기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삶의 만족 및 행복도는 10점을 기준으로 평균 6.7점을 보여 보통 이상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이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거나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인 3.5점 정도의 수준(5점 기준)을 보이고 있다.

〈부표 Ⅰ-2〉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2892	25.00	64.00	45.74	10.557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12892	-41.55	0.50	0.00	1.000
사회기관 신뢰도	12838	0.00	10.00	4.44	1.668
삶의 만족 및 행복도	12877	0.00	10.00	6.68	1.594
건강 인식	12873	1.00	5.00	3.65	0.832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12892	1.00	5.00	3.53	0.778

다음으로, 각종 더미 변수들은 종속변수와의 교차표를 통해 기초적인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이미 앞선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서 본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한 변수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부양가족, 직업군, 정치관심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각 변수들의 관측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381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57.5%, 형식교육에 미참여한 성인학습자 12,511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83.4%로 나타났다(〈부표 Ⅰ-3〉 참조).

〈부표 Ⅰ-3〉 형식교육여부*부양가족 교차표

			부양가족		전체
			없다	있다	
형식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2,073	10,438	12,511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16.6%	83.4%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92.8%	97.9%	97.0%
	참여	빈도	162	219	381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2.5%	57.5%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7.2%	2.1%	3.0%
전체		빈도	2,235	10,657	12,892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17.3%	82.7%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100.0%	100.0%	100.0%

직업군과 형식교육 참여 여부 간의 관계는 〈부표 Ⅰ-4〉에 따르면, 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202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67.3%, 서비스 및 판매직종은 20.3%,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9.9%,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형식교육에 미참여한 8,519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37.0%, 서비스 및 판매직종은 30.8%,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31.4%,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Ⅰ-4〉 형식교육여부*직업군 교차표

			직업군				전체
			관리자 및 사무직종	서비스 및 판매직종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	기타직종	
형식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3,156	2,627	2,679	57	8,519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7.0%	30.8%	31.4%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95.9%	98.5%	99.3%	91.9%	97.7%
	참여	빈도	136	41	20	5	202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67.3%	20.3%	9.9%	2.5%	100.0%
		직업군 중 비율	4.1%	1.5%	0.7%	8.1%	2.3%
전체		빈도	3,292	2,668	2,699	62	8,721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7.7%	30.6%	30.9%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정치관심의 관계는 〈부표 Ⅰ-5〉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총 381명 중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68.8%로 나타났고, 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학습자 12,511명 중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45.8%로 조사되었다.

〈부표 Ⅰ-5〉 형식교육여부*정치관심 교차표

			정치관심		전체
			없다	있다	
형식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5,724	6,787	12,511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5.8%	54.2%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98.0%	96.3%	97.0%
	참여	빈도	119	262	381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1.2%	68.8%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2.0%	3.7%	3.0%
전체		빈도	5,843	7,049	12,892
		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5.3%	54.7%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100.0%	100.0%	100.0%

〈부표 Ⅰ-6〉에 의하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3,587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81.9%, 형식교육에 미참여한 성인학습자 9,305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83.0%로 나타났다.

〈부표 Ⅰ-6〉 비형식교육여부*부양가족 교차표

			부양가족		전체
			없다	있다	
비형식 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1,585	7,720	9,305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17.0%	83.0%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70.9%	72.4%	72.2%
	참여	빈도	650	2,937	3,587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18.1%	81.9%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29.1%	27.6%	27.8%
전체		빈도	2,235	10,657	12,892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17.3%	82.7%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100.0%	100.0%	100.0%

직업군과 비형식교육 참여 여부 간의 관계는 〈부표 Ⅰ-7〉에 따르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2,462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47.0%, 서비스 및 판매직종은 25.0%,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27.4%,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형식교육에 미참여한 6,259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34.1%, 서비스 및 판매직종은 32.8%,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32.4%,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Ⅰ-7〉 비형식교육여부*직업군 교차표

			직업군				전체
			관리자 및 사무직종	서비스 및 판매직종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	기타직종	
비형식 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2,134	2,052	2,025	48	6,259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4.1%	32.8%	32.4%	0.8%	100.0%
		직업군 중 비율	64.8%	76.9%	75.0%	77.4%	71.8%
	참여	빈도	1,158	616	674	14	2,462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7.0%	25.0%	27.4%	0.6%	100.0%
		직업군 중 비율	35.2%	23.1%	25.0%	22.6%	28.2%
전체		빈도	3,292	2,668	2,699	62	8,721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7.7%	30.6%	30.9%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정치관심의 관계는 〈부표 Ⅰ-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총 3,587명 중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63.2%로 나타났고, 비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학습자 9,305명 중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48.6%로 조사되었다.

〈부표 Ⅰ-8〉 비형식교육여부*정치관심 교차표

			정치관심		전체
			없다	있다	
비형식 교육 여부	미참여	빈도	4,524	4,781	9,305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8.6%	51.4%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77.4%	67.8%	72.2%
	참여	빈도	1,319	2,268	3,587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36.8%	63.2%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22.6%	32.2%	27.8%
전체		빈도	5,843	7,049	12,892
		비형식교육여부 중 비율	45.3%	54.7%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100.0%	100.0%	100.0%

형식, 비형식교육 참여여부와 부양가족 여부간의 관계는 〈부표 Ⅰ-9〉에 의하면,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3,802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80.4%,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중 어느 하나에도 참여하지 않은 성인학습자 9,090명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전체의 83.6%로 나타났다.

〈부표 Ⅰ-9〉 평생학습여부*부양가족 교차표

			부양가족		전체
			없다	있다	
평생학습 여부	미참여	빈도	1,491	7,599	9,090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16.4%	83.6%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66.7%	71.3%	70.5%
	참여	빈도	744	3,058	3,802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19.6%	80.4%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33.3%	28.7%	29.5%
전체		빈도	2,235	10,657	12,892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17.3%	82.7%	100.0%
		부양가족 중 비율	100.0%	100.0%	100.0%

직업군과 형식, 비형식교육 참여 여부 간의 관계는 〈부표 Ⅰ-10〉에 따르면, 형식,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2,573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47.7%, 서비스 및 판매직

종은 25.0%,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26.6%,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형식교육에 미참여한 6,148명 중 관리자 및 사무직종은 33.6%, 서비스 및 판매직종은 33.0%,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은 32.8%, 직업군인 등 기타직종은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Ⅰ-10〉 평생학습여부*직업군 교차표

			직업군				전체
			관리자 및 사무직종	서비스 및 판매직종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노무직종	기타직종	
평생학습여부	미참여	빈도	2,064	2,026	2,014	44	6,148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33.6%	33.0%	32.8%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62.7%	75.9%	74.6%	71.0%	70.5%
	참여	빈도	1,228	642	685	18	2,573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47.7%	25.0%	26.6%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37.3%	24.1%	25.4%	29.0%	29.5%
전체		빈도	3,292	2,668	2,699	62	8,721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37.7%	30.6%	30.9%	0.7%	100.0%
		직업군 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정치관심의 관계는 〈부표 Ⅰ-1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총 3,802명 중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63.2%로 나타났고, 비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학습자 9,090명 중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48.9%로 조사되었다.

〈부표 Ⅰ-11〉 평생학습여부*정치관심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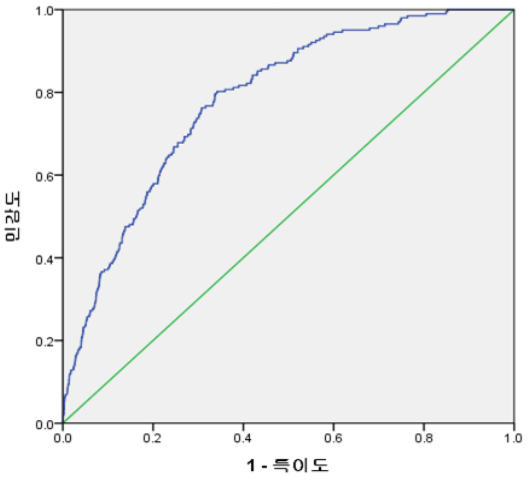
			정치관심		전체
			없다	있다	
평생학습 여부	미참여	빈도	4,445	4,645	9,090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48.9%	51.1%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76.1%	65.9%	70.5%
	참여	빈도	1,398	2,404	3,802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36.8%	63.2%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23.9%	34.1%	29.5%
전체		빈도	5,843	7,049	12,892
		평생학습여부 중 비율	45.3%	54.7%	100.0%
		정치관심 중 비율	100.0%	100.0%	100.0%

나. 평생학습 참여 요인 분석

1) ROC 곡선 분석

평생학습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절의 분석에서 설정한 각 모델들의 예측 효율성을 판단하는 분석의 일환으로 ROC 곡선(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ROC 곡선 분석은 평생학습 참여 여부의 예측에서 설정된 모델이 실제 참여자를 참여로 예측하는 정도인 민감도와 실제 미참여자를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특이도의 비율을 통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예측 정도를 그림과 유의확률로 나타내어 주는 분석 방법이다(이희연·노승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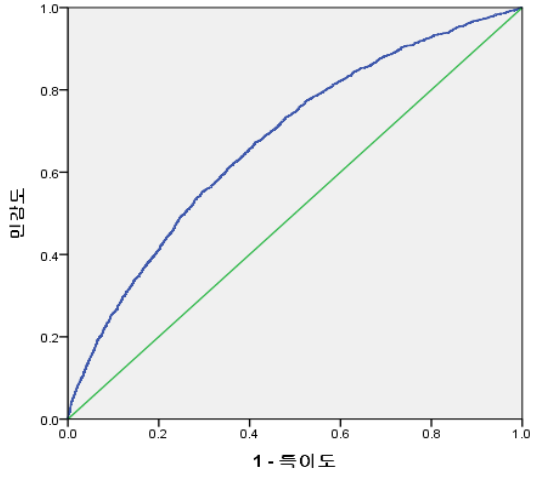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은 최대값이 1로서 예측력이 100%인 경우를 의미하며,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예측도가 점점 높아짐을 의미한다. 아래의 〈부표 Ⅰ-12〉, 〈부표 Ⅰ-13〉, 〈부표 Ⅰ-14〉는 형식, 비형식, 형식 또는 비형식 모델의 예측력이 67.6~78.4%의 범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활용된 개별 변수들은 모형별 참여 결정 요인들을 비교적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형식, 비형식,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의 참여 요인은 모델에서 유의확률과 승산(odds)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부표 그림 Ⅰ-1]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형식교육 모형)

〈부표 Ⅰ-12〉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형식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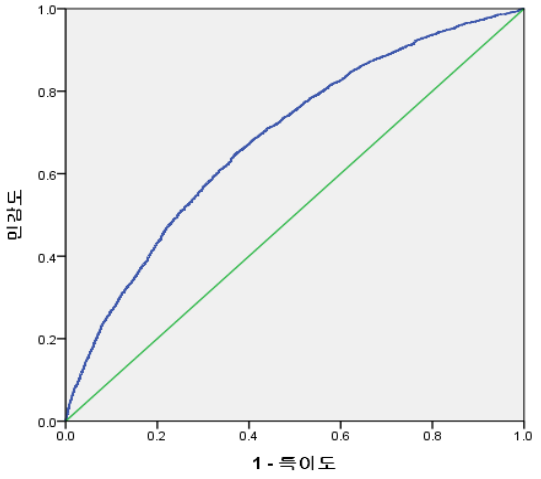
영역	표준오차a	근사유의확률b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784	.014	.000	.756	.813



[부표 그림 Ⅰ-2]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비형식교육 모형)

〈부표 Ⅰ-13〉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비형식교육 모형)

영역	표준오차a	근사유의확률b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676	.006	.000	.663	.688



[부표 그림 Ⅰ-3] ROC 곡선에 의한 모델 적합도 검증(형식/비형식교육 모형)

〈부표 Ⅰ-14〉 ROC 곡선 아래 영역 검정결과(형식/비형식교육 모형)

영역	표준오차a	근사유의확률b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685	.006	.000	.673	.697

2) 형식, 비형식,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참여 요인 분석

아래의 〈부표 Ⅰ-15〉는 형식교육에 참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들은 2013년을 기준으로 형식교육에 있어 성별, 연령, 부양가족 여부 등의 개인적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학력, 아버지 학력, 직업 등이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과 관련된 거주지나 평생학습도시 여부 등은 형식교육에의 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배경으로서 학습 태도도 형식교육의 참여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유발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관심,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정도와 같은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은 형식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교육 참여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졸이하의 학력과 비교했을 때에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에 정치에 관심이 있고, 평생학습에 대해 효능을 높게 인식하는 성인학습자가 보다 더 형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45세 이상의 고령자, 부양가족이 있는 학습자, 관리자 및 사무직종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과 기능 직업군, 사회기관에 신뢰도가 높은 성인학습자가 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교육에 참여할 승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력으로 나타났는데,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성인학습자보다 고졸 학습자는 4.1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성인학습자는 4.9배 승산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승산비를 기준으로 형식교육 참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은 학력, 성별, 평생학습에 대한 효용도 인식, 정치관심 등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Ⅰ-15〉 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별	.556	.151	13.590	1	.000	1.744
45~54세	-.516	.198	6.813	1	.009	.597
55~64세	-.739	.329	5.043	1	.025	.477
부양가족	-.411	.164	6.262	1	.012	.663
고졸	1.414	.615	5.276	1	.022	4.111
대졸이상	1.588	.627	6.402	1	.011	4.892
부 학력_대학이상	.569	.190	8.979	1	.003	1.767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647	.195	11.055	1	.001	.523
기능 직업군	-.880	.266	10.995	1	.001	.415
정치관심	.410	.162	6.401	1	.011	1.506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101	.044	5.354	1	.021	.904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591	.103	32.610	1	.000	1.806
상수항	-6.646	.766	75.187	1	.000	.001

아래의 〈부표 Ⅰ-16〉은 비형식교육에 참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들은 2013년을 기준으로 비형식교육에 있어 성별만이 개인적 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학력, 소득(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직업 등이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달리 거주지와 평생학습도시 여부의 지역 요인이 모두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배경으로서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도 형식교육과 달리, 비형식교육의 참여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형식교육과 유사하게 정치관심,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정도가 비형식교육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 및 행복도가 형식교육의 참여와 달리 비형식교육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형식교육 참여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졸이하의 학력과 비교했을 때에 고졸 학력자는 차이가 없으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거주지가 서울 및 광역시인 경우와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는 학습자, 정치 관심이 높은 학습자, 평생학습의 효능도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상대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기능 직업군, 평생학습도시에 거주하는 성인학습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비교 준거 집단에 비해 비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할 승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로 나타났다. 즉, 형식교육과 달리 비형식교육은 보다 자발성과 동기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비형식교육에의 참여 확률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승산비를 기준으로 비형식교육 참여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주는 요인은 학습 태도, 거주 지역, 학력, 평생학습에 대한 효능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승산비의 크기는 형식교육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Ⅰ-16〉 비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별	.176	.053	10.918	1	.001	1.192
대졸이상	.394	.060	42.772	1	.000	1.483
소득 500만원 이상	.142	.059	5.858	1	.016	1.153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315	.067	22.331	1	.000	.730
기능 직업군	-.172	.072	5.638	1	.018	.842
농어촌 지역	.412	.067	37.768	1	.000	1.510
평생학습도시	-.173	.051	11.573	1	.001	.841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459	.109	17.733	1	.000	1.582
정치관심	.340	.054	40.262	1	.000	1.405
삶의 만족 및 행복도	.140	.017	64.231	1	.000	1.150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397	.036	119.467	1	.000	1.487
상수항	-3.667	.184	397.887	1	.000	.026

아래의 〈부표 Ⅰ-17〉은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들은 2013년을 기준으로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있어 성별, 연령 등이 개인적 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학력, 소득(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직업 등이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연령을 제외하면,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 요인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비슷하게 거주지와 평생학습도시 여부의 지역 요인이 모두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배경으로서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정치관심, 삶의 만족 및 행복도,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정도가 비형식교육의 참여 요인과 공통적으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 참여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만의 참여 여부와는 달리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 모두를 고려했을 때, 25~34세의 연령대에 있는 성인학습자와 비교하여 45~54세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는 평생학습 참여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학력과 비교했을 때에 고졸 학력자는 차이가 없으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거주지가 서울 및 광역시인 경우와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적극적인 학습태도

를 보이는 학습자, 정치 관심이 높은 학습자, 삶의 만족 및 행복도가 높으며, 평생학습의 효능도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상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기능 직업군, 평생학습도시에 거주하는 성인학습자들은 앞서 비형식교육만의 참여 여부 모형과 같이 오히려 상대적인 비교 준거 집단에 비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할 승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승산비를 기준으로 형식이든 비형식교육이든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주는 요인은 학습 태도, 거주 지역, 학력, 평생학습에 대한 효능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승산비의 크기는 형식교육만의 참여 모형에서와 비교할 때 비형식교육 참여 모형과 비슷하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Ⅰ-17〉 형식/비형식교육의 참여요인 모형 분석 결과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별	.220	.053	17.291	1	.000	1.247
45~54세	-.141	.055	6.587	1	.010	.869
고졸	.194	.083	5.459	1	.019	1.214
대졸이상	.555	.092	36.495	1	.000	1.741
소득 500만원 이상	.197	.058	11.414	1	.001	1.217
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340	.066	26.670	1	.000	.712
기능 직업군	-.179	.073	5.964	1	.015	.836
농어촌 지역	.404	.068	35.816	1	.000	1.498
평생학습도시	-.162	.050	10.344	1	.001	.850
적극적 학습 태도 정도	.518	.110	22.130	1	.000	1.679
정치관심	.334	.053	39.375	1	.000	1.396
삶의 만족 및 행복도	.132	.017	58.779	1	.000	1.141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	.420	.036	134.956	1	.000	1.522
상수항	-3.767	.195	374.462	1	.000	.023

3. 논의 및 시사점

가. 논의

본 절에서는 201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형식, 비형식,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ROC 곡선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평생학습의 참여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객관적 배경과 주관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 요인 등을 객관적 배경 요인으로, 학습태도,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 요인 등을 주관적 배경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형식, 비형식,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의 참여 여부와 부양가족 여부, 직업군, 정치관심 정도의 요인을 기준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형식교육의 참여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학습자가 57.5%, 관리자 및 사무직종군이 67.3%,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의 참여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학습자가 81.9%로 오히려 형식교육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관리자 및 사무직종군이 47.0%,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6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이든 비형식교육이든 참여하는 평생학습 전체 참여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학습자는 80.4%, 관리자 및 사무직종군이 47.7%,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63.2%로 비형식교육의 경우와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식교육 참여자가 381명에 지나지 않아 세 번째의 전체 평생학습 참여자 모형이 비형식교육의 참여자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자녀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 비중이 형식교육 참여자의 57.5%,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평생학습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은 본 절의 분석을 통해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와는 구별되게 드러난 측면이다. 상대적으로 우월 직업군이라고 평가되는 관리자 및 사무직종의 성인학습자가 대체로 평생학습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별 요인과 평생학습 참여 간의 교차 분석 결과는 모든 참여 요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 모형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먼저 비형식교육 참여 여부 모형(모형 Ⅱ)과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 참여 여부 모형(모형 Ⅲ)은 형식교육 참여자의 표본수가 전체 표본수에 비해 극히 작은 관계로 참여 요인에 있어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 했던 성인학습자는 비형식교육 모형에서와는 달리, 45~54세 연령대의 학습자의 참여 확률이 25~34세 연령대 학습자와 비교하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학습 전체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학력의 분기점이 고졸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구별된다. 나머지, 여성과 소득 500만원 이상, 관리자 및 사무직종, 학습 태도,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정치 관심, 삶의 만족 및 행복도,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에 따라 평생학습 전체와 비형식교육 참여 자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참여 요인으로 공통적인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여성(성별), 학력(비형식교육은 대졸 이상, 형식교육은 고졸 이상부터 영향), 정치에 대한 관심, 평생학습의 효능도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참여에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직업(서비스 및 판매 직업군, 기능 직업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형식교육에 있어 비형식교육의 참여 요인과 다른 부분은 형식교육은 45세 이상의 고령대로 갈수록 참여 확률이 떨어지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형식교육의 참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형식교육에 대한 참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향후 이 두 변수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형식교육에 있어 형식교육의 참여 요인과 다른 부분은 지역 요인이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들보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에 사는 경우 오히려 비형식교육에의 참여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도시의 거주자들이 왜 비형식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 등의 각 모형에서 나타난 참여 결정 요인으로 공통적인 것은 성별, 학력, 직업, 정치에 대한 관심, 평생학습의 삶의 질에 대한 효능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시사점

본 절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평생학습 참여 진작을 위한 정책 및 후속적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별은 평생학습의 참여 여부에 공통적인 영향 요인이므로, 특히 남성을 위한 형식, 비형식교육에 대한 제공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식교육은 오히려 남성들이 참여할 확률이 비형식교육에의 참여 확률을 성별로 비교하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장에 속해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계약학과 확대 등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남성 학습자의 참여 진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이 평생학습의 참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교육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우대책이나 프로그램 정보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비형식교육에의 참여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성인학습자들도 대졸 이상의 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학별 정도별 차별화된 평생학습 확대 전략이 필요하고, 향후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집단별로 구성할 때, 남성과 여성, 학력에 있어 취약계층에 있는 성인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기획할 필요성도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평생학습에의 취약계층(남성, 저학력)에 대한 참여 부진의 심층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운실 외(2005)은 남성과 여성, 성인의 연령별(초기, 중기, 후기), 고학력층과 저학력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별로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학습자들의 선호 조사를 상시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 평생학습 수요자들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돈민 외(2008)에서도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무직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저학력 참여자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유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무직종에 있는 성인학습자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 직종,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농어업, 기계, 기능직종에 있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이들이 겪고 있는 평생학습에의 참여 저해 요인이 우선적으로 분석되고, 이 후 이들을 위

한 수강비, 수강시간, 수강을 위한 정보접근성 확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학습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홍보를 위해 실제 평생학습 유경험자 중 삶의 질의 향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4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형식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에 성공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통해 누구나 평생 학습의 기회는 열려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기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평생학습의 참여 진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절의 분석 결과에서 객관적 배경 못지않게 사회 및 삶에 대한 인식과 학습 태도도 평생학습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이미 확인한 데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절의 분석 결과 나타난 평생학습도시의 거주 여부와 비형식교육에의 참여 여부간의 부적 영향 관계, 각종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진작시키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평생학습에의 참여라는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성과나 참여 여부와는 달리 보다 많은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견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도 등이 평생교육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보다 신뢰로운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부록 2-1]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 약 26개 법령, 30개 내외 기관

○ 법령 또는 설치 목적상 “교육” 또는 “연수”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학습계좌제와 연동된 기관 및 시설에 한정

〈부록표 1〉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비고
공무원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	·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기관
국방부(육,해,공군)	군인복무규율 제2조	·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기관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비고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인정 기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기관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등록 기관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등록 기관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주된 사업'에 교육기능이 명시된 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위탁지정 기관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비고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여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 기관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비고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문화원설립인가 기관
지정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기관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록 기관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	
공동주택 이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시설*	주택법	· 공동주택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입주자 대상 각종 분쟁 관련 교육	소위 '학원법'의 학원으로 제외된 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소위 '학원법'의 학원으로 제외된 교육시설
연수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시설(주로 사내 연수원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	"연수원" 관련 법률 총 97건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관(학습계좌제 포함), 경로당, 노인교실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 위 기관 유형은 학습계좌제 대상 기관임. 단, *표는 제외.

[부록 2-2]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부록표 2〉 시·도별 팽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조사대상	KEDI (2013.5.)	서울 (2013.5)	경남 (2013.12.)	경북 (2013.12.)	대구 (2012)	부산 (2011.3)	부산 (2014.5)	경기 (2012)	인천 (2013.5)	강원 (2014.8.)	전남 (2014.6)	대전 (2013)	충북 (2013.10)	울산 (비정기조사)
평생 교육법	학교운영			○		○	○	○				○	○	○	○
	학교부설	○	○	○	○	○	○	○	○	○	○	○	○	○	○
	(유초중등부설)	○	○							○	○				
	(대학부설)	○	○	○						○	○				
	원격형태	○	○	○	○	○	○	사이버관련 학습시설	○	○	○	○	사이버관련 학습시설	사이버관련 학습시설	사이버관련 학습시설
	사업장부설	○	○	○	○	○	○	○	○	○	○	○	○	○	○
	(유통업체 부설)	○	○							○					
	(산업체부설)	○	○							○					
	시민사회단체부설	○	○	○	○	○	○	○	○	○	○	○	○	○	○
	언론기관부설	○	○	○	○	○	○	○	(사업장 부설에 포함)	○	○	○	○	○	○
	지식인력개발형태	○	○	○	○	○	○	○	○	○	○	○	○	○	○
	평생학습관(시·군·구)	○	○	○	○	○	○	세분류	○	○	○	○	세분류	세분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센터(읍면동)												○		
학교 형태	초중등교육형태	○	○		○	○	○	○			○				
	고등교육형태	○	○												
	(사내대학)	○				○	○	○			○		○	○	○
	(원격대학)	○		(원격형태)	(원격형태)	(원격형태)	(원격형태)	○			○	(원격형태)	○	○	○

	조사대상	KEDI (2013.5.)	서울 (2013.5)	경남 (2013.12.)	경북 (2013.12.)	대구 (2012)	부산 (2011.3)	부산 (2014.5)	경기 (2012)	인천 (2013.5)	강원 (2014.8.)	전남 (2014.6)	대전 (2013)	충북 (2013.10)	울산 (비정기조사)
기타 법령	도서관		○	문화관련 시설	○	○	○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박물관·미술관		○		○	○	문화시설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청소년기관		○	○	○	○	○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여성관련기관		○	○	○	○	○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복지관		○		○	○	○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노인복지관)			○				○					○	○	
	(아동복지관)			○				○					○	○	
	(사회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관)							○					○	○	
	(자활자립)							○							
	다문화관련시설/단체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
	시민사회단체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
	문화관 (문화예술시설및단체)		○		○	○	○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직업훈련기관		○		○	○	○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
	공공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평생교육 센터				주민센터 (세분류)	주민센터	주민센터 (세분류)	세분류		주민센터 (세분류)	주민센터 (세분류)	주민센터
	기타기관		○	농업기술원 자치구 시설		자치구 시설		세분류	기타	기타 (세분류)	세분류	○	세분류	세분류	기타

[부록 2-3] 평생교육 기관조사 개선을 위한 FGI 질문지

Ⅰ. 면담 목록

1.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생교육통계 조사

1) 지방자치단체(혹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통계를 조사·수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1)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통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이와 관련하여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1-3)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 내 분위기 및 의사(정책)결정자(기관)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2) 지방자치단체(혹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하는 평생학습기관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2-1) 이 중 고등교육 관련 평생학습기관은 무엇입니까?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3) 자체 조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체 조사 방식은 어떠합니까?

5) 자체 조사와 관련한 인력, 조직, 법적 기반 등은 어떠합니까?

6) 자체 조사 관련 애로 사항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 평생학습기관 범위
- 조사 내용
- 조사 방식
- 인력, 조직, 법적 기반 등

2. KEDI 평생교육통계 조사

1)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할 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평생교육통계 조사기관을 확대한고 할 때, 예상되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 평생교육통계 조사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영역 구분
- 조사항목(수정, 삭제, 추가) 등

4) 평생교육통계 조사 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조사체계 및 운영방식
- 조사 및 입력 방식 등

3. 지방자치단체-KEDI 통합조사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조사대상 기관과 KEDI 기관조사 항목 간 조응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2) 지방자치단체-KEDI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력 현황, 조사주체, 조사방식, 조사내용, 조직, 예산, 법적 기반 등

3) 지방자치단체-KEDI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데이터의 관리 및 데이터 피드백(오류보고 및 수정)에 관한 절차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의 활용

1) 지방자치단체(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관련하여 생산 또는 활용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조사 경험이나 활용된 경험(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조사항목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Ⅱ. 요청 자료

1. 각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조사 양식, 매뉴얼, 조사지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하지 않을 시 해당 지역 기관 차원 조사 수집)

2. 각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조사 결과, 통계자료집 등

- 감 사 합 니 다 -

[부록 2-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1차 FGI 질문지

Ⅰ. 면담 목록

1.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목적

1)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말씀해주신 목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말씀해주신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사 내용은 무엇입니까?(전반적인 항목 추가, 개선, 삭제 등)

2. 평생학습의 범위와 유형 분류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정의, 범위 및 유형 분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형식교육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과정 ② 대학교(2,3학년대학)
③ 대학교(4년제 대학) ④ 방송통신대학교
⑤ 사이버대학교 ⑥ 대학원(석사·박사)

1-2-1) 비형식교육(참여형태)

① 일정한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⑤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1-2-2) 비형식교육(프로그램 유형)

① 학력보완교육 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④ 인문교양교육 ⑤ 문화예술스포츠교육 ⑥ 시민참여교육

〈참조〉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 실태조사에서의 비형식교육 유형 구분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EU 성인교육조사 (Adult Education Survey, AES)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년 : 내용중심〉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교육활동영역 기준 ① 성인기초 및 문해 해득교육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인문교양교육 ④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⑤ 시민참여교육	① 일반교육과정(언어, 컴퓨터, 운전, 경영, 조리, 원예나 회화 등) ② 워크숍이나 세미나 ③ 고용주가 고용한 강사를 통한 직업교육 ④ 강사나 개인 교사를 통한 유로 개인교습	① 이러닝이나 원격 강좌, 사이버 학습을 통한 강좌 ② 업무 수행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훈련 또는 상사나 동료가 진행하는 교육 ③ 세미나 또는 워크숍 ④ 기타 강좌 또는 개인 교습
〈2014년 개선 : 형식중심〉 ①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 동아리) ⑤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1-3) 무형식학습 : 자기주도학습, 기타 등

2) 위에서 제시한 분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위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통계 생산의 관점(통계의 신뢰성과 타당도)에서 적절합니까?

4) 이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국제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합니까?
- 조사의 용어, 개념, 분류 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성, 비교 가능성

5) 이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3. 조사영역별 개선 사항

가. 평생학습 참여 유형별 조사 내용

1) 형식교육
- 참여여부, 참여교육과정, 교육시간, 참여목적, 학습비 및 외부지원

2) 비형식교육
- 참여여부, 참여프로그램수, 프로그램 유형, 기관 유형, 직업관련 목적 여부, 연간참여시간, 개인부담 학습비,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 기관,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주요 수강 시간대,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과정

3) 무형식학습
- 참여여부, 교육성과, 참여정도

나. 학습 환경 관련 문항

1)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평생학습 참여 학습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 장애요인 :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참여 여부, 프로그램 유형, 참여 장애요인
- 접근성 : 정보접근여부, 정보획득여부, 정보획득방법, 정보 미획득 사유

다.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학습활동 / 사회참여 인식

1) 학습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학습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 사회적 성과

1) 학습의 사회적 성과로 제시된 영역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응답자 배경

1) 수정, 삭제, 보완, 추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까?

바. 조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1)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을 통계 생산의 관점(통계의 신뢰성과 타당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2)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을 국제비교 가능성 및 우리나라 특수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4. 조사 활용도 개선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원자료 또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1-1) 조사자료(원자료)의 제공 방식은 적절합니까?
1-2) 조사결과가 제대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1-3) 현재 조사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빈번하게 활용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1-5)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제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 방식
- 조사 규모
- 타 조사/기관과의 연계
- 표본의 대표성 등

5. 추가 질문 사항

1) 부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향후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혹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1-1) 목적
1-2) 조사 대상 및 방식
1-3) 주요 영역 분류
1-4) 주요 조사 내용
1-5) 활용 계획 등

- 감 사 합 니 다 -

[부록 2-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2, 3차 FGI 질문지

Ⅰ. 면담 목록

1.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목적

1)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목적- (국제 비교 등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2) 말씀해주신 목적이 왜 중요합니까?

3) 말씀해주신 목적에 비추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어떤 지표(또는 내용)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행 '2014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개선 관련

1) 현행 '2014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장점들은 무엇입니까?

2) 현행 '2014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단순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둠, 국가 평생교육 정책상의 시사점 도출 어려움.

3)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개인실태 조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실태 조사] 전반에 대한 부분
[I. 참여실태 A. 형식교육] 부분
[I. 참여실태 B. 비형식교육] 부분
[I. 참여실태 C. 무형식학습] 부분

[II. 학습환경 D. 장애요인] 부분

[II. 학습환경 E. 접근성] 부분

[III. 학습활동 F. 학습패턴. G. 학습에 대한 태도] 부분

[IV. 사회 참여 및 인식 H. 사회 참여 및 인식] 부분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부분

[가구원 현황,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일시, 표본추출(표본의 대표성), 타 조사 기관과의 연계기타] 부분

3. 평생학습의 범위와 유형 분류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정의, 범위 및 유형 분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형식교육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과정 ② 대학교(2,3학년대학)

③ 대학교(4년제 대학) ④ 방송통신대학교

⑤ 사이버대학교 ⑥ 대학원(석사·박사)

1-2-1) 비형식교육(참여형태)

① 일정한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⑤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1-2-2) 비형식교육(프로그램 유형)

① 학력보완교육 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④ 인문교양교육 ⑤ 문화예술스포츠교육 ⑥ 시민참여교육

〈참조〉 국내·외 주요 평생교육 실태조사에서의 비형식교육 유형 구분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EU 성인교육조사 (Adult Education Survey, AES)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년 : 내용중심〉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교육활동영역 기준 ① 성인기초 및 문해 해득교육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③ 인문교양교육 ④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⑤ 시민참여교육	① 일반교육과정(언어, 컴퓨터, 운전, 경영, 조리, 원예나 회화 등) ② 위크숍이나 세미나 ③ 고용주가 고용한 강사를 통한 직업교육 ④ 강사나 개인 교사를 통한 유로 개인교습	① 이러닝이나 원격 강좌, 사이버 학습을 통한 강좌 ② 업무 수행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훈련 또는 상사나 동료가 진행하는 교육 ③ 세미나 또는 워크숍 ④ 기타 강좌 또는 개인 교습
〈2014년 개선 : 형식중심〉 ①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②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③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④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 동아리) ⑤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1-3) 무형식학습 : 자기주도학습, 기타 등

2) 위에서 제시한 분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위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통계 생산의 관점(통계의 신뢰성과 타당도)에서 적절합니까?

4) 이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국제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합니까?
- 조사의 용어, 개념, 분류 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성, 비교 가능성

5) 이와 같은 분류와 정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특수성과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일반성 고려
-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평생교육 실태의 반영 정도
- 추가, 보완될 것은?

4. 주요 쟁점 관련

1) **평생학습 분류:** 현 연구진은 향후 위와 같은 평생학습의 분류 방식에서 형식과 비형식 학습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Jarvis의 분류 상 형식학습 영역 A에 초점을 둠
- 기존 분류에서 무형식학습 영역 제외 (현 조사에는 수많은 무형식학습 중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음)

2) **평생학습 참여성과:** 개인차원에서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성과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3) **학습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개인, 기관, 국가)

4) 기타:
- 국제비교 가능성 및 우리나라 특수성 측면
-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 감 사 합 니 다 -

[부록 2-6]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수정(안)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여부	수정내용
가구원 현황		H1. 성명		
		H2. 가구주와의 관계		
		H3. 성별		
		H4. 출생 년/월/일	○	만 연령 기재로 대체
		H5. 종교유무	○	삭제
		H6. 월평균 가구소득		
		H7. 가구원 구분		
		H8. 최종학력(만 65세 이상만)	○	삭제
		H9. 현재 경제활동 상태(만 65세 이상만)	○	삭제
		H10-1. 평생교육 참여여부(만 65세 이상만)	○	삭제
		H10-2. 평생교육 형태(만 65세 이상만)		삭제
		H11. 개인연락처		
Ⅰ.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A1. 참여여부		
		A1-1. 참여교육과정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A2. 교육시간		
		A3. 참여목적	○	참여목적 5개 항목으로 구체화
		A4. 학습비 및 외부지원		
		A5. 교육성과	○	A3에서 선택한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움의 정도를 선택
	B. 비형식 교육	B1. 참여여부	○	학습동아리 별도 항목으로 파악
		B2. 참여프로그램수	○	삭제
		B3. 참여프로그램유형	○	참여프로그램명 및 프로그램 구분으로 수정
		B3. 참여교육기관유형	○	기관명 및 기관별 구분으로 수정
		B3. 직업관련목적 여부	○	형식 교육의 5개 목적과 동일
		B3. 연간참여시간	○	프로그램 참여시간으로 수정
		B3. 개인부담 학습비	○	월비용으로 수정
		B3.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B3.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여부	수정내용
		B3. 주요수강 시간대		
		B3.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도움여부로 수정
		B4. 교육성과	○	B3로 대체
	C. 무형식 학습	C1. 참여여부	○	삭제
		C1. 교육성과	○	삭제
		C2. 참여 정도	○	삭제
Ⅱ. 학습 환경	D. 장애 요인	D1.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D1-1.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	삭제,
		D1-2. 향후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	삭제,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형으로 수정하고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자와 미참여자 구분없이 응답
		D1-3. 참여 원했던 교육 프로그램	○	삭제
		D1-4. 참여 장애요인	○	미참여 및 중도탈락 이유 문항 추가
	E. 접근성	E1. 정보접근여부	○	삭제
		E1-1. 정보획득여부	○	삭제
		E1-1-1. 정보획득방법		
		E1-1-2. 정보 미획득 사유	○	삭제
Ⅲ. 학습역량	F. 학습 역량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	삭제
		F2. 외국어 사용 빈도	○	삭제
		F3. 인터넷 활용 빈도	○	삭제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	삭제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	삭제
Ⅳ. 사회 참여 및 인식	G. 사회 참여 및 인식	G1. 자원봉사 참여		
		G2. 대인간 신뢰	○	삭제, ELLI, CLI 참고로 수정
		G3. 타인에 대한 인식	○	〃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것의 중요성	○	〃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	〃
		G6. 정치적 관심	○	〃
		G7. 정치적 참여여부	○	〃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여부	수정내용
		G8. 기관 신뢰도	○	삭제, ELLI, CLI 참고로 수정
		G9. 생활 만족도	○	〃
		G10. 전반적 행복도	○	〃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	〃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	〃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	〃
		G14. 고용안정 성과도	○	〃
		G15. 삶의 질 향상도	○	〃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	〃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1. 최종학력		
		DQ2. 부모 최종학력	○	삭제
		DQ3. 혼인상태	○	삭제
		DQ4. 자녀유무	○	삭제
		DQ4-1. 막내자녀 연령		
		DQ4-2. 육아형태		
		DQ5. 경제활동상태		
		DQ6. 고용형태		
		DQ6-1. 상용근로자(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DQ6-2. 전일제/시간제		
		DQ7. 직업구분	○	통계청 직업분류에 따라 직업 종류 수정
		DQ8. 직장규모	○	GOMS 자료 비율에 따라 급간 수정
		DQ9. 직장근무기간과 월 평균소득	○	급간을 설정하여 선택하도록 수정

[부록 2-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세부 수정(안)

	기존	수정	사유
조사 대상 가구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가구원	만 25세 이상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연령만 체크한다면 기존 만 25세 이상~만 64세 이하 인구 간 비교도 가능함(단,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

	항목	수정	사유
가구원 현황	H1. 성명		
	H2. 가구주와의 관계		
	H3. 성별		
	H4. 출생 년/월/일	만 연령 기재로 수정	응답자의 나이를 알기위한 항목이므로 만 연령으로 대체
	H5. 종교유무	삭제	
	H6. 월평균 가구소득		
	H7. 가구원 구분		
	H8. 최종학력(만 65세 이상만)	삭제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을 통해 파악
	H9. 현재 경제활동 상태(만 65세 이상만)	삭제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을 통해 파악
	H10-1. 평생교육 참여여부(만 65세 이상만)	삭제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을 통해 파악
	H10-2. 평생교육 형태(만 65세 이상만)	삭제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을 통해 파악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Ⅰ.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A1. 참여여부			
		A1-1. 참여교육과정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A2. 교육시간			
		A3. 참여목적	참여 동기 구체화 및 성과와의 연계성	A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A1-1)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과 관련된 이유로(현재 직무 및 차후 희망직업 포함) ① 직업과 무관한 이유로	A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A1-1)에 참여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 ②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③ 직업능력 및 고용안정 ④ 사회참여 ⑤ 친목도모
		A4. 학습비 및 외부지원			
		A5. 교육성과	참여 동기와 성과와의 연계성을 위해 A3와 연동되도록 항목 수정	A5. 귀하께서 지난 1년 간 참여한 형식교육 경험이 다음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각 항목별 5점척도 중 선택) 1) 육체적 건강 유지 2) 정신적 건강 또는 심리적 만족 3)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4)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5)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6)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7) 고용안정	A5. 귀하께서 지난 1년 간 참여한 교육과정이 참여목적(A3)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8) 시민의식(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등) 증진 9) 지역사회참여(투표, 축제, 지역 내 행사 등) 증가 10) 사회적 상호작용(사교모임, 동호화 등) 증진	
	B. 비형식 교육	B. 비형식교육	학술적인 용어는 되도록 배제하고, 비형식 교육 참여 예시는 아래에 별도로 제시되므로 설명에서는 삭제	비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고등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직장에서 받은 직무연수나 특강, 학원 수강,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수강, 학습 동아리, 개인교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형식교육이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과 학습활동을 말합니다.(일회성 행사 참여는 제외)
		B1. 참여여부	학습동아리 별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요청 반영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2)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3)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4)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5)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2)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3)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모바일앱 포함) 4)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5) 학습동아리 6)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B2. 참여프로그램수	응답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위해 기간을 '지난 1년→1개월'로 한정하고 B3에 통합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카테고리 내에서 참여 프로그램의 개수 기입	삭제
		B3. 참여프로그램유형	지난 1개월 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명을 기입	프로그램 유형(보기 1~22번 중 선택)	프로그램명(실제 지난 1달간 참여한 프로그램명을 기입하도록 함) 및 프로그램 구분
		B3. 참여교육기관유형	지난 1개월 간 참여한 프로그램의 기관명을 기입	기관유형(보기 1~17번 중 선택)	기관명(실제 지난 1달간 참여한 프로그램의 기관명을 기입하도록 함) 및 기관별 구분
		B3. 직업관련목적 여부	형식교육의 참여목적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일관성 확보	직업관련목적	①건강, ②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③직업능력 및 고용안정, ④사회참여, ⑤친목도모 5개 목적 제시하여 프로그램별 참여목적을 선택하도록 함
		B3. 연간참여시간	지난 1개월 간 프로그램별 참여시간을 기입	연간참여시간 *계산식 활용	프로그램 참여시간(월간참여시간)
		B3. 개인부담 학습비	지난 1개월 간 프로그램별 참여비용을 기입	자기부담 학습비	월비용
		B3.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B3.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B3. 주요수강 시간대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B3.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도움여부로 수정하고 앞에서 선택한 프로그램별 참여목적과 연동되도록 함
		B4. 교육성과	참여 동기와 성과와의 연계성을 위해 B3와 연동되도록 항목 수정	B4. 귀하께서 지난 1년 간 참여한 비형식교육 경험이 전반적으로 다음 각 항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각 항목별 5점척도 중 선택) 1) 육체적 건강 유지 2) 정신적 건강 또는 심리적 만족 3)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4)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5)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6)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7) 고용안정 8) 시민의식(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등) 증진 9) 지역사회참여(투표, 축제, 지역 내 행사 등) 증가 10) 사회적 상호작용(사교모임, 동호화 등) 증진	삭제(B3의 프로그램 도움여부로 대체)
	C. 무형식 학습	C1. 참여여부	무형식학습 제외		삭제
		C1. 교육성과	무형식학습		삭제
		C2. 참여 정도	무형식학습 제외		삭제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Ⅱ. 학습 환경	D. 장애요인	D1.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D1-1.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미참여자와 중도탈락자 모두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정	D1-1. 귀하께서는 참여하고 싶었던 교육이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라도 참여하였으면 '① 예'로 응답하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삭제
		D1-2.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형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형으로 수정하고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자와 미참여자 구분없이 응답
		D1-3. 참여 원했던 교육 프로그램			삭제
		D1-4. 참여 장애요인	미참여자와 중도탈락자 모두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정, 참여 장애요인이 가장 알고자 하는 정보이므로 D1-4 보기를 정리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구분(형식교육, 비형식교육)별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에 기입하도록 함 D1-4. [D1-1. '② 아니오' 응답자] 귀하께서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①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②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회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④ 근무시간과 겹쳐서 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⑥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⑦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⑧ 시	표에 기입하도록 하지 말고 따로 문항을 떼어내서 선택하도록 함. 보기 내용을 정리하여 유형화하여 제시, 심리적/외부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D1-4. 귀하께서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① 동기, 자신감 부족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④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⑤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⑥ 희망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⑦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간이 없어서(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 ⑨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 ⑩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⑪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중도탈락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 추가 D1-4. [중도탈락자 보기] ①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②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③ 당초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달라서(프로그램 정보 오류) ④ 프로그램 수준이 맞지 않아서(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E. 접근성	E1. 정보접근여부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E1-1. 정보획득여부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E1-1-1. 정보획득방법			
		E1-1-2. 정보 미획득 사유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Ⅲ. 학습역량	F. 학습역량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F2. 외국어 사용 빈도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F3. 인터넷 활용 빈도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Ⅳ. 사회적 성과	G. 사회 참여 및 인식	G1. 자원봉사 참여			
		G2. 대인간 신뢰	ELLI, CLI 참고로 수정		G2. 자선단체 기부여부
		G3. 타인에 대한 인식	ELLI, CLI 참고로 수정		G3. 동아리(social club) 참여여부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ELLI, CLI 참고로 수정		G4. 사회단체, 정당에의 후원여부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G5. 타문화권에 대한 학습
		G6. 정치적 관심	ELLI, CLI 참고로 수정		G6. 지역사회 기관 접근성
		G7. 정치적 참여여부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8. 기관 신뢰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9. 생활 만족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0. 전반적 행복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4. 고용안정 성과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G15. 삶의 질 향상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ELLI, CLI 참고로 수정		삭제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1. 최종학력			
		DQ2. 부모 최종학력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DQ3. 혼인상태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DQ4. 자녀유무	불필요한 문항 삭제		삭제
		DQ4-1. 막내자녀 연령			
		DQ4-2. 육아형태			
		DQ5. 경제활동상태			
		DQ6. 고용형태			
		DQ6-1. 상용근로자(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DQ6-2. 전일제/시간제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수정 방향	기존	수정
		DQ7. 직업구분	통계청 직업분류에 맞게 수정하여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직업유형 제시	DQ7.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 노무종사자 ⑪ 직업군인 ⑫ 기타	DQ7.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성별 산업/직업별 취업자(대분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기타
		DQ8. 직장규모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GOMS 통계자료 비율에 따라 수정	DQ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19명 ③ 20~49명 ④ 50~99명 ⑤ 100~299명 ⑥ 100~299명 ⑦ 500~999명 ⑧ 1,000명 이상	DQ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49명 ③ 50~99명 ④ 100~299명 ⑤ 300명 이상
		DQ9. 직장근무기간과 월평균소득	응답자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기입 보다 급간선택으로 수정	DQ9.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과 세후 월평균 소득(임금 또는 사업소득만)은 얼마나 되십니까? 근무기간 __년 __개월, (세후) 월 평균 소득 ____만원	DQ9.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과 세후 월평균 소득(임금 또는 사업소득만)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부록 3] 델파이 전문가 의견 조사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만25세~만64세 이하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OECD회원 국가 간 평생학습 실태 비교·분석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변화 없이 조사가 이어져 현실적합성 있는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보다 정확한 평생학습 실태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성 높은 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대한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설문조사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토대로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지만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응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응답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설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 이메일 : psh75@kedi.re.kr ☎ 전화 : 02-3460-0498 (박성호, 연구책임자)
jiaren@kedi.re.kr 02-3460-0395 (설가인, 연구원)
sluvsek@kedi.re.kr 02-3460-0440 (서은경, 연구원)

2014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만 25~64세 우리나라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약 9,600명(5,890가구 표집, 1가구당 약 1.63명)

3. 조사일시 : 2014. 07. 01. ~ 08. 31.

4. 조사기준일 : 2013. 07. 01 ~ 2014. 06. 30.

5. 표본추출 : 층화 2단 추출법 적용

-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도 지역을 동지역 및 읍면지역(18개)으로 나눈 행정구역별로 1차 층화, 서울 및 광역시와 토 지역을 동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조사구)에 따라 세부 층화표집 실시(1차 추출단위: 조사구, 2차 추출단위: 각 표본조사구에서 정해진 표본크기만큼의 가구와 가구 내 24세~64세 가구원)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5

6. 조사방법 : 가구 방문 개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실시

7.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8. 학습범주의 정의

○ 평생학습 :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

○ 형식교육 :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 비형식교육 :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예; 고등학력보완교육, 직장에서 받은 직무연수나 특강, 학원수강,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수강,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

- 직업관련(job-related) 비형식교육 : 현재 또는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며, 소득을 증가시키고, 승진 기회 향상을 위한 참여 등 직업적 의도를 지닌 교육(훈련)·학습 활동을 말함

○ 무형식학습 :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과 교육프로그램또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로부터 배우는 비형식적 교육과 달리 학습자가 강사의 지도없이 자발적 혹은 우연한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경험을 포함함

※ 무형식학습은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자료] 201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항목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Ⅰ.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A1. 참여여부
		A1-1. 참여교육과정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A2. 교육시간
		A3. 참여목적
		A4. 학습비 및 외부지원
		A5. 교육성과
	B. 비형식교육	B1. 참여여부
		B2. 참여프로그램수
		B3. 참여프로그램유형
		B3. 참여교육기관유형
		B3. 직업관련목적 여부
		B3. 연간참여시간
		B3. 개인부담 학습비
		B3.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B3.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B3. 주요수강 시간대
		B3. 프로그램 만족도
		B4. 교육성과
	C. 무형식 학습	C1. 참여여부
		C1. 교육성과
		C2. 참여 정도
Ⅱ. 학습 환경	D. 장애요인	D1.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무
		D1-1. 희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D1-2.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유형
		D1-3. 참여 장애요인
	E. 접근성	E1. 정보접근여부
		E1-1. 정보획득여부
		E1-1-1. 정보획득방법
		E1-1-2. 정보 미획득 사유

대영역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Ⅲ. 학습자 역량	F. 학습역량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F2. 외국어 사용 빈도
		F3. 인터넷 활용 빈도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Ⅳ. 사회 참여 및 인식	G. 사회참여 및 인식	G1. 자원봉사 참여
		G2. 대인간 신뢰
		G3. 타인에 대한 인식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G6. 정치적 관심
		G7. 정치적 참여여부
		G8. 기관 신뢰도
		G9. 생활 만족도
		G10. 전반적 행복도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G14. 고용안정 성과도
		G15. 삶의 질 향상도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1. 최종학력
		DQ2. 부모 최종학력
		DQ3. 혼인상태
		DQ4. 자녀유무
		DQ4-1. 막내자녀 연령
		DQ4-2. 육아형태
		DQ5. 경제활동상태
		DQ6. 고용형태
		DQ6-1. 상용근로자(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DQ6-2. 전일제/시간제
		DQ7. 직업구분
		DQ8. 직장규모
		DQ9. 직장근무기간과 월 평균소득

Ⅰ. 조사 설계 관련 개선 사항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설계 관련 사항입니다.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현재 '만25세 이상 ~ 만6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년인구의 평생학습 참여가 증가 추세에 따라 조사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대상의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유지(만 25세 이상 ~ 만64세 이하)
( ) ②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연령 상한 없음)
( ) ③ 기타 (_____)

2. 현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규모는 2014년 현재 9,600명으로 지역규모('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참여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표본규모는 어느 수준의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국 수준의 대표성
( ) ② 지역 규모별 대표성(현행)
( ) ③ 시도별 대표성
( ) ④ 시군구별 대표성

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주기와 관련하여 매년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는 일정 주기마다 조사하되 그 주기 내에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부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① 매년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조사함 (현행 유지)
( ) ②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함
( ) ③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함
( ) ④ 평생학습 참여율 및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함
( ) ⑤ 기타 (_____)

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부가조사가 필요한 대상**(또는 주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표시)

( ) ① 청년층의 평생학습 관련 조사
( ) ② 여성의 평생학습 관련 조사
( ) ③ 노인의 평생학습 관련 조사
( ) ④ 직장인의 평생학습 관련 조사
( ) ⑤ 기타 (_____)

Ⅱ. 평생교육의 유형 및 구분

※ 평생교육은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형식교육

1-1. **형식교육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2. **형식교육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과정 ② 대학교(2,3년제 대학) ③ 대학교(4년제 대학)
④ 방송통신대학교 ⑤ 사이버원격대학교 ⑥ 대학원(석사·박사)
⑦ 기타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3. **형식교육의 정의와 구분**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비형식교육

2-1. **비형식교육의 정의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예시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형식교육이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비형식교육 참여 예시〉
- 출석수업이나 방송 및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 검정고시 준비 등)
- 출석수업이나 방송 및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기초문해교육
- 회사에서 제공한 신입사원 연수, 특강, 직무연수, 워크숍 등에 참여
- 출석수업이나 방송 및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직업능력 향상(각종 자격증)교육 참여
-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에서 개설한 교양, 문화, 예술, 스포츠 강좌 참여
- 지역주민이나 동호인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워크숍 참여
- 사설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한 외국어교육, 컴퓨터활용교육, 요리강습 등에 참여
-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영농 기술 교육 참여
- 종교기관 및 시민당체에서 제공하는 온·옾라인 강좌 수강
- 외국어, 스포츠, 악기 등 관련 각종 개인교습

※ 일회성 행사 참여는 제외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1-1. **비형식교육의 정의와 예시**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20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변경(안)	
학력보완교육	① 고등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② 검정고시 강좌(초·중·고등학교) ③ 진학 준비 강좌(편입, 대학원 준비)	기초문해교육	① 내국인한글문해프로그램 ② 다문화한글문해프로그램 ③ 한글생활문해프로그램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④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실, 다문화교육, 어르신컴퓨터, 산수교실 등)	학력보완교육	④ 초등학력보안프로그램 ⑤ 중등학력보완프로그램 ⑥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교육	⑤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 ⑥ 컴퓨터 자격증 강좌(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⑦ 자격증 인증 과정(공인중개사, 각종 지도사, 요리기능사,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피부관리사 등) ⑧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공무원 시험 대비반 등) ⑨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직무연수, 경력개발, 워크숍, 세미나 등)	직업능력교육	⑦ 직업준비프로그램 ⑧ 자격인증프로그램 ⑨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⑩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⑪ 외국어강좌(생활외국어 등) ⑫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교육 등) ⑬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강좌 등) ⑭ 인문교양강좌(역사강좌, 철학강좌, 미술사강좌, 문학강좌 등) ⑮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예절교육 등) ⑯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생활의료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⑩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⑪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⑫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문화예술스포츠교육	⑰ 음악강좌(피아노, 플루트, 노래교실 등) ⑱ 미술강좌(풍선아트강좌, 사진, 공예, 천연염색 등) ⑲ 스포츠강좌(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인문교양교육	⑬ 건강심성프로그램 ⑭ 기능적소양프로그램 ⑮ 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⑳ 지도자과정(마을리더,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 ㉑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등) ㉒ 환경생태 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강좌 등)	시민참여교육	⑯ 시민책무성프로그램 ⑰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⑱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2-1.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수정안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3. **비형식교육 기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분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장(혹은 연수원 등) ② 학원 ③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④ 인터넷 강의 ⑤ 학습동아리 ⑥ 개인교습	※ 이하 평생교육기관 ⑦ 유·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⑧ 대학교(원)부설 평생교육기관 ⑨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⑩ 사업장(문화센터, 산업체, 백화점 등)부설 평생교육기관 ⑪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기관 ⑫ 언론기관(신문, 방송)부설 평생교육기관 ⑬ 지식·인력개발형태(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으로 기업 또는 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 ⑭ 평생학습관 ⑮ 복지관 ⑯ 주민자치센터(지자체 평생교육기관 등)	⑰ 기타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3-1. **비형식교육 기관의 유형**에 대한 분류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기관이 추가 혹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3. 무형식학습

3-1. **무형식학습의 정의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예시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식학습은 강사의 지도 없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과 교육프로그램 또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로부터 배우는 비형식교육과는 달리,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 혹은 우연한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무형식학습 참여 예시〉
- 가족, 친구 또는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
- 인쇄매체(책, 전문잡지 등)을 활용한 학습
-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 여행을 통한 학습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3-1-1. **무형식학습의 정의와 예시**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무형식학습은 통계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무형식학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무형식학습을 제외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3-2-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무형식학습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4. 평생학습 참여목적 및 성과

4-1.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참여 목적과 관련하여 현재는 직업 관련 여부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여목적과 참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참여목적 및 성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변경(안)	수정 방향
목적	A3/B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과 관련된 이유로(현재 직무 및 차후 희망 직업 포함) ② 직업과 무관한 이유로	A3/B3. 귀하께서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 ②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③ 직업능력 및 고용안정 ④ 사회참여 ⑤ 친목도모	참여동기 구체화 및 평생학습 성과와의 응답 항목 일치
성과	A5/B4. 귀하께서 지난 1년 간/지난 1달 간 참여한 형식교육/비형식교육 경험이 전반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육체적 건강 유지 2) 정신적 건강 또는 심리적 만족 3)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4)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5)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6)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7) 고용안정 8) 시민의식(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등) 증진 9) 지역사회참여(투표, 축제, 지역 내 행사 등) 증가 10) 사회적 상호작용(사교모임, 동호회 등) 증진	A5/B4. 귀하께서 지난 1년 간/지난 1달 간 참여한 형식교육/비형식교육 경험이 참여목적(A3/B3)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참여동기와의 연관성 고려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4-1-1. **평생학습 참여목적 및 성과**에 관한 개선사항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목적과 성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선택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Ⅲ. 조사 영역별 개선 사항

A. 형식교육

1. **형식교육에 대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항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영역	조사세부항목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A. 형식교육	A1. 참여여부	①	②	③	④	⑤
	A1-1. 참여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A1-2.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①	②	③	④	⑤
	A2. 교육시간	①	②	③	④	⑤
	A3. 참여목적	①	②	③	④	⑤
	A4. 학습비 1) 자기부담	①	②	③	④	⑤
	2) 외부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2-1) 지원금액	①	②	③	④	⑤
	A5. 교육성과	①	②	③	④	⑤

1-1. **형식교육에 대한 조사항목**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B. 비형식교육

2.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 여부**를 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내용중심)	2014년(형식중심)	비고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성인기초 및 문해 해득교육 2) 직업능력향상교육 3) 인문교양교육 4)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5) 시민참여교육	B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2)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3) 원격/사이버 강좌 수강 4)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5)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2015년부터는 학습동아리를 별로 선택지로 분리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1.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 여부**를 묻는 선택지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응답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비형식교육의 프로그램별 참여경험 조사대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간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난 1년 간 참여경험을 조사(현행)

② 지난 6개월 간 참여경험을 조사

③ 지난 3개월 간 참여경험을 조사

④ 지난 1개월 간 참여경험을 조사

⑤ 기타(　　)

4. **비형식교육에 대한 조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항별 조사내용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변경(안)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1. 참여여부	B1. 유지	①	②	③	④	⑤
B2. 참여 프로그램 수	B2. 제외(프로그램별로 작성하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B3. 참여현황 1) 프로그램 유형 선택	B3. 참여현황 1) 프로그램명 직접기입(수정)	①	②	③	④	⑤
(지난1년) 2) 기관유형 선택	(지난1개월) 2) 기관명 직접기입(수정)	①	②	③	④	⑤
3) 직업관련목적	3) 참여목적 다양화(수정)	①	②	③	④	⑤
4) 연간참여시간	4) 프로그램 참여시간(수정)	①	②	③	④	⑤
5) 자기부담 학습비	5) 유지	①	②	③	④	⑤
6) 학습비 지원여부 및 지원기관	6) 유지	①	②	③	④	⑤
7)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7) 유지	①	②	③	④	⑤
8) 주요수강시간대	8) 유지	①	②	③	④	⑤
9) 프로그램 만족도	9) 프로그램 도움여부(수정)	①	②	③	④	⑤
※ 가장 최근부터 3개까지만 답변	※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①	②	③	④	⑤

4-1. **비형식교육에 대한 조사항목** 수정안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항목이 삭제 또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C. 무형식학습 → 삭제

D. 장애요인 / E. 접근성

5. **학습환경 관련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안)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수정 방향
D1. [미참여자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신규문항)	①	②	③	④	⑤	중도탈락 및 미참여 요인 중점적으로 파악
D2.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무	①	②	③	④	⑤	
D2-1. [D2 'Y'만]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유형	①	②	③	④	⑤	
D3.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탈락 경험 여부(신규문항)	①	②	③	④	⑤	
D3-1. [D3 'Y'만] 중도탈락 이유(신규문항)	①	②	③	④	⑤	
E1. 평생학습 참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①	②	③	④	⑤	

5-1. **학습환경 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안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6. [평생학습 미참여자만 응답]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미참여 이유에 관한 선택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변경(안)	수정 방향
①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②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회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④ 근무시간과 겹쳐서 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⑥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⑦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⑧ 시간이 없어서(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 ⑨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 ⑩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⑪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⑫ 기타	① 동기, 자신감 부족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④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⑤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⑥ 희망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⑦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⑧ 기타	기존 조사에서 선택빈도수가 높은 선택지 위주로 간결하게 수정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6-1. 수정된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에 대한 선택지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내용이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7. **평생학습 참여자의 중도탈락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보기]로 아래를 제시한 후 응답자에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도탈락의 사유로 제시한 선택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②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③ 당초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달라서(프로그램 정보 오류)
④ 프로그램 수준이 맞지 않아서(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⑤ 기타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7-1. **평생학습 참여자의 중도탈락 사유**로 제시한 선택지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내용이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F. 학습역량

8. **학습역량에 대한 기존 조사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세부항목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F1. 외국어 학습경험 및 수준	①	②	③	④	⑤
F2. 외국어 사용 빈도	①	②	③	④	⑤
F3. 인터넷 활용 빈도	①	②	③	④	⑤
F4. 게임 제외한 컴퓨터 활용 빈도	①	②	③	④	⑤
F5.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①	②	③	④	⑤

9. 향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학습역량 영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9-1. 만약 **학습역량 영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G. 사회참여 및 인식

10. **사회참여 및 인식에 대한 기존 조사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세부항목	질문내용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G1. 자원봉사 참여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2. 대인간 신뢰	귀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달신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3. 타인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4.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	귀하께서는 민주적인 국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5.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도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6. 정치적 관심	귀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7. 정치적 참여여부	귀하께서는 2014년 6월 4일(5월 30, 31일 사전선거 포함)에 있었던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8. 기관 신뢰도	귀하께서는 다음 기관(혹은 단체)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국회 2)법제도 3)경찰 4)정치(인) 5)정당 6)학교 7)병원 8)언론(신문,방송)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 10점 척도/모름	①	②	③	④	⑤
G9. 생활 만족도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0. 전반적 행복도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1.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 빈도	귀하께서는 친목도모를 위해 친구, 친척 및 직장동료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할 상대 빈도	귀하께서는 마음을 터놓고 개인적 문제(비밀이나 사적인 문제)를 의논할 상대가 몇 명(가족 포함)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3.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귀하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4. 고용안정 성과도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취업 또는 직무능력 향상 및 승진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5. 삶의 질 향상도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15-1. 평생학습 참여가 미친 삶의 질 향상정도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직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참여 및 인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ELLI(European Lifelong Learning Indicators)와 캐나다의 CLI(Composite Learning Index)를 참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세부항목	질문내용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G1. 자원봉사 여부	귀하께서는 지난 1달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2. 자선단체 기부여부	귀하께서는 지난 1달 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3. 동아리 (social club) 참여여부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동아리(사교활동, 친목도모, 동문회 등)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4. 사회단체, 정당에의 후원여부	귀하께서는 특정 사회단체나 정당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5. 타문화권에 대한 학습	귀하께서는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G6. 지역사회 기관 접근성	귀하의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이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도서관 2)박물관,미술관 3)전시장,공연장 4)체육시설 매우 멀다/멀다/보통이다/가깝다/매우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11-1. **사회참여 및 인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되거나 수정·제외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12. **그 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 RR 2014-28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 연구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디자인프리즘
(02) 2264-1728
I S B N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